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산티아고로 가는 백만 걸음

(A MILLION STEPS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장 주 미

2019년 2월

산티아고로 가는 백만 걸음

(A MILLION STEPS 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재 원

장주미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장주미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8년 12월



A MILLION STEPS

Jumi Jang

(Supervised by Professor Jae-w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 2019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산티아고로 가는 백만 걸음

지은이 쿤츠
엮은이 장주미

사랑을 알려준 로베르타와,
친절함을 가르쳐준 스카우트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목차

서문

도착: 순례자 여권

첫 번째 날: 피레네 산맥을 넘다

첫 번째 날: 알베르케

두 번째 날: 순례자 식사

세 번째 날: 역사적인 순례

네 번째 날: 순례길 와인

다섯 번째 날: 화살표와 표식

여섯 번째 날: 회상

일곱 번째 날: 노래

여덟 번째 날: 음악과 워킹스틱

아홉 번째 날: 부르고스 물집

열 번째 날: 짐

열한 번째 날: 기념일

열두 번째 날: 꽃

열세 번째 날: 추위

열네 번째 날: 감사

열다섯 번째 날: 봉사의 삶

열여섯 번째 날: 순례길 위의 예술

열일곱 번째 날: 마라톤

열여덟 번째 날: 와가와가 베지마이트

열아홉 번째 날: 기적의 신발

스무 번째 날: 포도밭

스물한 번째 날: 오르막길

스물두 번째 날: 모든 식탁에서 당신을 환영 합니다

스물세 번째 날: 집으로의 전화

스물네 번째 날: 택시의 유혹

스물다섯 번째 날: 비

스물여섯 번째 날: 흠뻑 젖은 날

스물일곱 번째 날: 끝나기 이틀 전

스물여덟 번째 날: 산티아고!

스물아홉 & 서른 번째 날: 산티아고에서의 마지막 이틀 그리고 집
후기

서문

어쩌다가 나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800km나 걷게 됐을까? 여전히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간 생각난 것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들이다. 나에게서 많은 일상적인 것들이 있는데, 가령 매일 카시 시리얼을 먹는 것이 그중하나다. 나를 조종하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는 최선의 방법은, 나를 편안한 환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트려 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중세시대부터 수백만 명이 걸어온 역사적인 길을 호스텔에 묵으면서 걷고, 거기다가 마지막엔 대성당으로부터 콤포스텔라 인증서까지 받는다는 것도 꽤 멋있어보였다.

육체적인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도 꽤 매력적이었다. 전에 유럽을 자전거로 여행해본 적은 있지만 이번 순례 길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만 같았다.

우선 이번에는 스케일이 크다. 프랑스에서 출발하여 산을 넘어 스페인으로 갔다가 돈키호테 초원을 가로질러 해안으로 도착하는 여정이다.

나는 체구도 좋고 체력도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정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적인 여행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12년 전부터 금주를 해왔지만, 나는 여전히 충동적으로 지내온 청춘 시절의 후유증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또한 이른 은퇴로 인해 생긴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4년 여간 만나온 연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대해 생각해보고 싶었다.

산티아고 순례 길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온다. “순례길 처음 3분의 1은 육체적인 시간, 두 번째 3분의 1은 마음을 위한 시간, 마지막 3분의 1은 영혼을 위한시간이다.” 모두 나에게 들어맞는 말이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 길 끝에는 아름다움과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책제목 정하기

이 책의 제목은 내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동안 대충 세어본 걸음의 숫자다.
순례길을 걷기 시작한지 3일째 되던 날, 고속도로 표지판을 끼고 걸던 코스에서
걸음을 세기 시작했다.

세어보니, 1킬로를 걷는 동안 1,153번의 걸음을 걸었다. 계산을 해보니 시작했던
생장피드포르에서 순례길을 끝낸 산티아고 까지 총 909,717 정도 걸음이 나왔다.

거기다가 내가 매일 밥 먹으러 식당을 왔다 갔다 하거나 관광을 하러 다니며 걸
은 것을 대충 하루에 3000걸음 정도라 치고, 총 만 걸음을 더했다.

내 생각에 만 걸음은 꽤 잘 계산한 것 같다.

도착

순례자 여권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을 땐 배낭을 맨 사람은 딱 한명밖에 없었다. 팜플로나로 가는 기차에는 두 명으로 늘었고, 론세스바예스로 가는 버스에서는 미래의 산티아고 순례자들이 가득했다. 아이다호 보이시의 집을 떠난 지 30여시간만에, 드디어 나는 앞으로 30여일을 위한 중요한 동지인 “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내가 만난 첫 번째 친구는 독일에서 온 조직범죄 형사, 피터였다. 우리는 프랑스 생장피드포르에서 같이 택시를 탔다.

내일 걸을 여정을 위해 우리가 론세스바예스 마을을 떠날 때, 우리는 길에서 두 명의 순례자를 보게 됐다. 그들은 어깨에 끈이 달린 가방을 늘어뜨리고 비옷에 가려져 있었다. 그들은 녹초가 되어 보였다. 나는 도착한지 24시간밖에 안된 나와 몹시 지쳐 보이는 그들을 비교할 수가 없었다.

택시 운전사는 45분 동안 이리저리 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어둡한 길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일몰 사이로 길을 쫓으면서 밤나무, 자작나무, 헤이즐넛 나무들을 보았다. 초록색으로 무성한 언덕이 계곡으로 둘러싸인 시냇물과 맞닿아 있었다. 이곳은 모험을 시작하기에 역사적인 것을 넘어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 만한 곳이었다.

저녁 9시쯤, 택시는 우리를 마을의 유일한 중심가인 생장으로 향하는 좁은 다리 앞에 내려줬다. 황량한 길 위를 걸어갈 때 비가 약간 내렸다. 대부분의 창문은 덧문이 대저있었고, 상가들은 커다란 철문으로 닫혀있었다. 간판은 전부 불어로 써 있어서 하나도 읽을 수가 없었다.

피터가 순례길의 공식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순례자 사무실을 찾아냈다. 나는 모든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름진 얼굴에 빨간 배낭을 멘 나의 동료들 기꺼이 따르기로 했다. 그의 훌륭한 탐정 능력이 긴 여정의 마지막 장소까지 나를 잘 안내해 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치모양의 문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에는 4개의 테이블과 4명의 자비로운 봉사자들이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각 테이블에는 순례자를 위한 두 개의 의자와 자원봉사자를 위한 의자 하나가 있었다. 그곳에는 우표와 지도, 새로운 순례자 여권들이 지퍼백에 담겨서 여기 저기 어지럽게 놓여있었다.

우리를 맡은 봉사자의 미소로 긴장이 좀 풀렸지만, 이내 나는 여기서 나 혼자만 영어를 쓰는 사람임을 깨닫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불어는 봉쥬르가 다였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형사친구가 또다시 나의 의사소통을 도와주었다.

나는 순례자여권(크레덴시알)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했지만, 피터는 여기서 받아야만했다. 나는 순례자여권을 우편으로 받았을 때 책자의 빈칸을 보고 감탄하던 순간이 기억났다. 거기에는 내 이름과 도시, 주, 그리고 국가가 적혀있었다. “시작일”은 아직 빈칸으로 남겨져있었다. 그때 나는 이 작은 접이 책자가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소중한 보물이 될 거란 걸 알았다. 보이지 집에서는, 이 책자가 뺏뺏하고 깨끗해 보였었다.

순례길에서 하룻밤 숙박할 수 있는 호스텔이나 알베르게에 묵으려면 순례자 여권이 있어야 한다. 각 지점에 자원 봉사자들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준다. 산티아고에서 이 여권이 순례길을 걸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완주한 사람에게 콤포스텔라 (완주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0km를 걸거나 자전거로 200km 이상을 가야만 한다. 생장에서 부터의 여정은 789km다.

우리는 시간이 늦어서 사무실 봉사자들이 마을에 남아있는 2층 침대를 배정해줬다. 봉사자들은 21번가에 있는 르샤밍베르르토일 알베르게로 우리를 안내했다. 사무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알베르게였다.

우리가 호스텔에 도착했을 때 자원봉사자는 세 명의 어린 프랑스 여자들과 장난을 치며 일을 돕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도착한 젊은 헝가리 여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방의 분위기는 밝았다. 빨간 레게머리에 주근깨 얼굴의 그녀가 눈물을 흘리던 이유가 이곳에 도착한 것이 기뻐서 운다는걸 알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녀에게 집중됐다. 그녀는 순례길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 감성적이었다.

자원봉사자는 소그룹의 순례자들에게 서툰 영어로 설명했다. “이거슨 당신의 여

행이다, 당신의 삶, 당신의 모험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여행하지 마라. 여러분의 거스로 만들어라. 만약에 새 친구와 길을 걸을 때 그 사람이 빨리 걸으면 헤어져라. 그들 먼저 가게해라. 이것은 당신의 여행이다. 당신의 순례길은 당신만을 위한 거다.”

그의 말은 약간 이기적으로 들렸지만 순례자가 되고나서 며칠 만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첫 날밤을 묵기위해 체크인을 할 차례가 돌아오자, 나는 봉사자에게 내 여권을 건넸다. 그는 손바닥만 한 도장으로 초록색의 가리비조개 문양, 숙소이름, 생장피드포르 글씨를 광 하고 찍어주었다. 첫 번째 도장을 받으면서 살짝 긴장이 되었지만, 이로서 나는 순례자로 공식적으로 입증 받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15유로를 지불했는데 이것은 내 여행 중에 가장 비싼 알베르계였다. 하지만 이 가격에는 조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원봉사자를 따라 빼걱거리는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복도를 지나서 나의 첫 번째 단체 숙소로 갔다. 여섯 개의 2층 침대, 총 12개의 침상이 우리 집의 침대 방만한 크기의 방에 옹기종기 놓여있었다. 열려진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아래에 어둑한 불빛의 자갈길이 보였다. 배낭을 풀고 1층 침대에 내 노란색 캘티 침낭을 깔고 있을 때, 밖에 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다.

피터와 나는 마을을 잠깐 걷다가 커피와 맥주를 마시고 21번가로 돌아왔다.

세 번의 비행, 한 번의 기차, 세 번의 지하철, 두 번의 버스, 그리고 한 번의 택시를 거쳐 이곳에 도착하는 동안 나는 거의 쉬지 못했다. 그러니 낯선 사람들의 코고는 소리로 가득한 이곳에서 잠드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첫 번째 날

피레네 산맥을 넘다

새벽 5시 반, 나는 넘치는 에너지와 나의 순례길 걷기 첫날에 대한 기대로 일찍 깨어있었다. 고를 옷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첫날 복장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나는 연한 파랑색의 스포츠용 반팔 티, 모레노 양모 양말, 쉘 등산용 바지, 파타고니아 등산화와 나의 믿음직한 털리 모자를 골랐다. 전반적으로 198cm 나 되는 내 키에 잘 맞았고, 특히 모자는 나의 대머리를 가리기에 적합했다.

신중하게 가방을 싸고 나서 나의 첫 단체 아침식사를 먹으러 시끄러운 계단을 내려갔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브라질, 영국에서 온 사람들의 제각기 다른 언어들로 식당은 부산스러웠다. 빵과 버터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잼이 긴 테이블 두 개에 놓여 있었다. 손잡이가 없는 큰 유리그릇에 진한 블랙커피를 마셨다. 매우 차분한 식사였다. 하지만 나는 내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몇 년, 몇 달, 며칠의 계획 끝에 우리는 그 시작지점에 서있었다.

배낭도 짰고, 밥도 먹었으니 이제 8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시간이다.

호스텔을 떠나기 전에 피터에게 선물을 받았다. 순례길에서 받게 될 수많은 선물 중 첫 선물이었다. 피터는 자기 배낭 안에서 하얀색 휴지에 싸인 가리비 조개 두 개를 꺼냈다. 가리비 조개는 순례길을 상징한다. 가리비조개는 껍질 가운데에서 모든 흠이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는 수많은 순례길이 하나의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피터가 가진 조개에 패인 각각의 흠은 그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로 새겨진 것과 같았다. 피터가 준 조개는 깨끗했다. 우리는 조개를 배낭에 달았다. 그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오늘날까지도 이 조개는 나의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

오늘 이 첫 번째 날은 순례길 중에서도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길은 생장에서 시작해서 론세스바예스까지다. 처음 17km는 프랑스 영토이고 나머지 10km는 스페인 쪽이다. 우리는 나폴레옹 길을 선택했는데 프랑스의 피레네 산맥을 관통하는

거의 1524미터의 급격한 오르막길이 있는 코스였다.

나는 첫 걸음부터 완전히 반해버렸다. 큰 데 레피데르 정상까지 5시간을 계속 경사진 언덕길을 올랐다. 내가 바라다보고 있는 시선 위아래로 구름이 가끔씩 지나갔다. 계곡에서는, 산봉우리가 마치 바다같이 넓은 솜뭉치를 찢러 구멍을 내서 만든 들쭉날쭉한 섬처럼 보였다.

푸른 언덕을 쳐다보던 수천마리의 양떼의 목에 걸린 방울이 짹그랑 거리며 나를 둘러싼 공기 중에 퍼져갔다. 수많은 쌍의 그리폰 독수리가 하얀 머리와 2.4m나 되는 폭의 날개를 가지고 내 머리위로 날아올랐다.

독수리가 그렇게 손쉽게 기류를 타고 오르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웠다. 나는 몇 번이나 바위에 앉아 독수리의 비행패턴을 넋을 놓고 바라다봤다.

하루 동안 나는 한국,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독일, 폴란드, 미국,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다. 정상 근처에는 음식과 음료를 파는 트럭의 주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국가와 출신을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적어 놓았다. 최소 25개가 넘는 국가명 옆에는 200여명의 이름이 빨간 글씨로 적혀있었다.

내가 주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은 전날 밤 택시를 같이 탔던 독일인 피터와 폴란드에서 온 19살 학생인 미콜리였다. 미콜리는 자신감이 넘쳤으며, “내 인생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외치는 아이였다. 나는 그의 젊은이다운 긍정적인 생각과 지혜로움에 흥미가 생겨서 그의 생각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길 청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일생일대의 꿈이었던 펄잼의 라이브 콘서트 공연을 봤던 것에 대해 이야기 해줬다. 미콜리가 산티아고를 걷기 6개월 전에 펄잼 밴드의 공연이 그의 고향인 바르샤바에서 있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는 이 꿈을 이룬 뒤에 인생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의 이런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첫째 날 코스는 총 8시간이 걸렸고 나는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했다. 하지만 신비롭고 기쁜 경험을 한 날이었다.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매우 감격스러웠다. 나는 대지와 하나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코스를 걷는 동안, 나는 마음이 꽤 차분해 졌지만, 종종 내 인생에 있어 예민한 것들에 대한 생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런 생각 대부분은 아버지와 여자 친구 로베르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궁금해졌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오늘은

정말 놀라운 날이었지만, 내가 정말로 매일매일 걸어서 800킬로를 완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순례길 에서의 첫날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첫날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 했고, 스페인어도 할 줄 몰랐으며 다음 지역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 이 길 위에 익숙한 것은 전혀 없었으며, 나는 그저 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론세스바예스에 도착한 순간은 엄청났다. 긴 내리막을 내려온 후 작은 개울을 건너자 창과 방패를 든 인상적인 남자 동상이 나타났다. 죽음과 전쟁에 항복한 채 자신의 말 옆에 쓰러져있는 남자의 모습이였다. 표지판에는 “롤랑의 죽음, 778년 8월 15일” 이라고 쓰여 있다. 거의 천 년 전에 롤랑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국경방어를 시도하다 전사했다고 한다. 동상발치에 서서 이 광경을 경이롭게 바라보다가 문득, 나는 여기가 더 이상 아이다호 집이 아님을 자각했다.

첫 번째 날

알베르게

나는 13세기에 지어진 론세스바예스 성당을 지나 오늘 밤 목을 화이트락 마당과 알베르게로 향했다. 고대양식으로 지어진 하얀 건물의 아치 모양 정문 밖에서 몇 명의 순례자들은 햇볕을 쬐고 있었다. 닫혀있던 18개의 회색 창문 중 3군데에는 빨래가 널려있었다. 문 앞에서, 매우 친절할 남자가 “비엔 베니도” (잘 오셨습니다)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나를 맞이해줬다.

짧은 줄을 서서 기다린 후에, 나는 10유로와 내 순례자여권을 보여주고 빛나는 파란색 도장을 받았다. 봉사자는 나에게 3층 48번 병커침대 라고 적혀진 하얀색 티켓을 건넸다. 나는 이 종이를 계단을 지키고 있는 남자에게 보여 주었더니, 그는 내가 신발을 벗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모든 알베르게는 이렇게 들어가는 길 도중에, 야외용 신발을 놓아둘 장소를 잠자는 숙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치해둔다.

이 건물의 외관은 마치 내부가 현대적일 것처럼 생겼다. 3개의 층 각각에 64개의 침대가 있다. 그리고 작은 방에 4개의 침대가 무리지어 놓여 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는 창문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밝은 색의 나무 판넬이 있는 곳을 생각해 보라. 판넬과 떨어진 곳에는 문 없이, 오픈된 공간이 있다. 이 알베르게는 아주 깨끗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순례자들의 배낭을 보관할 수 있는 라커도 있었다. 각층에는 화장실과 세 개의 현대식 샤워시설을 갖춘 욕실이 두 개씩 있었으며, 모든 시설은 매우 깨끗했다. 길고 격렬한 여정 끝에 지친 몸을 달래주던 첫 번째 샤워의 순간은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지하에는 세탁시설이 있었는데, 코인으로 작동하는 세탁기를 쓰거나 싱크대에서 손으로 빨 수 있게 되어있었다. 나는 싱크대에서 양말, 속옷, 셔츠, 바지 등을 손수 빨는 것으로 나만의 의식을 만들었다. 회전식 탈수기로 옷의 물기를 짜내고 빨랫줄

에 넣어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것으로 이 의식을 끝냈다.

그 당시에는 이 숙소의 시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전부 통틀어 가장 호화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순례자들이 순례길에서 숙소를 고를 때 세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큰 도시에서만 찾을 수 있는 호텔이 가장 비싼 숙소이며, 중간 가격대로는 작은 호텔이나 게스트 하우스가 있다. 가장 저렴한 곳이 바로 알베르게나 순례자 호스텔인데, 저렴한 숙소들은 순례길 코스에 있는 거의 모든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순례길을 걷는 동안 거의 매일 200에서 1200명의 사람들이 세 네 곳의 작은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각 마을에는 순례자들이 하룻밤을 지낼 만한 숙소가 두 곳 에서 네 곳 정도 있다. 이 말은 즉, 평균적으로 하루에 최소 열개 이상의 알베르게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다.

알베르게는 모두 독특하다. 돈을 지불하는 형식을 보자면, 현금으로는 1박당 4에서 15유로로, 가격이 적당한 편이다. 심지어 몇몇 성당 시설들은 간단한 기부를 하는 것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알베르게에 도착을 하고나면, 봉사자들에게 순례자 여권을 보여주고 도장을 받게 된다. 각각의 도장은 순례자 여권의 백지위에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다. 파랑, 초록, 검정, 빨간 색으로 된 이形形色색의 도장들은 특정 단어나 날짜, 상징물, 건물이나 순례자의 그림 등이 새겨져있다. 모든 도장에는, 그 마을이나 호스텔의 이름이 적혀있다.

도장을 받는 과정이 끝나면, 순례자들은 각자 병커침대 번호를 지정받게 된다. 알베르게에 투숙 하는 것은 포시즌 호텔에서 묵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방 귀소리 없고 코골이 소리 안 들리는 방에, 아래층 침대를 달라고 지정하거나 추가로 베게를 요청할 수가 없다.

다음 단계는 고대하던 침대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매일 저녁 숙소를 배정받는 것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어떤 알베르게는 한 두 개의 커다란 방에 병커침대가 가득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피곤한 순례자 수 백 명을 한 곳에서 재우기도 했다. 반면에 어떤 숙소는 겨우 20명 정도만 수용하기도 했다. 한군데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각 방에 고층빌딩 같은 삼층 침대를 놓아뒀었다. 또 어떤 곳은 방 하나에 1인용 침대 다섯 개가 있는 곳도 있었다. 이번 여행 중 방 하나에 가장 많았던 침대의 숫자는 120개였다.

병커 침대의 틀은 매우 견고한 것부터 거의 부서지기 직전의 것 까지 다양했다. 한 침대에서 생기는 작은 움직임은 이내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된다. 배치 받은 대부분의 침대에는 다리를 놓는 쪽에 서로의 공간을 나눠주는 보이지 않는 막이 생기곤 하는데, 여기서 내 큰 키가 종종 문제가 되곤 했다.

때문에 피곤하고 경련이 일어나는 다리를 쭉 펼 수 있도록 나의 큰 발을 걸쳐놓을 수 있는 침대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였다.

작은 공간을 위아래 층으로 침대를 나눠놓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생긴 이 천장에 머리를 찝지 않고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에는, 스페인 침대의 낮은 간격을 까먹고 침대 용수철에 이마를 벤 적도 있다. 아직도 아래층 침대에 배정 받는 것은 거의 라스베가스 슬롯머신에서 잭팟을 맞는 것과 같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아래층 침대는 침대 밑으로 충분한 보관 공간을 확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 길에 태양의 서커스단처럼 아크로바틱을 할 필요도 없다. 우리 순례자들은 또 벽을 등지고 있는 침대 자리도 몹시 탐을 냈는데, 이 자리에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많은 알베르게는 템푸페딕이나 이중매트리스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대신에 이곳의 매트리스 두께는 평균적으로 10센치는 넘어 보였다. 운이 좋으면 가끔 호스텔에서 매트리스 겹 커버를 받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델 하우스에서 쓰인 것 과 비슷하게 생겼다. 베개는 얇은 것부터 더 얇은 것이 있는데, 머리가 몸통보다 위에서 쉬게끔 해주기는 한다.

모든 알베르게에는 세탁을 하는 곳이 있다. 내가 여행 중에 묵었던 알베르게 중에서 네 군데 정도는 옛날 식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숙소들은 대체로 두 세 개의 큰 세면대와 붙박이로 된 빨래판을 갖추고 있었다. 나는 매일 빨래를 할 때 세제로 비누를 썼다. 매일 하루를 마치고, 나는 양말과 속옷 바지와 셔츠를 빨았다. 어떤 숙소든, 옷을 말릴 빨랫줄은 충분히 있지만, 빨래집계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빨래가 아침이 되어도 마르지 않아 축축할 때는, 옷을 배낭에 고정시켜서 낮에 걷는 동안 말리곤 했다.

샤워를 하는 것은 언제나 또 하나의 여정이였다. 좀 큰 숙소들이 여덟 개 정도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몇몇 작은 숙소들은 겨우 한 개만 준비해 놓은 곳도 있었다. 물론 깨끗한 곳도 있었지만 토하기 직전의 샤워시설도 있었다. 나는

도대체 뭐가 있을지 모르는 바닥을 밟지 않으려고 화장실에서는 늘 슬리퍼를 신고 다녔다. 알맞은 수압, 일정한 물 온도, 충분한 온수량은 산티아고 순례길 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나는 감사히 여기며 샤워를 했고, 완벽하게 내 컨디션을 회복시키고 재충전을 했다.

레온에 있던 단 한 곳의 숙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최소한의 사생활 속에서도, 순례자들은 서로를 최대한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첫날의 순례길 끝에 맞이한 이 호화스러운 시설로 인해, 나는 하루의 일과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이제 휴식을 취할 시간이었다. 나는 형사 친구 피터를 만나 작은 술집 밖에 있는 멋진 뜰에서 앉아 휴식 시간을 가졌다. 피터가 딱 알맞은 크기의 머그잔에 담긴 파고아 맥주를 훌쩍일 때, 나는 우유와 에스프레소 커피로 만든 콘라체 커피를 처음으로 마셔봤다. 함께 대화를 조금 나누고 스트레칭을 하고나서, 나는 내 일기장을 꺼내 이 여행의 첫 시작을 써 내려갔다. 하루 종일 피레네 산맥을 넘어오며 걸었던 긴장이 풀리는 것이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날 오후에, 나는 알베르게 사무실에서 등산용 스틱을 샀다. 오늘 길을 걷던 중에 나와 미콜리는 나무 지팡이를 하나 주워서 둘이 번갈아가며 들고 왔는데, 그 지팡이는 좀 이상하게 생기고 무거웠다. 내가 새로 산 나무 스틱은 끝부분이 금속으로 처리되어있고 날렵하고 가벼웠다.

우리는 식당에 저녁식사를 예약했다. 7시가 되자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식당에는 여덟 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총 16개 놓여있었다. 나는 독일, 헝가리, 프랑스,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 앉았다. 우리는 모두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만 나눴다. 식사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3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빨랫줄에 널어두었던 마른 옷가지들을 걸어왔다.

내가 묵는 방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자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온 론과 크리스틴이 있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자와는 전혀 대화를 할 수 없었지만 미국에서 온 두 사람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멋진 중년 커플은 서로 매우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오늘 순례길을 걷던 중에 이들을 보았는데,

두 사람이 손 꼭 잡고서 즐기면서 걷는 모습이 정말 사이 좋아 보여서 감탄했었다.

나는 지난 4년간 계속 나와 함께해온,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로베르타 생각이 났다. 나는 그녀가 집에서 저녁을 만드는 모습, 고양이를 껴안고 있는 모습, 노라 존스의 노래를 피아노 연주하거나 그린벨트의 보이지 강을 산책하는 모습들을 상상했다. 공항에서 출국할 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고, 뉴욕에서 전화를 한번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니 로베르타와 주기적으로 통화를 할 수가 없다.

10시가 다되도록 소등하지 않았지만, 나는 안대와 귀마개로 나만의 이른 잠자리를 준비했다. 잠귀가 밝은 사람들이라면 알베르계에서 잘 때 귀마개는 필수품이다.

거의 매일 밤마다, 코골이 합창 소리로 숙소가 뒤흔들린다. 중간에 킁킁대며 숨이 막힌 것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쉬지 않고 계속 크르렁대는 사람도 있다.

방귀는 거의 매일 밤 겪을 수 있는 평범한 것이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원치 않는 큰 방귀소리는 단잠을 방해하기도 하고 방 안의 공기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이곳의 침실에서는 그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도 증폭되곤 한다. 나는 귀마개를 하고 잠에 들기 위해 애쓰지만, 이곳은 너무 많은 열기로 가득 차있어 쉽지 않았다. 나는 7시간 동안 거의 제대로 쉬지를 못했다. 5시 반, 나는 결국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두 번째 날을 걸기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두 번째 날

순례자 식사

1층에 있는 대합실은 제대로 가방을 꾸리기에 적합한 곳이다. 나는 그날 마실 3리터의 물을 필수품으로 배낭 주머니에 채긴다. 10kg나 되는 내 배낭에 거의 3kg로나 되는 물을 더하니, 더 일찍 그리고 자주 목이 말라온다.

숙소를 떠나기 전에 나는 피터에게 작별인사를 하려고 다시 3층을 올라갔다. 어제, 피터는 자신의 하루치 목표로 20km씩 걷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30km씩 걸을 예정이라 서로 계획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피터의 침대로 가보니 그는 헤드랜턴의 빛에 의지해서 배낭을 꾸리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포옹을 했다. 나의 첫 번째 친구와 작별인사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1층으로 다시 내려가는 길에 나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나는 침묵과 고독 속에서 걸었다. 자갈길 위에서 내 발걸음 소리와 등산 스틱의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걷는 길 양쪽으로 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헤드랜턴의 불빛이 어른거릴 때 마다 내 숨소리도 물결치는 구름처럼 들려왔다.

침묵 속에서 한 시간정도 걷고 난 뒤, 암스테르담에서 온 니콜리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승무원인데 올해에 순례길 절반을 걷고 나머지 반을 내년에 다시 걸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녀와의 대화로 네덜란드의 항공사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었다. 나는 다음 마을에서 허기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그녀와는 한 시간 정도 밖에 같이 걷지 못했다.

에스빠날에서 나는 “바” 에 들러 포르피야 데 빠따따스와 카페 콘라체, 초코 크로와상을 주문했다. 나는 여기서 야외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있는 무지개 색 머리 띠를 한 엘리라는 남아프리카에서 온 젊은 여성과 합석 했다. 우리 둘 다 론세스바예스에서 27km 떨어져있는 라라소냐까지 걸을 계획이었다. 한바탕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잔뜩 부른 배를 안고 다시 순례길로 향했다.

나는 순례길의 식사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다. 아침식사인 데사이우노 는 보통

갓 구운 밀가루 빵 몇 조각에 버터와 잼이 제공된다. 좀 더 고급스러운 아침식사에 빵을 토스트로 구워준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포르띠야 데 빠따따스도 아침식사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올리브유에 살짝 튀긴 얇은 감자튀김으로 만드는데, 계란과 양파를 섞어서 단단해지면, 그 위아래에 튀긴 포르띠야를 동그랗게 둘러서 파이 모양으로 만든 음식이다.

이 음식은 단품 형식으로 파이 한 조각으로 주문 할 수도 있고, 두 조각으로 주문하면 샌드위치처럼 먹을 수도 있다. 점심식사인 알무에르소는 보통 “보카달로”라는 샌드위치가 있는데, 이것은 빵 두 장에 얇은 햄 슬라이스나 초리초 소세지를 넣어 먹는, 단출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다.

썰나는 저녁식사를 말하는데, 이중 “순례자의 메뉴”는 가격이나 선택의 변동이 거의 없는 매일 저녁의 중심이 되는 음식이다. 저녁식사의 가격은 9~11유로이며, 첫 번째, 두 번째 메뉴와 뽀스프레 라는 디저트를 포함한 세 가지 코스로 제공된다.

첫 번째 메뉴는 파스타에 샐러드, 스프 또는 빠에야 가 나오고, 두 번째 메뉴는 돼지, 소, 닭고기 혹은 생선 중에 하나가 나온다. 두 번째 메뉴가 나올 때는 늘 빠따따스 뿌리따스 라는 튀긴 감자가 곁들여진다. 디저트 메뉴에서는 플랜파이(카라멜 커스터드), 나티야(부드러운 커스터드), 엘라도(아이스크림), 아로스 콘라체(쌀과 우유로 만든 디저트), 프루타(과일) 중에 선택 할 수 있다. 모든 저녁식사에는 빵과 물, 와인이 포함되어있다.

식당의 순례자 메뉴는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춘 것이다.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8시나 9시 무렵 잠자리에 들고, 알베르계의 소등시간도 10시이다. 마을의 지역 주민들의 식사 패턴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주민들은 대개 오후 2시나 3시쯤에 성대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시에스타(휴식시간)에 긴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즐긴다. 저녁식사는 8시나 9시쯤 모여서 몇 시간동안 식사를 즐기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교시간을 갖는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례자들이 코고느라 바쁠 때, 주민들은 그들만의 밤의 행진을 시작한다. 순례자들이 아침에 도시를 떠날 즈에서야 그곳 주민들은 잠에 빠져든다.

나는 늘 먹는 것을 즐기는 편이지만 순례길 중에는 음식을 구하는 일이 또 하나의 도전이 된다. 대부분 아침, 나는 동트기 전에 순례길을 출발하는데 그 시간에는

문을 연 곳이 아무데도 없다. 이 말은 즉, 다음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5~8km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에 도착하면 항상 순례길을 계속 걷는 노란색 화살표와, ‘바’라고 쓰인 또 하나의 노란 화살표를 발견할 수 있다. 엘비스의 바를 제외하고 나는 보편적으로 부르는 “바”만 생각나고 다른 식당의 이름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바는 기본적으로 각 마을의 사회활동의 중심에 있다. 이곳에서 커피, 토스트, 보카델로(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물, 부즈(술), 인터넷, 텔레비전, 사교활동 등을 즐길 수 있다. 바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순례생활에 있어서 매우 일상적인 활동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모든 테이블의 순례자들이 환영해준다. 이곳은 그 어떤 파벌이나 왕따가 없는 평화로운 곳이다.

무작위로 운영하는 이 장소들은 대체로 아침 8시 정도에 문을 연다. 그리고 나는 문을 닫을 때까지 있어본 적은 없지만 저녁 10시쯤 닫는 것 같다. 실내에는 고정된 좌석이 있고, 야외 테라스에는 빨강 플라스틱 테이블이 놓여있다.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했던 식사 장소는, 어느 오후 순례길 중에 혼자 식사를 했던 콘크리트 갓길이다.

대부분의 마을에는 식료품점이 있는데, 이곳은 인구가 넘쳐나는 미국의 도시에서 보던 전형적인 소매 식료품점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순례길에 있는 작은 마을에는 전형적인 식료품점인 띠에나(가게)가 있는데, 이곳은 한 번에 세 명에서 네 명 정도의 손님만 받을 수 있다. 이 작은 식료품점에는 빵이나 치즈 같은 기본적인 몇 가지 제품만 갖추고 있다. 과일을 전부 합쳐 봐도 사과 열 개, 오렌지 여섯 개 정도일 것이다. 좀 더 큰 마을에는 미국의 편의점 정도의 작은 가게들이 있고, 가장 큰 4개의 도시에만 미국의 작은 식료품점 정도의 전통적인 가게들이 있을 뿐이다.

그동안 내가 찾아낸 순례길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과거의 익숙함에서 오는 기대를 모두 버리고 그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집에 있을 때, 나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오랫동안 자전거로 산을 등반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

바는 문을 닫았지만, 이른 아침 다시 걸어야만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이 현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곳이 집이랑 다르다며 징징대는 아이가 될 것인지는 내 선택에 달렸다. 나의 아침이 즐거울지 아니면 엉망이 될지는 이 간단한 선택에 따라 달

라질 것이다. 물론 걱정할 필요 없이, 나는 다음 마을에도 이런 공공장소가 있으며, 그곳에서 식사는 훨씬 더 맛있을 거란 것을 알고 있다.

규칙적인 식사 계획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음식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선택 사항이 될 것이다. 만약 다음 지점까지 도착하기 전에 음식이 정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순례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 그게 사과 하나가 됐든, 물집 잡힌 데 쓸 밴드이건, 목마른 영혼을 위한 물이건 상관없이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함께 걷고 있는 동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해도 좋다.

길을 걷다보면 종종 음식도 얻을 수 있다. 감초 맛이 나는 야생 아니스 씨앗은 나의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물건이 되었다. 우리는 종종 열매가 달려있는 사과나무나 산딸기로 가득한 덤불, 끝없는 포도밭, 그리고 빨간 고추 같이 야채들이 가득한 시골 농장을 지나치기도 한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야생에서 자란 것이거나 자연적으로 땅에 떨어진 것은 순례자에게 허용된다. 하지만 스페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서 과일을 따거나 농장에서 야채를 훔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알려져 있다. 종교적이든 아니든, 나는 이런 불문율을 여기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굶주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이곳의 음식이나 시차, 문화에 대한 적응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곳의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마치 내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먹어댔다. 하지만 그렇게 먹어도,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15인분 이상 먹지 않는 한, 산티아고 순례길의 높은 칼로리 소모를 따라가지 못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길을 걸으면서 살이 많이 빠진다.

걷기 시작한지 두 번째 날이 되어서야 마침내 나는 문을 연 작은 띠에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빵과 사과 하나, 견과류를 사서 아름다운 아르가 강둑에 앉아 맛있는 식사시간을 가졌다.

내가 생각했던 장소에 도착했지만, 아직 힘이 넘쳐났다. 나는 체력이 바닥 날 때까지 계속 걸어보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때 아침을 같이 먹었던 엘리를 만났는데, 그녀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13km를 더 걸었다. 강을 따라 터덜터덜 걸으면서 믿지 못 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었지만, 대신에 하루에 총 40km를 걸으며 체력이 많이 떨

어졌다. 마지막 언덕을 내려 갈 때는 마치 늙은 노인이 되어버린 느낌이였다. 나는 무릎에 충격도 줄여보고 풍경도 좀 다르게 봐볼 요령으로, 잠깐 뒤로 걸어가기도 했다. 비야바에 도착하기 마지막 몇 킬로미터는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이번 순례길 여정 내내 그랬지만, 길었던 그날의 여정 끝에서 날 기다리고 있던 알베르게는 긴 하루의 끝에 나의 피로를 모두 잊게 해주었다. 이것이 내가 순례길을 걸으며 가장 좋아했던 순간이였다.

17세기부터 있었던 이 호스텔은 36개의 침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아르가 강의 폭포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예스러운 안뜰이 바실리카 교회와 숙소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종을 울려야만 했는데, 종이 울리자 매우 친절할 남자가 큰 대문을 열어 우리를 그의 왕국으로 맞이했다. 나에게는 큰돈인 8유로를 내야만 했지만, 나는 금방 나의 하루짜리 집에 흠뻑 빠져들었다.

방에 침대도 몇 개 없었고, 공간도 여유가 있었다. 게다가 운이 좋게도, 이 방에 우리 말고는 두 사람밖에 없었고 아래침대도 비어있었다. 아직 나는 여행 초기였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들도 엄청난 행복으로 느껴졌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옷가지를 손으로 빨고 나서, 좀 쉬려고 엘리와 함께 안뜰로 갔다. 오늘은 좀 오래 걸었더니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아팠다. 마당의 빨랫줄에 젖은 양말과 속옷을 널고 나서, 우리는 햇볕을 쬐 수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각자 일기를 썼다. 참 굉장한 오후였다.

우리는 사실상 거의 모르는 사이였지만 서로 발 마사지를 해주기로 했다. 둘 다 발이 아프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이였다.

저녁식사를 하려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인터넷 전화 광고판이 붙은 작은 가게를 지나가게 됐다. 우리 둘 다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려고 가게로 뛰어 들어갔다. 엘리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나는 로베르타에게 전화를 걸었다.

로베르타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발신자 확인 기능을 즐겨 사용했다. 처음엔, 그녀가 나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매우 들떠서 전화를 받았지만, 얼마못가 대화에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았다. 내가 이번 여행을 준비할 때 로베르타가 매우 열정적으로 도와줬었기 때문에, 이번 짧은 통화로 나는 좀 혼란스러워졌다. 엘리는 남편과 통화 후 신이나 보였다. 나는 그녀가 부러웠다.

저녁 8시 반쯤, 나는 피곤한 몸을 누여 쉬다가 이내 잠이 들었다.

세 번째 날

역사적인 순례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무릎이 제대로 움직일까 좀 걱정이 됐다. 약간 머뭇거리다가 한번 시도나 해볼 겸 이불을 발로 차고 일어났다. 나는 내 몸이 스스로 치유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또 기뻐다. 여전히 무릎이 약간 쑤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아침 8시 무렵, 무지개 색 헤어밴드를 한 엘리와 함께 순례길을 걷기 시작했다. 완벽한 온도와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우리는 눈부신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9시쯤, 우리는 순례길에 있는 네 개의 대도시 중 하나인 팜플로나의 성벽에 도착했다. 중세도시인 팜플로나는 오각형 모양의 군사요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5km에 달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있다. 오랜 시간동안 이 중세도시는 아름답고 활기찬 지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성벽과 요새가 나뉘게 되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926년, 그의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에서 7월에 있는 산페르민 축제의 투우와 이 중세도시에 대해 글을 썼다.

순례길에서 만난 팜플로나의 성벽은, 순례자들을 몇 백 년 전의 스페인으로 이끄는 평화롭고 성스러운 이 여정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고대 순례자들의 길이다. 이 길은 유럽의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잔존하는 다른 기독교 순례길은 그저 단편적일 뿐이며, 한 세기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걸어온 길은 산티아고 순례길 밖에 없다.

이 순례길은 예수의 12제자중의 하나인 성 야고보가 기독교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걷기 시작한 길이다. 성 야고보는 북부 스페인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 후 44세기 무렵, 야고보가 성지로 되돌아오자마자 헤롯왕에게 목이 잘려 희생되고 말았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체를 흠쳐서 대리석 석관에 넣었으며, 그것을 작은 배에 실어 이베리아 반도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그러던 중 배가 침몰되어 그의 시체가 가리비 조개껍질로 뒤덮인 해안가로 밀려와

그곳에서 보존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내가 가방에 매달고 다니던 가리비 조개껍질의 또 다른 상징적 의미이다.) 야고보의 시체는 발견되자마자 알려지지 않은 무덤에 묻혔다고 한다.

19세기에도 성 야고보의 전설은 계속되는데, 펠리요라는 이름의 양치기가 빛나는 별을 따라서 들판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라틴어로 콤포스텔라가 바로 “들판위에 별”이라는 뜻이다. 한 주교가 이곳에서 발견된 성 야고보의 것으로 여겨지는 유물과 성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알폰소 2세가 성 야고보를 이 지역의 수호성으로 선포하였고, 마침내 그곳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지었다.

중세시대동안, 사람들은 성 야고보의 고행을 따라 이 대성당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유럽 전역에 만들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리시안의 가리비 껍질을 그 증표로 들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이 기간 동안, 백 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이 힘든 여정을 거쳐 갔다.

그 당시에는 기차나 자동차, 비행기, 택시,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유럽전역에 있는 각자의 집 앞에서부터 걸어서 순례길을 여행해야만 했다.

오늘날, 적어도 9개의 길이 산티아고 수호성의 무덤에서 만나게 되어있다. 가리비 조개껍질의 내부 홈이 결국 끝부분에서 합쳐지게 되는 것은 모두 다른 길들이 한곳에서 만난다는 은유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오늘날 순례자들의 대부분은 프랑스쪽에 있는 순례길에서 길을 시작하는데, 생장피드포르에서 시작해서 대략 800km 정도를 걷게 된다. 거의 백 만 여명에 달하는 오늘날의 순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 순례자의 숫자는 점점 더 증가해서 2012년에는 산티아고에 도착한 순례자의 숫자만 어림잡아 20만 명 정도였다.

오늘날의 순례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여러 형태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중에는 종교적인 확인을 위해 찾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깨달음을 위해 찾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길을 걸기도 한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우리의 바쁜 삶 속의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나와 엘리는 빵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나서 팜플로나의 유적지를 찾아다녔다. 그

중에는 매년 7월이 되면 황소가 달리는 곳도 있었다. 우리는 각자 산티아고 길을 집중해서 걷게 된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엘리에게 내가 최근에 겪은, 산티아고 길을 걷게 된 동기를 말해줬다.

올해 초, 내 친구 짐은 몇 달 동안 암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끈질긴 싸움을 했다. 그는 다른 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아닌 이상 그의 병이 악화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는 나에게 장례식장에서 고별인사를 부탁했다. 나는 그 제안을 동의했다가 이내 거절하게 됐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하겠다고 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연설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다.

짐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 그는 부자와는 한참 거리가 멀게 태어났으나, 혼자서 세계 최대의 증권회사인 NYSE 회사의 반도체 계열사의 부사장까지 올랐다. 1986년에 그는 나를 영업팀에 고용했고, 나의 스승이 되었다. 나는 여태껏 그를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며, 언제나 끝없는 유머로 긴장된 상황을 해결하곤 했다. 오랫동안 업무를 함께 해오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졌고 나중에는 그는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있던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언제나 나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나에게 소중한 조언을 해주었다.

처음 그의 비보를 들었을 때의 충격과 비통함에서 좀 벗어났을 즈음, 나는 내가 그의 장례식 연사로 뽑힌 것이 영광스럽고 솔직히 좀 놀라웠다. 나는 며칠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하고 종이에 초안을 작성했다. 그렇게 끄적거린 초안을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연설문으로 말 하려고 하니 아무 생각도 안 들고 패닉에 빠졌다. 내가 짐에게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됐다.

2012년 2월, 나는 그의 장례식 연단에 서서 사랑하는 내 친구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추도연설을 어렵사리 해낼 수 있었다. 나는 그의 뛰어난 속도의 승진과 우리가 함께했던 출장에서 재밌었던 이야기들, 나에게 있어 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다. 짐은 자신이 죽을 때처럼, 살면서 다른 것들도 모두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그의 가족들에게 그가 가족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말해왔다고 전했다.

그의 아내는 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고, 나는 그것을 집에 있는 책상위에 올려두었다. 그녀는 편지에는 “당신이 겁먹고 연설을 포기하지 않아주어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짐에게 도와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맙다. 당신은 그의 최고의 친구였을 것이다.” 라고 적혀있었다.

글쎄,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나자, 엘리는 나에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순례길을 걷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덟 명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마치 그들의 장례식에서 연설을 하는 것처럼 편지를 썼다. 그녀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인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이런 행동이 존경스럽긴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중요한 사람 목록에 어머니를 넣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사실, 엘리는 16살의 나이에 아기를 낳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 대한 실망감에 그녀를 자식으로써 포기했다. 나는 이것이 매우 무자비하고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1년 뒤, 엘리는 남아프리카에서 강간을 당했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로부터 10년 뒤, 엘리의 딸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4년 동안 만난 지금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파리의 에펠탑에서 정식 프로포즈를 했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었다.

몇 년이 흐르고, 그들은 자신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4년간의 종교생활로 그들은 재산을 탕진했으며, 그 사이비 종교의 목사는 그들이 이혼하기를 부추겼다. 그들은 마침내 다시 현실을 깨달았고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다.

“종교 때문에 크게 실패한 것과 성폭행을 당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쁘던가요?” 내가 물었다. “이단을 믿었던 것이 천배 더 안 좋았죠, 그건 내 영혼을 겁탈했으니까요.” 그녀는 주저 없이 대답했다. 그 당시 그녀는 자살기도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신에, 엘리는 인터넷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게 도와달라며 후원금을 부탁했다.

엘리는 나와 이 이야기를 거의 4시간동안 나눴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얼굴을 두 팔로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녀가 좀 진정되자, 나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어떤 상처를 주더라도 우리는 그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결코 타인을 바꿀 수는 없으니 대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그렇게 터벅터벅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줬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나에게 계속 순례길을 걸으라며 재촉했다. 나는 그녀와 포옹을 하고 작별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나는 용서의 언덕이라 불리는 페르돈 고개를 향해 계속 걸었다. 팜플로나가 내려다보이는 산마루에 도착하니 계곡의 다른 방향을 볼 수 있었다. 이 언덕에는 말을 타거나 걸으면서 산티아고를 향해 가는 수많은 순례자를 묘사하는 기념비가 있었다. 스페인어로 쓰인 표지판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별의 길이 바람의 길과 만나는 곳”이다.

여기서 나는 런던에서 온 순례길 베테랑인 토니와 그의 동행자인, 난생 처음 순례길을 걷고 있다는 터키에서 온 아미르를 만났다. 토니는 앞으로 있을 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줬다. 그는 작년에도 순례길을 걸었다면서 앞으로 닥칠 것들에 대한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약간 압도당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내가 진정한 순례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의 관심사는 내일 있을 일들이 아닌 바로 오늘 일어날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오늘의 걸기는 뿌엔데 라 레이냐에 있는 훌륭한 알베르게 자크에 도착해서야 끝이 났다. 이 호스텔은 꽤 독특했는데, 4성급 호텔의 지하에 “레푸지오”라는 순례자용 숙소가 같이 있었다. 내가 숙소 비용 8유로를 지불하고 있을 때 다른 순례자가 다가와서 나에게 빨래할 것이 없냐고 물어봤다. 이 숙소에는 세탁기계가 있었는데 그녀의 빨랫감은 양이 얼마 안 돼서 내 것을 같이 해주겠다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낯선 사람에게서 받는 너그러운 마음은 이 길 위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나는 입을 옷을 여유 있게 남겨둔다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빨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옷을 전부 빨고 있어서 나는 속옷도 입지 못한 채, 트레이닝 바지에 바람막이만 입고 있었다.

내 침대에 도착했을 때, 내 침대 바로 앞 침대에 있는 피터를 우연히 다시 만났다. 나는 론세스바예스에서 그와 헤어진 이후에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의 만남은 뜻밖의 기쁨이었다. 그리고 나는 텍수염에 길고 헝클어진 머리를 가진 프랑스 청년 올리버와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눴다. 우리는 네 번이나 연달

아 같은 숙소에서 묵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듯이 저녁 6시쯤에 엘 리가 같은 숙소 입구에 도착했다. 다시 한 번,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깨끗이 세탁된 옷을 되찾고 나서, 나는 올리버와 피터와 함께 시내로 느긋하게 걸어갔다. 우리는 크루시픽스 교회 안을 들여다봤다. 순례길에는 각자의 역사와 훌륭한 외관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다. 이 교회도 그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 동네 바에서 초피도와 감바스를 메인으로 하고 타파스도 좀 곁들여 먹었다. 우리는 오후의 태양이 밝게 비추는 야외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자리한 테이블은 자갈길 위에 놓인 오래된 스페인식 와인 통 이었다. 두 친구가 매우 드라이한 바스크 화이트와인을 마실 때 나는 콘라체를 훌쩍였다. 올리버는 여자들에게 추근대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이 동네의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우리 사진 좀 찍어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알베르게에 도착하니, 엘리는 모두와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우리도 자리에 앉아 순례자 식사를 시작했다. 식당 가운데에는 다섯 개의 뷔페 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올리브 샐러드부터 젤라또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식당 앞에 따로 놓인 테이블에는 고기와 생선이 있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완벽했으며, 나는 모든 메뉴를 맛있게 먹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이번 여행에서 내 식욕이 감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에서 산악자전거를 세 시간 타고 나면, 걸신들린 것 마냥 엄청나게 큰 콤비네이션 피자를 먹었던 걸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긴 하다. 이번 여행에서 오랫동안 걷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 것 보다 체력 소모가 훨씬 더 많을 텐데도 내 식욕은 이전만큼 왕성하지 않았다. 나도 내가 왜 이런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것처럼, 이 길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이쯤에서 나는 이미 지혜를 깨달은 순례자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여전히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놓아주라.” 그리고 “너 자신을 찾고 싶다면 반드시 너를 잃어야만 한다.” 이 두 개의 반복된 말들은 너무 진부해 보였다. 나는 이번 여행의 목표를 이 두 개의 격언을 결합해서 그 결과를 경험해 보는 것으로 했다.

네 번째 날

순례길 와인

여정의 네 번째 날, 나는 새벽 6시 반에 숙소를 나섰다. 전날 나는 두 번째 스틱을 샀는데, 내 키에 맞춰서 좀 더 긴 것이었다. 나는 부츠, 막대기, 등산 스틱을 위한 지정된 보관 장소에 들어서 내가 쓰던 것을 새로 알게 된 친구에게 주었다. 그때는 내가 이 새로운 스틱에 얼마나 애착을 갖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내, 나의 블랙 다이아몬드 스톰의 헤드랜턴이 멋진 순례자 기념비를 비쳤다. 이 특별한 동상은 프랑스 순례길과 아라곤 순례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에 세워져 있다. 그 길을 지나 아르가 강 위에 놓인 여섯 개의 아치모양을 하고 있는 다리를 건넜다. 로마시대의 걸작인 이 다리는 17세기에 지어진 이후로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리를 건너면서 나는 나보다 앞서 이 다리를 건넌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과 로마 사람들을 그려봤다. 나는 나보다 앞선 사람들에게 대한 애착이 생기고, 그들이 남기고 간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을 밟고 있었으며, 동시에 앞으로 나의 길을 따라올 사람들을 환영하는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만으로도 나는 현존하는 사람이 없는 그 이전의 시대와 내가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여행의 80프로를 혼자 걷고 있었지만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완벽하게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로 어둠속을 걷고 있을 때, 나는 갑자기 이 모든 경험이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나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 청춘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안가, 나는 미래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 내가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 도전을 마주할 수 있을지, 혹은 이번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자연과 멋진 풍경을 마음

껏 즐기며, 새로운 음식을 먹고, 열정적인 길을 걸으며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쁜 날들이 앞으로 약 25일 남아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나는 긴 머리의 프랑스 청년 올리버를 발견했다. 그는 흐르는 물 위에 놓인 작은 로마교 위의 돌계단에 앉아있었다. 나는 불어를 못해서 친절하게도 그가 수고스럽지만 영어로 말을 건넸다. 그가 아름다운 억양으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말하려 애쓸 때 나는 그가 얼마나 정신없이 혼란스러워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를 친구라구 불뤄요.” “나랑 가취 아침밥 먹어요.” 그는 챙이 달린 모자 아래로 항상 웃는 스마일맨처럼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나 쥬스랑 초리쵸도 이쥬요.”

“올리버, 당신을 만나면 늘 기분이 좋아요.” 내가 대답했다. “아침식사가 완벽하네요, 오늘 아침을 당신과 함께하면 고급스럽고 멋진 식사가 될 것 같아요.”

“당쉬는 마뉘 먹고 마쉬야 돼요, 배가 부를 때 까쥬. 밥을 안먹꼬 걸으면 순웨길 즐겁쥬 안아요.” 그가 재촉하며 말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았다. 그는 마른 빵 한 덩어리와 칼, 그리고 기다란 초리쵸 소세지 한 조각을 건넸다. 토마토도 없고, 마요네즈, 머스터드, 새싹채소, 상추, 치즈, 양파 같은 서브웨이 가게에서 팔만한 그 어떤 재료도 없는 전형적인 스페인식 샌드위치였다.

식사를 하던 중, 그가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담긴 주스를 건넸다. 나는 주스를 꿀꺽꿀꺽 마실 생각에 약간 신나 있다가 라벨을 보고는 그것이 주스가 아니라 샹그리아 라는 것을 알아챘다. 내가 술을 마실 때에도 아침 9시에 마른 빵에 매운 소세지만 넣어 먹으면서 이렇게 큰 통으로 술을 마셔본 적은 없었다. 간발의 차이로 술인걸 알아채고 나자 나는 웃음이 났다. 나는 그에게 내가 왜 술을 마실 수 없는지 설명을 한 뒤에 그가 큰 술잔을 들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다.

내가 37살까지만 해도 술은 내 인생의 큰 활력이었다. 나는 순례길을 걷기 전, 12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스페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독하게 걷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새로운 통찰력을 준 것 같았다.

아버지는 높은 수준의 기능성 알콜중독 이었다. 그는 아이다호에서 가장 큰 로펌 회사의 동업자였고, 노스웨스트를 통틀어 가장 영민한 사람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그는 마을에서 최고위층과 정계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세등등하게 다녔었다. 나는

아버지가 우리 집 거실에서 열린 정치 모금행사에서, 후보자들과 미국 상원위원들과 회의를 하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틈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로펌은 위기에 빠졌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얼마 안 되는 직원만 남았었다. 나는 아버지가 용감한 시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스미노프 보드카에 중독 되서 퇴직을 권고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버지는 절대로 승리를 놓친 적이 없었고 새로운 회사에서도 재정적으로 큰 성공을 이뤄냈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버지는 장기간의 사업 파트너에게 여러 가교역할을 했던 것 같다.

중학교시절, 동네에 있던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나와 내 친구들은 하이네캔과 마우이와우이(마리화나의 일종), 그리고 말보로 레드를 열심히 모았다. 나는 갓 입문했지만, 기대이상으로 이 세 가지에 적응이 뛰어났다. 운동도 하긴 했지만, 나는 술에 취하거나 여자들의 브라를 끄르는 것에 더 심취해 있었다. 나침판과 지형도가 후자를 더 도왔던 것 같다. 내가 13살 때, 나는 포코포코라는 동네 멕시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나이를 얼버무린 적이 있다. 일을 시작한지 1년 안에 나는 웨이터가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정도가 받을 수 있는 큰돈을 벌 수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내내 식당업계에서 일을 했었다. 특히나 웨이터로 일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일은 어쩐지 다른 사람의 특별한 날에 일조하면서 돈을 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루에 팁으로 100달러씩 벌면서 교육비, 숙박비,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겼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교육비를 떠맡으셨다.

고등학교시절에도 나는 늘 일을 했으며 성적도 좋았고 파티에서는 늘 맥주잔을 제일 먼저 비우는 학생이었다. 술에 대한 유전자를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같았다. 졸업반이 되었을 때, 나는 주기적으로 술을 마셨으며 하루에 말보로 담배 20개피를 피워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워싱턴 주 타코마에 있는 푸젯 사운드 대학에 입학했다.

지난 12년간의 학교생활처럼, 대학생활도 식은 죽 먹기였다. 적당히 공부하고도

나는 우수한 점수로 고공행진을 했다. 여름방학 때는 워싱턴 D.C의 아이다호의 상원위원과 함께 일하는 인턴십을 하기도 했고, 같은 클럽 회원의 형이 하와이 마우이에서 운영하는 목장에서 일꾼으로 잠시 일을 하기도 했다. 나는 4년 과정으로 경영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내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커져가고 있긴 했지만, 솔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대학교 졸업식 전날, 아버지를 모시러 시텍 공항에 마중 나갔던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호텔로 가는 길에 무척 초조해 보였고,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가라고 나를 재촉하기도 했다. 타코나 시내에 있는 웨라톤 호텔에 도착하자 우리는 가방도 차에 그대로 둔 채, 체크인 데스크를 그냥 지나치고 곧장 바로 향했다. 그는 와일드 터키 더블샷을 두잔 시켰다. 건배를 하기 전, 아버지는 나에게 카드 한 장과 오하이오 에디슨 회사의 주식 100주의 증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배당주를 재투자 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는 술이 넘치게 담긴 술잔을 부딪치고 술을 마셨다. 아버지는 함박 미소를 지으며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백수” 라고 말했다.

아버지와 함께 술자리를 갖는 것은 언제나 즐거웠다. 대학시절과 초기 직장생활을 보내던 시기에도, 아버지는 술자리의 활력소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카리스마를 좋아했다. 아버지는 겉보기로는 무제한인 것 같은 신용카드의 장점으로 다른 좋은 술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다. 이 모든 시기를 거쳐, 아버지는 기능성 알콜중독을 넘어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살면서 최소 다섯 번 이상 중독재활 치료를 시도하고 또 실패했으며, 총 네 번의 결혼을 했다.

2001년 5월 말, 동생으로부터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버지가 동네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이다. 그의 간은 완전히 망가져있었고, 남은 장기들의 기능이 마비되기 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찾아갔던 날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너무 작아 보였다. 나의 영웅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아버지의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그와 함께한 모든 일들이 꿈같이 느껴지게 했다. 아버지는 며칠 뒤 2001년 6월 10일 돌아가셨다.

그때 나는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는, 술과

담배를 끊기로 했다. 나는 나의 신체적 활동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나 나를 도와줄만한 친구들을 사귀는데 힘을 쏟았다. 정말 운이 좋게도, 나는 내가 끊은 두 가지를 다시 시도하고 싶은 충동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습관을 없애는 데는 12개월이 걸렸다. 첫 여섯 달은 정말 힘들었는데, 나는 잠을 아주 길게 잤다. 하루에 열 두 시간씩 잠을 자는 것은 나중에는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 나는 매일하는 운동도 나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확신한다. 심지어 내가 술과 담배를 많이 즐길 때에도 나는 하루에 한 시간씩은 라켓볼을 치거나 에어로빅을 하거나 심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곤 했다. 내 생각에는 나의 교활한 성격이, 자기기만의 또 하나의 요소로서 건강함을 추구하게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어떻게 건강에 대한 열정이 있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알콜중독자일 수가 있겠는가? 술과 담배를 끊은 후, 나는 운동시간을 매일 두 시간으로 늘렸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만의 금단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지난 습관을 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욕구가 들지 않음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담배를 한 개비 피우고 술 한 잔을 마셔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영리하게 하거나, 잘생기게 만들어주지 않으며,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좋은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확신하건데 즉각적인 희열은 또 다른 희열을 낳으며 그저 욕구만을 채우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런 욕구가 들 생각을 원천 봉쇄 했다.

내가 술을 끊었을 때 그 반향은 실로 놀라웠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곱씹어볼 수 있었다. 내가 술의 늪에 빠져 있을 때는 술이 내 삶속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마치 두꺼운 이불에 둘둘 말려서 겨울의 추위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사람 같았다. 술은 내 머리와 마음 그리고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을 모두 차단해버렸다. 나의 사회활동의 99%는 술이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활동에서 술이 먼저였다. 야외파티에서 뭘 하고 놀 수 있을까? 와인 없이 저녁식사라니.. 장난 하나? 금요일 저녁도 한번 달려봐야지.

아마도 술이 나의 십대 초반의 감정의 발달을 멈추게 한 것은 아닐는지. 술의 장막이 걷어지자, 비로써 나는 하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순례길을 걷

기 전과 걷는 과정, 그리고 그 후의 나의 여정이 주는 만족감은 술이 주는 것 보다 훨씬 더 컸으며, 무한했다.

2001년에 술을 끊은 이후, 나는 극소량의 와인조차도 입에 댄 적이 없다.

로베르타와 함께 할 때는, 매번 그녀 혼자서 독특한 빈티지 와인을 즐겼다. 다행히도 그 와인들은 전혀 내 구미를 당기지 못했고, 나는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순례길을 걸으며 나는 종종 와인을 마주하곤 한다. 우리는 수많은 포도농장을 따라 걸게 된다. 스페인이 세계 최고의 와인 생산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는 매번 와인을 함께 한다. 많은 친구들이 매일 한두 잔의 와인을 즐기지만, 그 사이에서 물이나 주스 또는 커피를 대신 마시는 것이 나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올리버와 함께 아침식사를 했던 그날, 샹그리아 와인을 건네받았던 것은 내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방식이었다.

어느새 나는 순례길 중에 있는 이라헤의 와인의 샘에 도착해 있었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순례자들이 물병을 채울 수 있도록 공용 식수대를 갖추고 있다. 독특하게, 이라헤의 샘은, 근처 와이너리와 연결된 수로가 있어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와 와인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함께 있었다. 벽에 붙은 표지판에는 “순례자들이여, 당신이 산티아고에 넘치는 힘과 활기를 가지고 도착하고 싶다면 이 엄청나게 맛있는 와인을 마시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 건배하라.” 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적혀있었다.

나는 몇 방울이라도 마실지 말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배낭에 매달린 가리비 조개껍질을 끌어서 수도꼭지 밑에 대는 의식을 시작했다. 나는 건강을 기원하며 손잡이를 당겨서 와인이 나오도록 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은색 수도꼭지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마실 와인은 없던 것이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주가 나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준 것 같았다. 와이너리 앞에 홀로 서서, 나는 웃음과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다.

다시 생각해봐도 나는 행운아였다. 어느 날 밤에는 몇몇 여행 친구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기도 했다. 모든 순례자들은 저마다의 중독을 가지고 순례길을 걷는다. 2011년 마틴 신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The Way에서는 그의 순례길 동료 두 명이 불행히도, 술과 과식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장면이 나온

다.

네 번째 날의 여정이 끝을 향해갈 무렵, 나는 워싱턴 주에서 온 두 명의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다. 흰머리에 야구 모자를 쓴 조이스는 아직까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2년 전 그녀가 68세였을 때, 그녀는 순례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녀가 순례길을 떠나기 1년 전에 65살 먹은 친구 엘라가 같이 걷기로 결정했다. 그녀 판에는 꽤나 용기가 필요한 일 이었다, 왜냐면 그녀는 운동을 해본 역사가 없었고, 과체중이라 몸무게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조이스가 여자 친구들과 마치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친구들과 사이가 좋은 것 같아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배낭에 다양한 색깔의 리본과 함께 묶여 있는 신기한 물건을 가리키며, 이것들은 그녀의 친한 7명의 친구들이 여행목표를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든 그들 중 어느 하나가 큰 모험을 시작하게 될 때면, 그 여행에 행운을 주는 존재로 화려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나는 무생물의 물건이 이 특별한 여행을 한다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머릿속에 그려보려 노력했다.

조이스와 엘라는 산티아고를 지나, 87km를 더 걸어서 피네스테레 해안마을 까지 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이스의 배낭에는 그녀의 대학 친구의 유골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대서양 바다에 뿌릴 것이라고 했다. The Way영화에도 나온 장면이긴 하지만 조이스는 이 계획을 영화가 나오기 전에 생각해둔 것이라고 했다.

비아마요르 데 몬바르딘에 있는 마을은 겨우 150명도 안 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여기에 있는 작은 알베르게에는 우리들이 쉴 침대가 겨우 24개 밖에 없었다. 운이 좋게도 나는 마지막 남은 침대 세 개 중에 하나를 배정받아서 오늘 밤을 무사히 날 수 있었다. 30분 정도 지난 후에 조이스와 엘라가 도착해서 알베르게의 방이 다 찼다. 우리 방은 다섯 개의 침대와 베란다가 있었는데, 베란다에서는 마을 광장과 12세기의 교회 탑 그리고 주변의 농지가 보였다. 이 성당 알베르게에 있던 다른 두 명의 룸메이트는 조셉과 메리였다.

안타깝게도, 나는 경치를 구경하던 중 많은 순례자들이 오늘을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의 모습으로 숙소 앞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됐다. 그들은 더 이상 침대가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야외에서 취침하던지 아니면 8km를 더 걸어서 다음 마을로 갈지 결정해야만 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당

해 되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도 슬펐지만, 올리버와 피터가 입구에서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가슴 아팠다. 그들은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고는 야외취침을 할 준비를 했다. 호스텔 운영자들도 이불과 패딩을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야외 취침” 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이 숙소는 적은 돈으로 단체 아침, 저녁식사를 제공했는데, 식당은 창문이 뚫려 있는 독특한 방이었고 거기엔 커다란 테이블이 세 개 놓여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그 이후에 두 번 정도밖에 더 경험하지 못했다. 네덜란드에서 온 봉사자들이 이 숙소를 운영 중이었는데, 약속한 2주일 중에 일주일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많은 노고 덕분에 우리는 샐러드, 렌틸스프, 야채스파게티, 사과 파이가 나온 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나는 엘라와 조이스 사이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

저녁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나는 새로운 친구로부터 값진 선물을 받게 됐다. 조이스는 나에게 손을 펴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그녀는 자신의 모자에 달려있던 3센치 정도의 노란색 화살모양 브로치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다섯 번째 날

화살표와 표식

이 노란색 화살모양 핀은 순례길의 또 다른 상징물이다. 이 핀은 순례길 위에 있는 돌, 벽, 길바닥 위에 표시된 노란색 화살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아름다운 표식은 나무나 콘크리트, 돌, 표지판, 전신주, 건물, 다리, 그 밖에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쓰여 있다. 아직은 어두운 아침, 이 빛나는 표식을 보면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세 가지 상징물들도 산티아고 순례길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몇몇 도시에서는 화살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리비 조개껍질을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표식은 금속 재질로 된 것도 있는데, 땅 위에 세워져 있거나 콘크리트에 박혀있는 것도 있다. 세 번째 상징물로는 돌탑 형태의 이정표인데, 대체로 이것은 90센치 정도의 높이로 가리비 조개가 새겨져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한 빨간 색 선 아래에 흰색 선이 있는 표식이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산티아고 길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질적인 순례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걷게 되는 것은 대략 3~4미터 정도의 폭으로 딱딱하게 포장된 흙길이다. 이 길은 가끔씩 자동차가 다니기도 하는 진짜 길이 되기도 한다. 도시에서는 주로 자갈길이 많이 보인다. 가끔은 돌길이나 질척한 진흙탕 길을 걷기도 한다. 나는 한사람정도 걸어갈 수 있는 폭의 길을 걸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 그런 길을 걸을 때면, 나는 이전에 똑같은 이 길을 걸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내가 더욱 더 긴밀히 연결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나는 길을 걸으면서, 나의 머리와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과 내 신체적 체력의 표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산티아고 순례길 여기저기에 표시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 곳곳에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다. 우리들은 이 표시를 알아채기에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알코올중독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이것을 보게 됐듯이, 만약 어떤 계기로 한번 이 표시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다음 이것을 따라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서 방향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거의 800km나 되는 길을 자원봉사자들이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이 크고 작은 노란 화살표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완주해낸 것이 놀랍다. 나는 순례 길을 걷는 28일 동안 딱 두 번 길을 잃었다. 이 길이 틀린 길이라는 것을 눈치 채고 깨닫는데 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생각해 보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표식은 늘 있어왔다. 단지 삶을 좀먹는 매일매일의 일상 때문에 그 표식이 빛을 잃어갔던 것 뿐 이었다.

다섯 번째 날, 나는 일찍 일어났다. 새로 만난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를 한 뒤 털리 모자에 노란 화살표 핀을 꽂고 현관으로 향했다. 아직 바깥은 어두웠고, 나는 길바닥에 고꾸라지지 않기 위해 헤드랜턴을 켰다. 현관문 밖에서 코골이 합창 소리가 들렸다. 거의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작은 야외 놀이터에 모여 자고 있었다. 나는 거기서 피터와 올리버를 발견했고, 다시 한 번 작별인사를 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일 거란 직감이 들었다.

내가 일찍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동트기 전에 걷는 것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보이는 아름다운 하늘 색깔과 따뜻한 온기를 즐기기 위해 항상 기대에 부풀어 출발 한다. 이른 아침의 시원함은 피부를 까맣게 태우는 한낮의 열기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날은, 아침 일찍 혼자 걷는 사적인 여행 덕분에 나를 압박하던 신체적 욕구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서 매우 기뻐다. 나는 화장실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규칙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유럽에 도착한 5일 전부터는 대변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했다. 먹기는 엄청 먹어대는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 드디어 이 혼자 걷는 아침에, 신호가 왔고 나는 근처 포도농장에서 땅을 팔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기뻐다.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걸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순례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무작위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떤 순례자들은 소규모의 그룹을 선호했고, 또 어떤 이들은 단체에 속해서 걷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완

전히 혼자서 고독을 즐기며 내 마음이 가는 데로 다니는 것을 즐겼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끊임없이 술과 싸워왔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리고, 여자 친구 로베르타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과연 이 여행이 끝나면 나는 달라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도 궁금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의 4분의 1은 노래를 들었다. 내 산사 클립MP3에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600여곡 들어있다. 노래를 켜고 끌 때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단지 노래를 듣고 싶을 때 켜고 꺼야할 것 같으면 끄곤 했다. 내가 순례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한 나의 감정이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노래도 마찬가지로였다. 이전에 집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들렸다.

이날 나와 처음으로 동행을 함께한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온 엄마와 아들이었다. 서른여덟의 마시모와 예순아홉의 몸은 나에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고,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며 여러 번 마주치게 되었다.

이날 혼자 길을 걷다가 내 앞에 걷고 있던 마시모와 몸을 발견 했을 때, 때마침 나는 힌더의 Better Than Me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이유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리쬐는 햇살아래, 이 아름다운 길을 좋은 음악과 함께 걷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다니.

나는 이날 갑자기 울음이 터진 까닭을 알아내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힌더의 노래는 한 남자가 그의 전 연인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을 회고하는 내용의 노래다. “나는 당신이 그리워 않을 거라 말했지만, 여전히 당신 곁에 있던 순간을 기억해.” 단지 내가 로베르타를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음이 났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의 사랑이 더 이상 그 전과 같지 않을 것이 두려웠다.

서른일곱에 내가 술을 끊기 전까지, 십대 시절에는 유독 술과 여자는 함께였다. 나는 매우 활발한 성생활을 즐겼지만 나의 인간관계는 모두 무의미했다. 나는 두 번의 진지한 연애를 했는데, 모두 2년 정도 만났다. 두 번 다 타고난 술고래들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랑보다 맥주가 더 큰 관심사였던 그 시기에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의미 있는 사이가 되지 못했을 것 같다.

로베르타는 나의 이런 모든 것을 변화시켜준 사람이었다. 비록 우리의 관계는 더디게 진행되긴 했지만 말이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나는 소피아로렌을 닮은 그녀의 모습에 홀딱 반해버렸다. 우리는 몇 주 뒤에 점심식사를 같이 했지만 별다른 감정이 생기진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지난 뒤, 우리는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다시 점심을 같이하기로 했다. 4년여의 시간동안 그녀는 더욱 더 아름다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 다가왔다. 첫 번째 점심식사는 또 다른 점심약속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크리스마스이브에 슬림독밀리어네어 영화를 같이 보게 되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나는 그녀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았다. 그녀의 팔을 잠깐 스친 것만으로도 나는 전율했다. 큐피드의 작고 뾰족한 화살이 나를 겨냥하고 쏘기 직전의 상태였다. 영화가 끝나고, 나는 그녀를 차까지 데려다줬다. 그리고 매표사, 우리는 키스를 했다.

이것은 내가 살면서 했던 키스들과는 달랐다. 그건 완벽하게 나의 긴장을 풀게 해주었으며, 초현실적이며 정말 섹시한 키스였다. 그 키스에 나는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나는 혼미한 상태로 운전해서 집으로 가야만 했다.

우리의 로맨스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머지않아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는 매달 24일을 그날의 키스를 기념하는 날로 지정했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극장에 가고, 빗속을 함께 걷고,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고, 카드게임을 하고, 정원을 함께 가꾸고, 요리를 하고, 때로는 혼자 있어 보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의리와 배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 자신이 가진 재능에 대한 겸손함도 모두 사랑했다. 그녀는 나에게 최고의 친구였으며, 우리는 우리만의 특별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2009년 2월 말쯤, 나는 매년 가는 한 달짜리 여행을 위해 팜스프링으로 떠났다. 로베르타는 긴 두 번의 휴일에 내려올 계획이었다. 처음으로 멀리 떨어져있던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첫 2주 만에 핸드폰 통화시간 1500분을 다 써버렸다. 하지만 내 휴가계획을 바꿀 수는 없어서, 나는 나머지 여행 동안 쓸 로베르타 전용 핸드폰을 하나 샀다. 마침내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 순간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공항 장면 같았다. 그녀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캐리어를 끌고 나올 때 나는 하얀 장미를 들고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 서로 껴안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키스를 나눴다.

우리는 함께 다음 노동자의 날에 뉴욕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브로드웨이에서 위키드 뮤지컬을 보고, 보트타고 엘리스 섬에도 가고, 록펠러 센터에서 뉴욕 전망도 감상하고, 하렘 교회에서 가스펠 합창도 듣고, 무려 센트럴파크에서는 은밀한 사랑도 나눴다. 뉴욕현대미술관에서 로베르타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보면서 가쁜 숨을 내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최고의 순간이었다. 나는 수많은 여행을 다녀봤지만, 두말할 필요 없이 다른 어떤 여행보다 이여행이 제일 즐거웠다.

우리가 만난 지 2년쯤 됐을 때, 우리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 당시에 우리는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주말에는 꼭 붙어있었다. 나는 살면서 그 어떤 것에도 확신해본 적이 없었지만, 나에게 있어 그녀와의 결혼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것은 확실했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연인인 사람과 함께 꿈을 꾸며 살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 몇 번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사이를 깨지게 할 수는 없었다.

우리 둘은 모두 결혼을 해보거나 아이를 가져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진행 중이던 결혼으로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싶어 몇 번의 상담을 받기도 했다. 상담을 하다 보니, 로베르타는 내가 코골이 소리를 좀 거슬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혼인서약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좀 더 여유를 가졌다.

우리는 매 주말이면 함께 데이트를 하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대부분을 우리는 각자 돌아가며 특별한 주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몇 번은 선벨리 같은 산에 있는 리조트로 비싼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정성들여 준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도시락을 싸서 동물원에 가고, 연못에서 오리보트를 타는 등 간단한 것들을 하며 주말을 보냈다. 이당시의 추억들은 아마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급격하게 우리는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정확하게 무슨 일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4년째 되던 해부터 로베르타가 우리 관

계에서 조금 뒤로 빠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행복한 주말은 그저 평범한 토요일 밤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녀가 흥미를 잃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로맨틱하던 여행과 데이트는 끝이 났다. 그녀는 점차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다. 몇 번이나 그녀에게 헤어지고 싶은 건지 물어봤지만, 그녀는 언제나 내가 자신에게 최고의 존재이며 헤어지는 것은 생각 할 수도 없다고 대답했다.

7월에 있었던 그녀의 생일날에, 나는 그녀와 함께 오레곤주에 있는 포트랜드로 떠나기 위해서 로맨틱한 서프라이즈 여행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녀는 의욕이 별로 없었고, 그런 반응에 나도 기분이 상해버렸다. 그 일이 있고나서 6주 만에 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로 했고, 여행을 갈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로베르타 없이, 혼자 가는 야외활동은 흔치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받은 제한된 휴가시간동안 나와함께 좀 정적인 여행을 가길 선호했었다. 크리스마스 날, 그녀는 나에게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라는 책을 선물하며 혼자 떠나는 여행에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지금, 나는 우리의 사이가 끝이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걷고 있었다. 우리사이의 징조가 좋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의 이별을 피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순례길에서의 처음 눈물을 흘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는 내 앞에 걷고 있던 마시모와 몸의 모습과 힌더의 노래가사가 겹쳐져 76세의 나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음을 깨달았다.

내가 술을 끊은 뒤 처음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발전시킨 것이었다. 늘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 장벽을 허물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나는 어머니와 새아버지, 여동생과 여러 친구들과 함께 봄방학 여행을 캘리포니아의 팜스프링으로 떠나곤 했다. 일찍이 큰 회사에서 은퇴하고 난후, 5~6주동안 떠나는 이 여행은 나에게 연례행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긴 여행을 간다는 것이 좀 이상했지만, 얼마안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행운으로 여기며 이 여행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부모를 잃게 된다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좋았고 단단

했다. 나에게 이 연례여행은 그해의 가장 즐거운 일이 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나는 이 여행이 너무 그리울 것 같다.

여자 친구와의 문제와 어머니의 불가피한 죽음을 생각해보니,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두 여자와의 관계가 언제든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다섯 번째 날의 최종 목적지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3600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이 도시는, 이전에 들렀던 대부분의 마을보다 규모가 꽤 컸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안드레스 무노즈 알베르게에 묵기로 결정했다. 이전의 모든 숙박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가보지 않고서는 절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 원래 수도원이었던 이 건물은 순례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바꿨다. 나는 배정 받은 침대가 삼층 침대라는 사실에 놀랐다. 순례길에 있는 침대는 모두 이층침대인데 삼층이라니, 정말 가관이였다. 각 방에는 이런 식의 삼층 침대가 세 개씩 놓여있어 총 아홉 개의 침대가 있었다. 이 호스텔은 총 54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했다. 스페인에 도착하기 전에는, 낯선 사람들과 이층침대에서 자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리고 불면증이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상상하니 잠에 들기도 힘들 것 같았다. 그러나 며칠간 순례길을 겪고 나서 나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됐다. 삼층으로 높게 솟은 침대로 가득한 이 방 한가운데에서, 나는 오로지 내 침대가 그래도 제일 아래층이고, 벽을 대고 있고, 발을 편하게 뻗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했다.

나는 내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연륜’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 이제 나는 짐을 꾸리는 것이나, 알베르게에 묵는 것, 몇 킬로미터를 걷는 일, 친구를 만들고 약간의 스페인어를 하는 것에는 도사가 됐다. 십대라도 된 것처럼, 나는 마치 뭐든지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매일 보내는 이메일을 쓰기 위해 다시 로비로 나갔다. 대부분의 알베르게에서는 얼마 안 되는 요금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키보드를 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내 어깨를 치는 것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마시모가 웃으며 서있었다. 우리는 웃으며 인사하고 마시모는 내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다. 30분정도 후에, 계단에서 나는 나

의 형사친구 피터와 마주쳤다.

이 사람들과 마주치는 우연은 가슴 벅찬 일이었다. 한가한 가을철에도 하루에 25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길을 걷고, 여름철에는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길을 걷는다. 만약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마주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이 여행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와 피터는 6일 밤중에 5일을 같은 숙소에서 보냈다. 피터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건 엄청난 우연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피터와 함께 새로운 도시를 산책하며 오후를 보냈다. 우리는 가게 몇 군데를 들렀다가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인 체사레 보르자가 묻힌 13세기의 아름다운 교회를 포함한 관광지도 몇 군데 구경했다. 그 마을의 규모나 장소에 상관 없이, 순례길에 있는 모든 곳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곳을 찾아볼 수 있다.

피터가 동네 바에서 맥주를 들이킬 때 나는 커피를 마셨다.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우리는 피터의 새로운 독일친구와 마주쳐서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여섯 번째 날

회상

나는 단체로 잠을 자는 곳에서는 언제나 다른사람들을 깨우지 않고 방을 빠져 나오려고 애쓰는 편이다. 그리고 이날 아침에는 제일 밑에 침대에서 잤기 때문에 좀 수월했다. 이 안드레스 무노즈 알베르게의 침대가 3층짜리라, 그 어떤 체조선수가 온다 해도 제일 위층에서 소리 없이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았다. 나는 내 물건들을 챙겨서 식당이 있는 1층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편이 볼도 킬 수 있고, 물건을 가방에 정리할 때 숨죽이고 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

슬슬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임상하라는 이름의 한국 여성은 헤드랜턴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운 좋게, 한국에서 온 이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랜턴을 든 남자가 되었다. 그녀는 머리가 겨우 내 엉덩이정도에 올 정도로 작은 체구였지만, 나의 허를 찌르는 빠른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대체로 새로운 사람과 함께 걸을 때는 걷는 속도를 낮추곤 했었다. 하지만 상하씨와 함께 걸을 때는 속도를 올려야만 했다. 그녀의 영어회화 수준은 최소한의 대화가 가능한 정도였고, 나의 한국어 실력은 전무했다. 쉬는 시간에, 그녀는 나에게 직접 만들어 온 자신의 토마토 치즈 샌드위치 반쪽을 건넸다. 그 순간에 딱 들어맞는 음식이었다. 해가 떠서 환해지자, 우리는 헤어져 각자 걸었다.

아디오스라며 작별하는 순간과 순례자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경험할수록 점점 편해졌다. 나는 이제 길 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0여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이 여행의 초반에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어려웠다. 나는 사실 작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왠지 작별인사를 하고나면 관계가 끝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새로운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기 시작했고, 모든 새로운 만남에는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터득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새로이 경험할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나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로베르타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다. 특히,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끝이 날지 아니면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함께 할지가 궁금했다.

필수로 가져야하는 휴식시간 동안, 나는 존 브리얼리가 쓴 산티아고를 가는 순례자들을 위한 가이드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냈다. 이 가이드북은 산티아고를 걷는 순례자들에게 지침서 같은 책이다. 알베르게, 마을, 고도까지 다 표시된 지도는 방대한 양의 책을 모아놓은 것 같다. 이 책에서는, 배낭이나 비옷과 같은 특정 물품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역사나 여행을 떠나는 개인적인 목적까지 다루고 있다. 휴식 중에 읽은 그날의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았다.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도 손님을 반기는 미소를 가리지 못했다. 그녀는 행복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었으며, 수십 년간 순례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인증도장을 찍어주며 환영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이런 비공식적인 모습들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와의 교류를 피하려하기도 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서, 그녀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들을 평가해 본다.” 이 책에 나온 나이 든 봉사자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나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던 모든 사람들을 상기시켰다. 나는 그동안,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종업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혹은 시간과 장소에 사로잡혀서 사람과 교류하는 것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고 있다.

이날 나는 순례길에서 큰 네 개의 도시 중 두 번째로 큰 로그로노를 지나갔다.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잔잔한 수면 아래에 비친 수도교 아치 위로 햇살이 비쳤다.

나는 배낭 왼쪽 끈에 달린 분홍색 주머니에서 분홍색 캐논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나는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금방 꺼낼 수 있게 해놓아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나는 이 예술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동안 다중노출로 사진을 찍었다.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동안 풍경은 시시각각 변했다. 화려한 색의 건물들과 회색의 다리가 잔잔한 수면에 선명하게 비쳤다.

내가 가진 순례길 가이드북에서는, 순례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집에 두고 오기를 권유한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저자의 제안을 거스르고 카메라를 챙겨왔다. 처음 며칠은 사진을 적당히 찍었으나, 여행이 계속 될수록 나는 사진 찍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길 위에서 음악이 풍미를 더해주는 것처럼, 나는 이런 놀라운 광경들을 기록하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맑은 정신으로 그 순간에 집중하면 음악과 풍경은 더 풍성하게 다가온다. 마을을 지나 걸어가는 것이 마치 미술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였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동안 잠재되어있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림 같은 다리를 지나 나는 어느새 대학가에 와있었다. 큰 교회를 지나갈 때 그곳 문이 열렸고, 나는 상하씨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작별인사를 하기 전까지 함께 걸었다.

나는 이 도시의 중심가로 더 들어갈수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차분하고 기분 좋은 일요일 아침에 순례길에서 첫 번째로 큰 도시인 팜플로냐를 지나왔다.

로그로뇨의 평일 아침은 지나가는 사람들, 교통체증, 울리는 경적소리와 어수선함으로 분주했다. 나는 이곳의 사람들이 미소 짓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순례여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미소 한번을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도시의 끝자락에서 한 낯선 사람이 건넨 “부엔 까미노(좋은 순례길 되세요)”라는 두 단어 덕분에 그나마 기분이 좋아졌다. 우울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잠깐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 채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팠다.

내가 이 도시에서 느낀 사소한 즐거움 하나는 좋은 호텔에서 화장실을 썼다는 것 뿐 이었다.

내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지역 상인들이 나를 큰 도시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미국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돈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루에 6~8시간 넘게 걸어서 냄새나는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예약한 방으로 가기위해 호텔을 당당하게 들어가는 대신에, 카운터에서 직원에게 허가를 구하고 들어가야 한다. 친절하 직원은 내 요청을 들어줬다. 생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깨끗한 화장실이 인생에 소소한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나는 다섯 개나 되는 소변기가 있는 대리석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 티끌 하나 없는 하얀 도자기 변기가 있는 화장실은 개인적인 공간을 지켜주는 큰 오크나무 문이 달려있었다. 거울은 반짝 반짝 빛이 났고, 세 개의 세면기에는 뜨거운 물이 팔팔 나왔다. 집에서나 이전에 다니던 대부분의 휴가지에서 라면 이런 일상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 늘 곁에 있던 것이 사라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익숙한 것의 가치를 잘 못 느끼기 마련이다. 순례길에서는 늘 그렇듯이, 아주 단순한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도시의 변두리로 가니,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는 큰 공원을 통과하게 되었다. 개울과 여러 개의 작은 폭포의 물줄기가 공원 전체를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신발을 벗어 발에 바람을 쏘이고, 바나나를 먹고 스트레칭을 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라그라노 시내의 번잡하고 북적거림을 씻어내는 기분 좋은 샤워 같았다. 재충전을 하고나서, 나는 멋진 풍경이 있는 쪽으로 향해 걸음을 옮겼다. 구불구불한 언덕과 작은 호수 그리고 우거진 포도밭을 지나갔다. 그 길에서 나는 상아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주쳤다.

인구 150여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 오늘 나의 마지막 종착지였다. 이곳 벤토사에 있는 산 사뚜르니노 알베르게는 내가 좋아하는 숙소 중 하나다. 8개가 넘지 않는 방에 42개의 침대가 있었다. 빨간색 타일로 된 바닥은 깨끗했고, 침대도 잘 정돈되어 있었다. 화강암으로 된 세면대는 티끌하나 없이 깨끗했다. 돈을 좀 내면 꽤나 고급스러운 세탁기를 쓸 수도 있었다. 당신의 옷이 세탁기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단순한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정말이지 멋진 광경이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일기를 쓸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 이 숙소의 안뜰은 정말 훌륭했고, 햇빛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이곳은 값이 싼 호스텔 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침대와 식사를 찾는 사람들이 선호할만한 곳이었다.

일기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돌려 보니 마시모와 그의 동행자인 어머니가 서있었다. 나중에는, 시내에 있는 바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려고 로비를 지나갈 때 피터가 의자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피터는 도착했을 때는 이 숙소가 다 차서 다음 마을까지 걸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저녁식사시간 즈음에, 나는 또 다른 순례자 메뉴를 먹기 위해서 추천받은 식당을 향해 천천히 오르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가던 중에, 나는 75세의 안젤로와 70살인 그의 아내 산드라와 만났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찾은 식당은 내가 좋아하는 식당 중 하나인데, 이 분위기 있는 식당은 벤치와 해먹 의자가 놓인 풀이 우거진 뜰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새들과 다람쥐들이 소소한 즐거움을 주었다.

안젤로와 산드라는, 그들이 쿠바에서 자랐고 10대 후반에 약혼을 했다고 말했다. 1960년대 초반 부유했던 양쪽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결정했다. 그 당시 이런 결정은 그들을 혁명의 적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이민을 떠나기 위한 서류작업이 안젤로는 3년이 걸렸으며, 산드라는 5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 기간 동안 정부는 그들이 소유한 모든 물건을 분류하고 재정적 자산을 전부 추적했다. 정부가 그들의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안젤로와 산드라는 그들이 가진 물건과 돈을 전부 처분해야만 했다. 그가 말하길, 만약 정부가 수저나 접시 하나라도 빠뜨렸었다면 떠날 날이 수년은 더 미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숨긴다거나 혹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966년, 안젤로는 수중에 단돈 20달러만을 들고 뉴욕시티에 도착했다. 그리고 3년 후, 산드라는 두벌의 옷만 들고 아틀란타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혼을 하여 조지아에서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한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둘은 함께 열심히 일을 했다. 은퇴를 하고나서도 그들의 삶에 대한 열정은 계속 이어졌다. 내가 안젤로에게 아이다호가 집이라고 말할 때, 그는 씩 웃으며 새를 사냥할 수 있는 여행지를 여러 곳 소개해줬다. 그와 산드라는 5년 동안 네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이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날 저녁, 나는 늘 하던 대로, 침대에 들기 전에 가이드북을 읽고 그날 찍은 사진들을 감상했다. 그날의 사진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언제나 날 미소 짓게 하며 그날 일어났던 멋진 순간들을 되새기게 했다.

이날 읽었던 가이드북의 글귀가 나를 웃게 만들었다. 거기에는 “걱정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쓰여 있었다.

일곱 번째 날

노래

어느 특별한 아침에, 나는 새로운 소리에 잠에서 깬다. 이 새로운 청각 영역을 파악하기 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잠을 좀 깨고 나서 들어보니, 그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였다. 알베르게 전체를 떠다니는 향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가능한 조용히, 나는 늘 하던 대로 부엌으로 가서 짐을 꾸렸다.

조용한 부엌에 있는 사람은 나 혼자였고, 나는 내 물건을 모두 식탁위에 흩어 놓고 짐을 싸고 있었다. 그때 프랑스에서 온 작은 순례자 단체와 함께 짐을 싸게 됐다. 그들은 뭔가가 거슬리는 눈치였다. 마침내 그들 중 하나가 식탁위에 있던 깨끗한 내 양말을 가리키더니 바닥으로 던졌다. 그들은 내가 음식을 먹는 식탁위에 옷가지를 둔 것에 대해 화가나있었다. 처음엔 나도 그들에게 화를 내며 맞서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니 그들 말이 맞는 것도 같았다.

이른 시간 이곳에서, 나는 순례길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웠다. 순례자들은 종종 알베르게의 식탁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는 한다. 글을 쓰거나, 간식을 먹거나 그리고 옷을 갠다거나. 나는 그동안 다른 순례자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식당에서 짐을 싸는 것이 배려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은 무례한 것이었다. 심지어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문화적인 관점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주는 가르침의 위력은 많이 과소평가되어왔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 이번이 바로 그런 순간들 중에 하나였다. 이번 경험은 나로 하여금 일상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었다.

예를 들자면, 내 어린 시절의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미래의 취미, 운동 더 나아가 흥미까지 영향을 주었다. 푸젯 사운드 대학을 선택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경험과 친구를 만나기 위한 시련이었다. 대학 졸업 후의 회사로서 마이크론 테크놀로

지를 선택한 것은 나로 하여금 50여개 주를 여행하게 했으며, 이른 퇴사를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1992년, 내가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잘못된 길로 내려간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흥미로워 보이는 집을 지나게 되었고, 우연히 그 집이 부동산에 나온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집의 이름을 술라라고 짓고는 30일 후에 이사를 왔다. 이것은 거의 2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이며, 나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다.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걷다가 문득 워킹스틱에서 “딸깍”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길을 나선지 20여분이 지났을 때였다. 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침에 향냄새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분위기에 취해서 스틱을 알베르에게 두고 왔으니 말이다. 나는 스틱 통에 넣은 채 알베르에게 계단에 놓고 온 친구가 생각났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나의 친구 스틱을 되찾으러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이런 작은 우회가 오늘하루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스틱을 되찾으러 가는 결정으로 인해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 또 누구를 만날 기회를 놓칠지. 종착지점은 다른 곳이 될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순례길에서 나의 일곱 번째 날이 시작되었다. 나는 육체적 정신적 짐을 남겨두고 왔다. 내 인생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스페인에서 산티아고를 걷는 동안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는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인생은 오직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가이드북에서 이 말을 잘 요약해 놓았다. “어제는 역사이며,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현재는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왜 현재라는 영어단어를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태양이 지평선을 뚫고 나올 때면 하늘은 계속해서 영롱한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된다. 푸른 초지 끝자락에는, 여러 산맥이 새로 떠오른 태양의 빛에 실루엣을 만들어낸다. 모든 곳에 아름다움이 가득했고, 나는 그 것들을 만끽했다.

나의 끊임없는 사진 찍기 욕구 때문에 나는 이 아름다운 일출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중에는 대략 37미터는 되어 보이는 나의 그림자 사진도 있다. 대부분의 순

레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나는 내 그림자만 보고도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마치 내 체력 레벨처럼, 그림자는 항상 이른 아침이 제일 크다.

7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큰 도시인 나헤라의 변두리 쪽에서 간혹 터져 나오는 폭발음을 들으며, 나는 홀로 걷고 있었다. 마을로 들어서자, 축제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다. 위장복을 입고서 큰 신발을 끌고 다니는 십대들이 길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일종의 모금행사를 하느라 돈을 걷고 다니면서 통행을 막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라떼 한잔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가졌다. 이날 아침은 특히 좀 쌀쌀했는데, 나는 화장실에서 내 지퍼가 안 잠겨있는 것을 알아채기 전까진 추운 줄도 몰랐다. 많은 순례자들이 어떤 일이든 다 도와줄 테지만, 나는 이번 건은 나 혼자 해결하기로 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나는 한 남자가 한쪽에는 샌들 다른 한쪽은 운동화를 신고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그 사람이 가진 워킹스틱과 빨간 배낭을 보고 누군지 알아챘다. 형사 친구 피터는 염증 때문에 운동화를 신을 수 없는 상태였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십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피터는 확실히 고통스러워 보였고, 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잠시 마지막 사진을 함께 찍고, 이메일 주소를 교환한 뒤, 포옹을 나눴다. 이것이 내가 피터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다. 후에, 나는 그가 정강이쪽의 염증 때문에 5일간 휴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오늘 38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걷는 긴 하루를 보냈다. 대부분 날들에는, 원전문제를 걱정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오늘은 오래 걸었지만, 머리는 맑은 날이었다.

어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일을 미리 예측하지 않았더니, 순례길은 나를 현재로 이끌어주었다. 나는 매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종종 찾아드는 웃음이 내 하루의 일부분이 되어갔다. 나는 꽤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나의 이 좋은 운이 얼마나 계속될지 생각하게 됐다.

이날 나의 마지막 종착지는 3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라농에 있는 이 호스텔은 성 세례 요한의 교회에 붙어있었다. 이전에 내가 묵었던 알베르게들과는 다르게, 이곳은 이 지역 카톨릭 교구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 시설

이었다.

내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분수 옆에 있는 깨끗한 뜰에 놓인 오래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물이 튀기는 소리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평화로운 느낌을 더해주고 있었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머리를 숙여 아치형태의 길을 지나야 했고, 돌계단을 기어올라야만 했다.

이층에는 열려진 창문 옆에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곳에다 등산화를 밤새 놓아둘 수 있었다. 몇 걸음 더 지나가면 등산 스틱을 놓아두는 보관고가 있다. 마지막 층은 내가 주로 활동할 장소였다. 여기에는 식당과 부엌, 샤워실과 화장실, 그리고 체크인 테이블이 있었다.

이날은 오래 걸은 하루였기에, 나는 교회 호스텔에 들어갈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작은 소파에 앉아 몸을 뉘여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지친 발을 풀어줄 마사지를 하려고 신발을 벗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 내 옆에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 여자가 그냥 순례자일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 숙소를 운영하는 네 명의 봉사자들 중 하나였다. 그녀가 속사포 같은 스페인어를 내뱉는 동안 내가 알아들은 것은 “리플렉스 마사지” 단어 뿐 이었다. 그녀의 말은 순식간의 환상처럼 빠르게 내 머리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내 여권을 가져갔고, 내 국적과 순례길의 출발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갔다. 내가 가격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구멍이 뚫린 나무상자를 가리켰는데 거기에는 스페인어로 기부금이라는 단어가 작은 노란색 글자로 쓰여 있었다. 내가 혼란스러워 하는걸 알아챘는지, 영국에서 온 나이가 지긋한 다른 봉사자가 내게 영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 특이한 장소의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그는 이 숙소에 있는 40개의 침대가 꽉 찼지만, 이곳에는 그 어떤 순례자도 절대 되돌려 보내지 말자는 규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늘, 1층에 있는 예비공간에서 잘 수 있게끔 매트를 제공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6시에 식당에 와서 저녁식사 준비를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전해 듣기로는, 전날 밤에 낸 기부금은 그날 저녁 식사비라고 한다. 또 다른 그룹의 순례자들은 7시에 모여서 8시에 있을 저녁식사를 준비하게 된다. 그는 나와 계단을 내려가 보조로 있는 예비공간을 열어주었다.

식사각형으로 된 커다란 방 앞쪽에는 제단이 있었고, 그 뒤에는 손으로 조각한 큰 벽화가 놓여있었다. 18개의 매트가 놓인 방이 좀 혼잡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곳에서 25명이 아주 편하게 잘 잤다. 매트들 사이의 간격은 15센치도 안되어 보였다.

나는 여기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한 가족을 만났다. 조셉과 토비는 7살인 마테오와 2살인 파스칼, 이 두 자녀와 함께 순례길을 걷고 있었다. 이 가족들 사이에 느껴지는 사랑은 놀라웠다. 엄마가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있으면, 아빠는 바닥에 가족들이 잘 곳을 마련했다. 마테오는 지나치게 예의바른 아이였으며, 아빠가 시키는 것에 투정 하나 없이 잘 따랐다.

다른 젊은 커플은 순례길에서 만난 연인이었다. 젊은 청년은 오하이오에서 왔으며, 여자 친구는 핀란드에서 왔다고 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어루만지며 서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질 않았다. 그 남자가 자기 핸드폰을 나에게 빌려줘서 미국에 전화를 몇 통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내 동생과 로베르타와 두 번째 통화였다. 나는 그에게 유로를 좀 주려고 했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했다.

남동생은 내 여행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하루하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 했다. 우리는 거의 5분정도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로베르타와 통화를 했을 때 나는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대서양의 거리보다 더 멀다고 느꼈다. 나는 그저 그녀가 오늘 하루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라고 믿고 싶었다. 작별인사를 나누고 통화를 끊은 후, 나는 오하이오와 핀란드에서 온 커플이 손을 잡고 방을 나서는 모습을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는 식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식탁 두 개 중 하나에 자리를 잡고 일기를 쓰기로 했다. 벽은 견고한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구석에는 멋진 난로가 있었다. 열린 창문 사이로 기분 좋은 바람과 불빛이 들어왔다. 나는 마침 런던에서 온 봉사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그를 비롯한 다른 봉사자들은 우리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더욱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친절히 맞이해주고, 잠자리를 준비해주며,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료품을 사서 식사를 만들어준다. 그동안 순례길에서 다른 봉사자들을 만나보았지만, 이곳 그라논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로 느낀 것은, 그 런던에서 왔다던 나이가 지긋한 봉사자가 토비가 그

녀의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눈치 챈 것이었다. 그는 마테오를 테이블로 데려가 적어도 두 시간 정도를 함께 카드게임을 하고 놀아주었다. 그의 셔츠에는 “당신은 아마 나를 몽상가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 예요.” 라는 비틀즈의 노래구절이 적혀있었다. 그는 마테오와 함께하는 매 순간순간을 정말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테오와 집중해서 놀아주었다. 나는 그가 마테오의 할아버지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봉사자와 소년의 모습을 보고 나는 나의 조부모가 생각이 났다. 나의 친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알콜 중독이셨으며, 내가 태어나던 날 돌아가셨다. 나는 친할머니와 꽤 사이가 좋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7년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나는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나의 외할아버지는 비범한 분이셨다. 그는 시카고의 가축우리에서 일을 하던 출신인데 혼자 힘으로 노스웨스턴 의대까지 가신분이다. 외할아버지는 가족 중에, 처음이자 단 한명 뿐인 의사가 되었다. 그는 늘 새로운 것들에 열려 계셨는데, 실제로 56세의 나이로 언덕에서 스키를 타셨다. 그 후 15년간, 외할아버지께서는 마테호른에서 스키를 타겠다는 열정을 점점 더 키워가려고 매년 스위스로 여행을 가셨다. 외할아버지는 정치적으로는 극우파이셨다. 일요일 저녁식사 시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외할아버지를 매우 화나게 하는 일이었으며, 집밖으로 쫓겨나려고 자초하는 것이었다. 외할머니는 대단한 분이셨으며, 나의 부모님이 휴식이 필요 할 때면 언제든지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주신 분이셨다.

나는 창문으로 바깥에 있는 뜰을 바라보다가, 분수 옆에 앉아있는 마시모와 엄마의 모습을 보고 금방 미소를 지었다. 나는 사람들 모습을 바라다보는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내 일기장에는 한글자도 적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글쓰기에 몰입하려던 찰나에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느껴졌다. 어제 호텔 체크인을 도와주었던 그녀는 내 발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마사지를 의미하는 손가락 움직임을 보였다. 그녀는 나를 난로 옆에 있는 의자로 이끌었다. 이 친절한 여인은 내 발을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을 마사지 해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이런 호의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의 보상도 다 마다하였다. 대신에 그녀는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중국의 명언인 “당신이

한 시간 동안 행복 하고 싶다면 낮잠을 자라. 일 년 동안 행복을 원한다면 유산을 물려받아라. 평생 행복 하고 싶다면 남을 도우며 살아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다.

내 평생 받아본 마사지 중에 최고로 기분 좋은 마사지를 받은 후, 나는 다시 일기쓰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일기를 쓴 뒤에, 나는 동네 술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곳을 발견해 내 몇 안 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교회로 돌아가니 8시가 되기 몇 분 전이었는데, 이미 한 무리의 사람들의 식사가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너무 배가고파서 음식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봉사자들이 우리들을 교회 앞쪽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키가 큰 스페인 봉사자가 “우리가 식사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네 빵집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빵집에서 우리가 단체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음식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러니 다 같이 행진하며 노래를 부릅시다.”라며 외쳤다. 그는 우리에게 기타 하나와 쓰레기통 뚜껑 여섯 개, 그리고 큰 쇠손가락들을 건넸다.

그것들을 들고서, 지구 방방곳곳에서 온 60여명이 되는 이방인들이 ‘온 세상이 주님 손안에 있네.’ 라는 찬송가를 합창하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일제히 회색벽돌이 깔린 도로를 행진하면서, 찬송가 노래에 맞춰 스푼으로 쓰레기통을 두드렸다.

우리가 빵집에 도착하자, 곧 오븐에서 음식이 나올 것 같다는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봉사자 한명이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손으로 사람들을 바깥쪽으로 몰면서 원형으로 서게 했다. 그는 가운데에 서서, “이 빵집이 좀 까다롭네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래를 불러야 빵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메리칸 아이돌’은 알겠지요,”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이제부터 ‘까미노 아이돌’이 되어봅시다. 당연히 우리 모두 연습은 좀 해야겠지요. 각자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습해봅시다.” “만약에 공연이 형편없으면, 음식을 안 줄 겁니다.” 그는 약간의 경고를 덧붙였다.

나를 포함한 미국인 4명은 뛰어난 연주가인 밥달런의 노래인 ‘Blowin’ in the

wind'를 연주했다. 한국에서 온 커플은 인기를 독차지 했으며, 브라질에서 온 팀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리스에서 온 여자 한명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눈물을 훔치게 했다.

11개국의 즉석 공연을 모두 듣고 나서, 봉사자들은 5개의 운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빵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받아오게 했다. 몇 분 뒤, 그들은 작은 쟁반에 디저트를 담고서 등에는形形色색의 날개를 달고, 커다란 선글라스와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들은 전리품을 들고서 식당으로 들어와 만찬을 즐겼다.

우리들은 두 개의 긴 테이블에 서로 바짝 붙어 앉았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봉사자 한명이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그라농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러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 식사기도 대신에 우리는 모두 테이블을 두드리며 쿤의 'We will rock you'를 연주했고, 봉사자는 이 노래를 스페인어로 랩을 하며 축복 기도를 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저렇게 했다.

우리는 첫 번째 코스 요리로 맛있는 믹스샐러드를 먹었는데, 야채의 양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병아리콩과 렌틸콩으로 만든 두 가지 스프를 먹었다. 세 번째 코스는 참치와 삶은 계란 요리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친절한 빵집에서 얻어온 맛있는 애플타르트로 마무리했다.

식사가 끝나고, 봉사자들은 우리들에게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느낀 바에 대해 소감을 말해보라고 했다. 각자 소감을 말하면, 봉사자가 대중적인 언어로 통역을 해 줬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 차례가 빨리 찾아왔다. 나는 자리에 서서 그들이 말한 대로 진심으로 느낀 바를 말했다.

“여행 초반에 저는 말 그대로 소름끼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매일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계속 이어갔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과 멋진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은 기분 좋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느낌을 알아간다는 것 또한 정말 멋진 일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일은 저에게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며 빵집으로 행진할 때부터 지금 이 완벽한 순간까지도 갑자기 일어난 감정들이 저를 계속해서 소름끼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침내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

다.”

나는 내 소감을 프랑스로 통역하는 것을 들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사람들이 보여준 미소를 보니, 내 메시지가 충분히 잘 전달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젊은 남성은 영화 ‘The way’를 보고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시작했으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했다. 다른 남성은 그가 추구하는 UN의 기능이 오늘밤 우리가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여성은 오랫동안 향수병에 시달렸는데,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 공간에 모든 가족이 모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처음에 나는 이 기념사가 너무 오래 걸려서 끝나기까지 한세월이 지나갈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소감을 듣고 나니, 나는 이제 남은 사람이 겨우 57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슬퍼졌다.

우리의 축제가 끝나자, 나는 차가운 방의 딱딱한 바닥위의 내 매트위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몇 명이 더 도착해서, 각자의 분양받은 매트 사이 공간은 6센치도 안되게 좁아졌다. 잠에 빠져들기 전에 나는 오늘 하루에 대한 회상에 잠겼다. 만약에 내 생의 마지막 하루가 지나간 오늘 하루였대도 이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덟 번째 날

음악과 등산스틱

나는 깜깜한 이른 새벽에 하루를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헤드랜턴을 이용해서 길을 나아갔다. 내 앞에 비치는 작은 불빛을 따라서 신비롭고 구부 구불한 길을 헤쳐 나갔다.

전날 밤의 경험이 나의 열려있던 마음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던 빙하가 녹아내려 바다로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나는 또 다른 세계로 녹아들어간 것이다. 힘들이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길을 걸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 보였으며, MP3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노래가 다 아름다웠다.

그라농 이전에도 순례길에서 음악은 내 하루의 일부분이었다. 매일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도 모르게 듣고 있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때문에 혹시라도 조용히 순례길을 걸으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가, 비욘세나 넬리 영의 노래를 소리 내 부르고 있는 48살의 대머리 미국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될 어느 순례자가 불쌍할 뿐이다. 때때로 내 등산스틱은 내 노래가 절정에 다다를 때면 가짜기타로 변해서 연주되기도 한다.

내 등산 스틱은 나에게 필수 부품이 되었다. 순례길에서 등산용품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길을 걷다가 발견한 나무 스틱, 일반적인 스틱, 그리고 전문 등산용 스틱. 나는 순례길의 처음부터 일반스틱을 사용해왔다.

내 팔과 손목을 이용해서 스틱을 한걸음 앞쪽에 짚고서는 네 발작 정도 더 걸은 뒤 다시 한 번 스틱을 짚는다. 이런 리듬으로 걷다보면, 마치 물위에서 노를 저어 나아가거나 설원 위를 가로지르는 크로스-컨트리 스키폴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언덕길을 오를 때 스틱을 이용하면, 상체에 힘을 더해줘서

오르막길을 오를 추진력을 보태준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이 스틱이 무릎을 지지하는데 꽤나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스틱은 그 자체로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스틱 끝의 금속으로 어디를 두드리더라도 명쾌한 큰 소리가 난다. 그 “딱딱”거리는 큰 소리는 순레길 위에서 또 다른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 등산 스틱에 대한 나의 애착은 점점 집착이 되어갔다. 나는 그것에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생각했다가, 이내 무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이 들자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DuranDuran의 Love VooDoo 노래를 듣다가 나는 나의 주저함과 싸워 이기고, 판단력이 흐려진 채 나의 스틱에게 “Duran” 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겨우 순레길 여덟 번째 날이다. 나는 순레길 위의 모든 것에 대해 강렬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 찍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미국을 떠난 이후로 6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었으며, 점점 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

이후,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서 “사진의 밤”을 열 예정이니, 다른 약속들을 다 취소하라며 동정어린 예고메일도 보냈다.

나는 휴스턴에서 온 해럴드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데브라를 만났다. 이들은 사이가 좋아 보이는 부녀지간 이였으며, 하루 종일 걸으며 서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서는 만족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해럴드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의 나이를 물어봤고, 그가 82세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60여일에 걸쳐서 순레길 800km를 완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것이 이날 나의 첫 번째 소름끼치는 순간이었다.

나는 해바라기 꽃이 만개한 커다란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무언가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들판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해바라기 씨를 골라 빼내서 그림을 그려서 일명 “해바라기 아트”를 만들어 놓은 것 이었다. 이 특별한 꽃은 커다란 미소 짓는 얼굴로 변하게 되었다. 이 광경이 꽤나 새로워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발도 좀 쉬고 풍경을 즐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묵은 호스텔은 비야마요르 마을에 있는 매우 좋은 숙소였다. 커다란 뜰에는 공작새가 돌아다니고 푸른 잔디가 와 꽃으로 꾸며진 정원이 있었다.

오늘의 이 메일을 보낸 뒤에, 나는 긴 의자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 옆 의자에 털썩 앉아서 기류를 타고 날아다니는 독수리 떼를 함께 쳐다보았다. 우리는 거의 한 시간은 독수리 떼를 쳐다본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탐은 아일랜드에서 왔다. 나는 저녁에 탐과 그의 친구 지미와 함께 식사를 했다.

지미는 원래 아일랜드 출신이긴 하지만 남아프리카에서 지난 10년간 카톨릭 성직자로 지냈다고 했다. 그리고 1년의 안식년을 갖게 되어 순례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날 저녁은 아일랜드와 남아프리카에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 두 남자는 며칠 전 순례길에서 만나 길을 함께 걷고 쉬게 되었다고 했다. 이 두 남자는 내 여행의 나머지 기간에도 계속 내 주위 여기저기 나타났었다. 여행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나는 지미와 탐을 우리가 알기 전에 찍었던 두 장의 사진 속에서 발견했다. 그 사진들은 비야마요르데 몬하르딘과 그라농에서 가졌던 교회단체 식사에서 찍은 것들이었다.

그 단체는 내가 순례길이 가지고 있는 카톨릭과 카톨릭 순례자들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었다. 순례자들은 이 길을 수세기 동안 걸어왔던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정화 그리고 속죄에 대한 모든 것에 정신적으로 연결되어있다. 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저녁집회는 대부분 7시나 8시쯤 시작하며 30분 정도 진행된다.

길 위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기독교 교회들과 대성당은 신념과 믿음을 지닌 모든 이들을 끌어들인다. 교회의 외관은 열정과 복잡한 솜씨로 만들어진 예술품 같다. 종교적이든 아니든, 교회에 한 발짝 들어가면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다. 마을 안팎으로 잘 들리는 교회의 종소리는 순례길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음악이다.

아홉 번째 날

부르고스와 물집

아침 일찍, 나는 방에서 침대 주위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다섯 명의 60대 중반의 여자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매우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중 하나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나에게 물어봤다.

“우리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녀는 굉장히 침통해하며 말을 걸었다. “여자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 졌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희를 위해서 남자 화장실에서 휴지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는 그들은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어렵지 않은 요구였기에, 나는 도와 주겠다하고 휴지를 갖다 주었다. 이 중년 여성들은 휴지를 건네 받고나서 더 걱정하고 나에게 장난을 쳤다.

“고마워요, 우리가 이제부터 당신을 성 뒷간휴지라고 세레명을 붙여줄게요.”라고 말하고 웃음바다가 되었다.

여왕에게 새로운 성유를 받고서, 나는 39km의 대장정을 어둠속에서 홀로 시작했다.

이날 내가 처음 만난 친구는 그리스에서 온 유지나였다. 나는 그라농에서 그녀의 엄청난 독주를 들었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함께 걸으면서, 나는 그녀의 나라가 천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 두 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23살의 나이에 할일이 많았다. 그녀는 회계전공으로 지역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재미삼아 여름에는 안전요원으로, 겨울에는 스키강사로 일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순례길을 걸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에게는 하루에 숙소와 음식을 모두 포함해서 30~50달러를 쓰는 것이 저렴한 여행이었지만, 모든 것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법이다. 우리가 첫 번째 작은 마을을 지나갈 때, 나는 그녀에게 커피와 토스트를 사주고 싶다고 제

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친절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가 걷는 속도는 나보다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내가 아침식사를 하는동안 그녀는 먼저 출발했다.

유지나는 그녀 인생의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이 순례길을 걷고 있다고 했다. 나는 길 위에서 그녀 나이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면 늘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내가 만약에 이 도전을 20대에 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했다.

이런 곳에서 맑은 정신을 갖게 되었다면, 좀 더 빨리 알콜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두려웠던 인간관계가 다른 때에도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었을까? 과연 똑같은 직업을 선택했을까? 과연 나는 마음을 비우고 잡생각 없이 맑은 정신으로 800km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

나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만약 내 나이와 같은 48세쯤에 이 길을 걸었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지도 궁금했다.

나중에 나는 산티아고까지 518km 남았다는 동쪽으로 표시된 표지판을 지나갔다. 이 말은 즉, 내가 9일 만에 산티아고 순례길의 3분의 1을 걸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내가 태어난 이후로 살아온 날들의 숫자는 17,740이었다. 만약 내가 운이 좋아 80세까지 살수 있다면 대략 11,000여 날이 남은 것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내 인생의 초반을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고, 대학 이후로는 취업과 사회생활을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왔다. 그리고 36살의 이른 은퇴는 내 인생을 중요한 갈림길 위에 놓이게 한 신중한 결정이었다. 이제 나는 이 길 위에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 나는 과연 로베르타와 결혼을 할까 아니면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될까? 돈을 벌기위해서 은퇴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될까?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생각들이 순례길을 걸을 때마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왔다.

점심을 먹으려고 들른 아헤스에서, 나는 포르피야 데 파타타스 보까디오와 사과 그리고 콘라체 커피를 먹었다. 내리쬐는 햇살 아래에서 나는 마치 왕이 된 것만

같았다. 나는 십여 개의 선명한 빨간 의자가 놓여있는 하얀색 야외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서 혼자서 이 공간을 누렸다.

부르고스로 가는 여정의 3분의 2쯤 걸었을 때, 나는 늘 가지는 휴식을 취하러 잠시 멈춰서 발을 좀 살펴보았다.

순례길에서는 발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발 문제가 생기면 온 신경을 집중하게 하고, 심해지면 순례자들에게는 비극적인 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여정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심지어 이번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파타고니아 부츠와 모레노 올 등산양말을 선택하는 등, 주로 발쪽으로 집중해서 준비를 했었다. 길을 걸으면서도 꾸준한 발 관리를 해야 한다. 매일 저녁, 나는 내 발을 씻고 양말을 빨아서 내 발에 대한 것들을 새로운 컨디션으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능하면 나는 족욕을 하려고 한다. 순례길에서는 몇 시간마다 멈춰 서서 신발을 벗고 발을 쉬게 하고 있다. 나는 나만의 스트레칭 방법도 고안했는데, 손가락 네 개를 모두 발가락 사이사이에 넣고서 손바닥을 앞발바닥의 붓긋한 부분에 대고서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비틀면서 발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다.

산티아고 순례자들은 순례길을 시작한 첫날 10분도 안되어, 모든 허영심을 버리고 얼마못가 자신의 맨발을 훈장이라도 되는 양 꺼내 보이게 된다. 나에게도 발바닥, 뒤꿈치, 발가락 사이, 발등까지 다 물집으로 뒤 덮혀 있는 모습에 대한 왜곡된 기억이 있다. 이 물집은 신발 속 발 어디에서라도 터질 수 있는 순례길 위의 종양과도 같다. 어떤 물집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서 깨끗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염증이 생겨서 혐오스러운 상태인 것도 있다. 대부분의 물집은 밴드나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놓는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보기에 불안해 보이고, 상태가 더 악화되기도 한다. 밴드나 천을 붙여놓으면 물집과 계속해서 접촉하게 돼서 발을 절뚝거리게 될 수도 있다. 물집 때문에 아프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어쩔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해당되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수 십 년 동안 하루에 두 시간씩 꼬박꼬박 운동을 해왔으니 체력도 충분했다. 나는 체육관에 가면 언제나 유산소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언제나 운동하는 남자였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유럽까지 자전거로

2400km를 다녀온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순례길에서 거의 334,370의 걸음을 걷는 동안 물질한번 생기지 않았다. 마치 슈퍼맨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기분은 딱 부르코스로 향하던 아홉 번째 날까지만 이었다.

나는 물질이 생겼다.

그리고 물질은 아팠다.

육체적인 고통은 좀 거슬리고 말았지만, 웃기게도 정신적인 고통에 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나한테 물질이 생길수가 있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질이 더 퍼져서 내 발을 다 뒤덮으면 어찌지?”

“그러면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지도 모르고 하루 목표치를 반으로 줄여야 할지도 몰라.”

“내가 산티아고를 다 끝낼 수나 있을까?”

“이건 정말 불공평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파타고니아를 고소해야 할까?”

“도대체 뭐에 홀려서 오늘 이렇게 더 많이 걸었을까?”

나는 좋았던 일을 생각해보려고 애썼지만, 다들 어디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도저히 좋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물질의 실제 사이즈를 제대로 살펴보기 전까지, 나는 이런 생각을 거의 90분 동안 한 것 같다.

그 것은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의 물질이었으며, 오른쪽 발꿈치에 조그맣게 솟아나 있는 정도였다. 나는 이제 어떻게 처치해야할지 알고 있었다. 나는 작은 응급키트를 준비해 왔다. 바늘과 실로 물질에서 물을 빼냈다. 그리고 진물이 빠지라고 실을 그대로 물질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상처부위에 붙이면 인공 피부 역할을 해주는 콤피드라는 특수 밴드로 물질을 감쌌다. 이 밴드는 정말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힘들다. 이 밴드를 상처부위에 붙이고 나서 저절로 떨어지기까지 대략 3일 정도는 그대로 붙여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매일 교체하는 실수를 하고는 한다. 그렇게 성급하게 밴드를 떼어내는 것은, 피부까지 같이 뜯어질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내가 이 순례길의 통찰력이라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걸렸다. 내가 “물질의 세계”에 발을 들인 순간, 나는 이것이 단순히 발꿈치의 통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슈퍼맨은 땅에 내려와 자신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레슬러 선수 커트처럼 체격이 좋은 나에게도 인생에서 물질과 같은 존재는 끊임없이 닳았다. 나는 거의 50세였으며, 매 걸음걸음마다 늙어가고 있었다. 나의 최고의 습관인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던 것으로도 모든 질병이나 부상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또 다른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데, 내가 물질을 발견 하고난 직후에 순례길에서 만났던 어느 커플 덕분에 이제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서 온 마틴은 돈 한 푼 없이 탁발승처럼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독일에서부터 이미 순례길을 시작하여 3달 동안 걸어왔다고 했다. 순례길 위에서 새로 만난 연인 김벌리는 내가 사는 이웃 주인 유태에서 왔다. 마틴은 직접 만든 십자가를 팔면서 돈을 모았고, 매일 밤 야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마틴은 특이한 등산스틱을 가지고 다녔다. 그가 직접 만든 이 걸음 보조기구에 그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받은 글귀나 기념품들로 뒤덮여 있었다. 기다란 나무 막대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적혀있었고, 그 위로 리본과 비즈가 걸려있었다. 우리가 함께 걷는 동안 나는 물질으로 아프던 것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자마자, 다시 발꿈치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로서 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주머니에 돈을 가득 넣고서 어디하나 아픈데도 없이 좋은 친구와 가족들을 가지고서 일생일대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9일 동안 집중해서 걸어보니, 그동안 내 인생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하찮은 물질같이 별거 아닌 것들이었다.

나는 순례길에 있는 네 개의 큰 도시 중에 세 번째 도시인 부르고로 향하는 중이었다. 부르고는 이전의 두 도시보다 좀 더 큰 대도시 같아보였다. 나는 전부터

아홉 번은 호스텔에서 자고 열 번째 밤에는 기념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묵으며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지려고 계획 했었다. 나는 스페인이 불황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호텔 방 하나를 잡기위해서 나는 거의 2시간동안 15곳의 호텔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다.

내가 길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부르고의 대성당 주위를 배회했다. 복잡하고 섬세한 고딕 구조물들을 만드는데 30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교회 주변의 모든 곳이 사람들로 가득해 떠들썩한 활기를 띠고 있었지만, 광장은 거의 혼란 그 자체였다. 내가 광장에 서서 구조물을 감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돌아보니 3일 째날 만났던 순례길 베테랑인 토니와 동행자 아미르가 있었다. 그들은 커다란 와인 잔에 와인을 마시면서 주위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내가 이 도시에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게 있다고 말했던가?

이 알미란테 보니파즈 호텔의 3층에 서있기까지, 나는 12시간이 넘게 걸어 녹초가 되어있었다. 그리고 내 개인 방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을 때, 안에는 멋진 침대와 커다란 화장실 그리고 옷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신이 나서 나는 옷을 빛나는 행거에 걸어두었다. 행거가 딱히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있으니 걸어봤다! 반짝거리는 화장실은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보였다. 화장실 변기도 깨끗했으며, 심지어 보험증서도 붙어있었다. 마실 물을 유리잔에 따라 마실 수도 있었고, 소독된 컵 여분도 준비되어 있었다.

집을 풀고 나서, 나는 내 짐을 정리하고 빨래를 한 뒤, 정성껏 수염과 머리를 면도했다. 나는 세면기 앞에 철제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편안한 쿠션을 깔고 앉았다. 뜨거운 물이 끊임없이 나왔고, 내가 볼일을 끝내기를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이후로 집에서 늘 하던 일상이었다.

완벽히 경찰관같이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난후, 나는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뜨거운 물을 욕조에 가득 채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목욕용품을 사용해서 온 몸 구석 구석을 씻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커다란 몸에 거품을 뒤집어쓰고 욕조에 몸을 담구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발을 문질러 닦기도 하고 욕조 테두리를 완벽한 마사지 기구삼아 마사지하기도 했다. 나는 신성한 의식을 마치고나니 그동안 고생

한 내 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법원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욕조에 물을 뺀 뒤, 나는 몸을 등글게 말고 앉아서 수압이 센 샤워기에 물을 틀었다. 나는 수건으로 내 몸 구석구석 닦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는 목욕이 마치 섹스처럼, 다시 한 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저녁 8시 무렵, 고급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몇 군데 관광을 할 생각하며 호텔을 나섰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나는 도미노 피자에서 혼자 앉아 게걸스럽게 콤보피자를 먹어대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동네 가게에서 디저트로 하겐다즈 카라멜 크리스피 샌드위치를 사서 먹었다. 9시 반 무렵에 나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나만의 애정생활을 즐겼다. 이날은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하룻밤 중 하나일 것이다.

열 번째 날

짐

이런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잠을 깨는 것이 나에게서는 어색한 일이었다. 내가 혼자 호텔방에서 있으며, 8시면 떠나야하는 알베르게처럼 일찍 나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나의 하고 싶은 일 목록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따뜻한 물로 오랫동안 샤워하는 것이었다. 호텔 숙소 가격에는 아침식사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9시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대략 20여개의 테이블 중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소시지, 와플, 산처럼 쌓여있는 감자튀김이 은색 뷔페 트레이에 담겨 길게 줄지어 놓여있었으며, 트레이 밑에 놓인 고체연료의 파란 불꽃이 음식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여섯 종류의 주스가 유리병에 담겨 얼음위에 놓여 있었다. 과일은 그릇이 넘치도록 담겨있었다. 네 가지 종류의 시리얼이 커다란 시리얼통에 담겨있었고, 병에 담긴 따뜻한 오트밀에서는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디저트는 참지 못하는 편인데, 이번 식사는 전부 이 디저트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90분이 넘는 휴식시간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일기를 썼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내 인생의 식사를 마치고난 후,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그날의 계획을 짰다. 나는 맛있는 음식도 충분히 먹고 정말 잘 쉬었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휴식의 날'을 만약 다치고 아프거나 혹은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회복할 필요가 있는 날을 위해서 우선 저장해두기로 결정했다.

나는 내가 2012년 9월 22일 알미란테 호텔 305호실에서 느낀 커다란 행복을 부디 다른 사람들도 느껴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침 늦게 호텔을 나서서 그런지 길에서 순례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대성당을 지날 때 쯤, 나는 나무 벤치에 앉아서 풍경을 즐기는 어느 미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의 순례길 여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고딕양식의 교회를 배경으로 내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다.

“저는 이제 막 가족들과 함께 1년 동안 여기에서 지내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라며 그는 말했다. “1주일 전에 플로리다에서 여기로 도착했어요. 저희에겐 어린 아이가 둘 있는데, 그 애들이 다른 문화를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일상을 깨부수고자하는 이 가족의 의지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아마도 우리는 같은 길 위에 서있는 것 같네요.” 나는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 내 사진을 찍었듯이, 내가 그의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보자 그는 왜 찍으려고 하는지 물어봤다. “왜냐면 이제 당신도 내 순례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죠.”라고 나는 설명했다.

“부엔 까미노,” 우리가 헤어질 때, 그는 이렇게 인사했다.

“부엔 까미노,” 라고 나도 인사해주었다.

이것은 아주 잠깐의 스친 인연이 뇌리에 깊게 박힌 수많은 경험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 보았던 부르고스의 교회 외관의 또 다른 모습을 뇌리에 새겨놓았다. 스페인 마을에서는 교회가 가장 큰 건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곳의 종탑은 황새가 둥지를 틀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 둥지는 지름 120cm~180cm, 깊이 90cm~150cm 정도로 매우 크고 무게도 230kg정도까지 나간다. 이 둥지가 순례길 위의 내 침대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황새는 좀 느슨한 체제의 균락을 이루기 때문에, 각각의 종탑에 네 개 내지 여섯 개 정도의 둥지를 틀어 균락을 이루고 살아간다. 내가 순례길 위에서 봤던 수 백 개의 황새 둥지 중에서 부르고스의 것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내가 황새를 마을 주민과 함께 봤기 때문이다. 기다란 빨간 다리로 자기 영역에 곳곳이 서있던 황새는 정말 굉장했다.

황새의 둥지는 나에게 순례길 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다. 수 백 년이 넘는 세월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영역을 순례자들의 하룻밤 ‘둥지’를 위해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거처를 내어준 순례자들은, 마치 이 길을 걸으며 스스로 새로운 삶을 부화시키기를 꿈꾸는, 일종의 새의 알 같은 존재인 것이다.

내가 황새를 목격한 것은 순례길에서 겪은 여러 행운 중에 하나였다. 처음부터

모든 일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나는 내 인생에 주어지는 행운을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여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큰일이 아닐 것이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마음속의 믿음도 갖게 되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벌어지는 일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모든 것들이 더 완벽하고 만족스럽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내가 정말로 걱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

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통과하여 부르고스를 빠져나왔다. 그때, 나는 내 앞에서 짐을 실은 당나귀와 나란히 걷고 있는 순례자 두 명을 보고 깜짝 놀랐다. 10킬로그램의 배낭을 짊어지고 걷고 있던 내 모습과 극명히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내 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로 심리전을 펼쳤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나는 가방의 무게를 몸무게의 10~15%(물을 제외하고)로 맞추라는 권장사항을 지키려고 신중하게 짐을 싸왔다. 그리고 나서도 여행 초기에 며칠 동안, 책이나 실크침낭, 공기로 부풀릴 수 있는 메모리폼 베게 같은 물건들을 가방에서 뺐었다. 초반에 묵었던 알베르케에는 언제나 물건들로 가득한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위로는 “필요한 것은 가져가시고, 필요 없는 것은 놓고 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배낭속의 물건을 살펴보고 이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다. 나는 진심으로 일기를 쓰길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기억을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을까? 내 운동화가 필요한 것은 확실한데, 과연 양말이 세벌이나 필요할까? 만약에 누가 내 카메라를 훔쳐간다면 내 여행도 끝나게 될 것인가? 손톱깎이는 꼭 필요한 것일까? 이 순례여행의 여러 가지 자유로운 모습 중 한 가지도 바로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미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다니지만, 여전히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들은, 앞으로 내 인생에 있을 더 큰 여정의 행복을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심오한 질문을 던져주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의 가방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이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친구와의 시간, 혹은 신체적인 강인함이나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인생

에서 정서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감정의 가방에는 일이나 사람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닐까? 그 가방 속에서 치워야 할 것들은 과연 없을까?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더 큰 질문이 떠올랐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랜 시간을 들여 생각해보니, 무언가에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상상 속에서 인생의 배낭의 물건을 빼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다. 나는 내가 이 쓸모 없는 짐 가방의 끈질을 깨고 막 태어난 황새 새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제 순례길의 전환점에 들어섰다. 순례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몸에 집중 하게 되는 여정의 3분의 1을 완벽히 끝마쳤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집중 하게 된다는 3분의 2 구간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3분의 1의 기간 동안 나의 몸은 순례길 여정에 적응을 했지만, 내 발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길고도 눈부셨던 9일간의 여정동안, 나의 발은 계속해서 스페인을 횡단하겠다고 한 내 결정에 불만이라도 있다는 듯이 불평을 쏟아냈다.

당신이 원자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테러리스트 단체에게 붙잡혀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우두머리가 당신을 죽이거나 물고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발바닥 때리기로 고문을 하려고 한다. 당신의 발을 고문대에 고정시키고 발바닥을 보이게 한 다음에, 작은 방망이를 가져와서 당신의 발바닥 구석구석을 때리기 시작한다. 그 강도가 뼈를 부러트릴 정도는 아니지만, 9시간정도를 맞고 나면 충분히 테러리스트들의 말을 잘 듣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발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이고까지 걸어가야 한다. 견딜 만은 하겠지만, 당신의 발은 주기적으로 불평을 반복해달 것이다. 감형을 고려해 달라며, 좀 쉬면서 마사지를 받게 해달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신체적으로 힘든 날은, 프랑스에서 스페인을 넘어가던 피레네 산맥을 등산하던 때였다. 피레네 산을 지나고 나서는, 언덕이나 평지를 걷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첫날 올랐던 산의 고도가 1,390미터였는데, 나머지 9일간 올랐던 산의 높이는 다 합해도 고작 3,550미터였다.

10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어느새 “메세타 고원”이라는 정신적 도전을 하는

곳이라 알려진 구간에 들어서있었다. 많은 순례길 베테랑들은 이곳이 ‘맨 오브 라만차’, 즉 돈키호테의 구간이며,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구간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산맥은 스페인의 고원지대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어떤 산맥은 고원지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곳도 있었다. 나머지 200km 구간은 평지를 걸었다. 밀, 귀리, 보리로 이루어진 끝없이 펼쳐진 곡창지대가 길을 에워싸고 있었다. 나는 황금빛 물결의 들판이 펼쳐지던 이 구간을 마음속에 아로새겼다.

몇 시간을 혼자 걸었더니 커피가 마시고 싶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수도승 동지인 마틴과 김벌리가 바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우리는 단체로 포옹을 하고 전날 있었던 추억담을 나누었다. 나는 그들이 기부금을 조금밖에 모으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들어가서 초리조 보카딜로와 카페 콘라체 3인분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약간 거절 의사를 보이더니 이내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었다.

친구들과의 늦은 점심을 끝나치고 나서, 나는 다시 혼자 걷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구 밀려들어왔다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의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는 동안에 몇몇 생각들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이것을 “생각 비우기”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좋은 부분이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세요?” 혹은 “그게 그렇게 오래 생각할만한 일인가요?”라며 물어 보곤 했다. 하지만 진정한 명상 안에서, 어떠한 잣대나 집중 없이 생각을 자유롭게 오고가게 하는 사이에 진정한 통찰력이 생긴다. 그때 바로 내 안에서 물음과 대답이 생겨나는 때이다.

평지에서 걸던 첫날의 여정의 끝을 향해가던 무렵, 파란 하늘이 회색빛으로 흐려지더니, 바람이 웅웅대며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그때는 나는 이런 날이 5일 동안 지속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모자가 턱밑에 끈이 달린 것이 아니었다면, 이 모자는 진작 도로시의 노란 길로 날아갔을 것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나는 이런 날씨는 결코 고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저 이 바람을 받아들이고 거센 바람이 부는 한 주를 최고의 날로 만들기로 했다.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은 시시각각 구름의 모양을 바꾸면서, 아주 독특한 한편의 영화 같은 하늘을 보여주었다.

그나저나, 내가 듀란(워킹스틱)에 너무 의존하는 바람에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마치 영화 캐스트어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일손 공을 대하듯이, 내 워킹스틱에 점점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 내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계속된 동지애는 점점 더 깊은 우정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내 워킹스틱은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확실히 나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다.

나는 거의 3시쯤, 오르니요스 델 까미노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3시 1분부터 몇 시간 동안 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작은 개울을 만들었다가 이내 웅덩이로 만들어내는 그런 비였다. 도저히 걸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다.

마을 전체의 100여개의 침대가 모두 자리가 찼다. 알베르게 문에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5시 이후에 다시 오세요.”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있었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는 하룻밤 묵을 장소를 찾길 바라는 한 무리의 순례자들과 함께 기다렸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호스텔의 부역으로 모여들었다. 노아의 방주처럼, 미리 도착한 사람들보다 새로 온 사람들에게서 더 축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마치 그의 방수배낭에 물이라도 담고 다니는 것처럼 온 바닥에 물을 똑똑 흘리고 있었다. 거의 5시 반쯤 됐을 때, 숙소의 자원봉사자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다. 약 30평정도 되는 커다란 체육관에 여기 있는 모든 순례자들을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사람씩 등록을 하고나서 이불과 베개를 받았다. 커다란 방의 문을 열어보니, 서른 개의 간이침대가 녹색 콘크리트 바닥의 가장자리에 줄지어 놓여있었다. 매트리스는 낡았지만 편안했다. 수 천 개의 빗방울이 천장에 쏟아지는 소리가 웅덩이처럼 방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마치 의식적인 절차라도 행하듯이 짐을 풀고,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을 준비를 했다.

열한 번째 날

기념일

나의 열한 번째 걷기는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작됐다. 전날 밤의 비는 차가운 공기 속에 촉촉한 기운을 남기고 사라졌다. 첫걸음을 내딛으며 하늘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암스테르담에서 온 산드라와 함께 걸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와 남자친구 사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산드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알코올 중독의 기미가 있었고 신체적 학대 때문에 치료를 받았으며, 바람을 피우기까지 했다. 그녀가 자신의 이런 관계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스페인에서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내려왔다고 말할 때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학대치료에 바람까지? 내가 봤을 때 답은 확실했다. 하지만 나는 내 판단은 뒤로하고, 산드라가 답답한 기분을 모두 풀 수 있도록 그녀의 말을 계속 들어주었다. 그녀는 이미 이곳에 오기 전부터 정답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을 굳히기 위해서 확고함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녀의 남자친구와의 문제에 대해서 듣다보니, 나는 나와 로베르타 사이의 불확실한 관계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나도 똑같은 것은 아닐까?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저 확신을 갖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거리를 두려고 온 것은 아닐까?

순례길을 걸으면서 나는 산드라와 함께 음식과 커피를 구할 수 있는 마을을 찾았다. 보통은 마을 가운데에 교회가 있어서 발견하기 쉬웠다. 하지만 평지인 메세타 고원에서, 마을들은 평지를 따라 약간 저지대에 형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역시나 등지로 뒤덮인 교회 종탑이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는 조금도 진전이 없어보였다. 마침내 마을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숨겨진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나서, 나는 카스트로헤리스로 불리는 도시로 향하는 나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산드라와 헤어졌다. 도시 위로 보이는 산등성이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허물어져가는 구조물이 나타났다. 맨 처음 서고트족이 지었다는 이 요새 성은 나중에 로마인과 무어인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차례대로 점령당했다. 이 성은 수많은 전쟁을 목격했을 것이며, 10세기에 기독교인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나는 적군으로부터 약탈당하고 정복당했던 장소가 정신적 수양과 국제적인 사교의 장으로 탈바꿈한 길을 걷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이날 여정의 후반부를 음악을 들으며 보냈다. 이것은 단지 음악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바람으로부터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하루에 한 두시간정도, 노래가 필요할 때면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곤 하는데, 보통은 적절한 타이밍일 때가 많다. 여행을 하는 내내, 그날 첫 번째로 듣는 노래는 항상 그 순간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특정 노래를 찾으려 했던 적은 없었고, 그냥 그날 내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몇 곡 넘겨서 듣고는 했다.

종종 나는 같은 노래를 세 네 번 순서대로 반복해서 듣기도 했다. 맑은 정신으로 의식을 집중해서 듣다보면, 생생한 음을 들을 수 있고 가사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날 내가 가장 좋아했던 가사는 U2의 Walk On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당신이 짊어지고 가는 모든 짐은 두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라는 구절이었다.

한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나는 내 인생에 남겨둔 것들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안정된 수입과 술, 의존적인 성격과 물질만능주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단순함과 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삶의 방식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날 나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테로 데 라베라 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었다. 알베르계에는 6유로와 10유로 중에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기운을 내서 배정받은 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방 안에 5개의 침대가 놓여있었는데, 만세.. 침대가 없이 까는 이불과 덮는 이불만 바닥에 깔려있고 공용 화장실이 있었다.

잠깐 동안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행복이었다. 나의 룸메이

트들은 모두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이었으며, 우리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은 보디랭귀지뿐이었다. 나는 밖에 있는 야외 싱크대에서 빨래를 하고 빨랫줄에 옷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보통은 옷이 다음날까지 덜 마를까봐 걱정하는데, 이날은 옷이 달나라까지 날아 가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이날 바람 때문에, 빨래가 기록적으로 빨리 말랐다.

마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나는 독일에서 온 한 여자를 만났다. 순례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겪은 역경과 즐거웠던 순간을 공유하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난이나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길을 걸으며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기에는 무게가 무겁거나 크기가 큰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산티아고에 도착해서 신용카드 실적을 쌓을 날만 꿈꾸고 있었다. 내 생각에 그녀는 약간 별났는데, 보통 순례자들은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해서,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여행을 하거나, 나중에 각자의 생활에 돌아가서도 물건을 줄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녀와의 만남은, 나에게 남을 판단하는 것을 자제하는 또 하나의 도전과제가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그만둔다는 것은 평생 동안 노력해야 할 어려운 일이다. 순례길은 내가 원치 않는 이 성격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알베르케에서 내가 단체로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계속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꿀잠을 잘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이 있다면, 점심식사에서 많은 친구를 사귄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내 스스로 가진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특히나 나와 로베르타 사이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오늘은 24일이었다. 우리가 엄청난 첫 키스를 나눈 뒤 4년이 지난 날 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매달 24일을 키스를 나눈 날로 기념해왔다. 우리는 서로 축하카드와, 꽃을 서로 교환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가게에 가서 초콜릿으로 덮인 체리 캐러멜을 먹고 나서 장난스런 글과 시시덕거리는 메일을 서로 보내고 로맨틱한 식당에서 섹시한 저녁식사를 먹은 뒤 열정적인 밤을 보냈다. 여행이나 크게 싸움을 할 때 몇 번 빼고는, 거의 매달 24일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

하여 특별한 하루로 보냈었다.

이번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는 로베르타에게 카드 한 장을 주고 24일이 될 때까지는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하고 왔었다. 그 카드에 나는 우리가 서로 집중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나의 바램을 적어놓았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위해서 44년을 기다려왔고, 여전히 나에게 그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바에서, 나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에 동전 몇 개를 딸그랑 넣었다. 그리고 로베르타에게서 새로 온 이메일을 확인하고 가슴이 설렘했다. 그리고 그녀가 쓴 한 문장이 나에게 희망과 의구심을 동시에 주었다. “우리의 기념일을 축하해,” “사랑해.” 이 글을 읽는 것은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나는 너무 짧은 그녀의 문장에 실망했다. 그건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척 하면서 내가 쓴 카드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서있다고 느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떨어져 있고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일상과 그녀의 일상, 그리고 우리 둘의 삶을 공유하기를 바랐다.

열두 번째 날

꽃

나는 조용하게 잠자리에서 미끄러져 나와 어둠속에서 순례여정을 시작했다. 파랑, 주황, 노랑, 빨강의 색이 완벽하게 섞인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수 백 개의 풍차가 끝없이 펼쳐진 평야의 수평선 끝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대략 6km를 걷고 나서, 나는 전날 밤에 함께 저녁을 먹었던 라이어를 만났다. 우리는 둘 다 약간 배가 고파서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는 좋은 알베르게를 찾았다. 우리가 문을 통해 들어가서 안뜰로 갈 때, 나는 이 알베르게가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커다란 금속 동상 아래에 주황색의 란타나 식물과 파란색 과꽃이 피어있었고, 티 없이 깨끗한 흙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우리가 대문을 통해서 걸어 들어가자, 에두아르두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우리를 안내했다. 그의 검은색 비니모자에 드레드(레게머리) 스타일의 머리카락이 꾸역꾸역 넣어져 있었다. 그는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했고, 우리가 아침식사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식간에, 따뜻하고 신선한 커피가 가득담긴 주전자와, 한 무더기의 토스트, 잼, 버터, 커다란 잔 두 개에 신선하게 짜낸 오렌지 주스를 담아 내왔다.

우리는 따뜻한 온기를 흡수하고 몸을 살찌우면서, 좋은 친구와 함께 더할 나위 없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라이어는 갓 은퇴를 했다고 했다. 그는 일을 하지 않는 삶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이번 여행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날 어떤 교회를 찾아갈 생각에 매우 들떠있었다. 그건 그가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매우 오래되고 소박한 교회에 대한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 교회는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그곳을 지나쳐갔고, 덕분에 그는 혼자서 조용히 한 두 시간 동안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우리가 알베르게를 나가는 길에, 라이어는 나와 친절했던 식당 주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었다.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마을에 대한 기억은 그리 선명하지 않다. 순례길에 있는

네 개의 주요 도시에는 17만5천명이 넘는 인구가 있다. 그리고 이 큰 도시 바깥 쪽으로는 백 명에서 삼 천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마을들이 있다. 적은 숫자 쪽에 속하는 마을이 대부분이다. 거의 매일 나는 세 개에서 다섯 개의 마을을 지나간다. 이 마을들을 아주 멀리서 보았을 때는, 쇠퇴하고 흠빛의 건물들이 마을 중심에 있는 커다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다들 똑같아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마을들은 아주 조용하다. 아이들은 거의 볼 수가 없다. 가끔씩 노인들이 텅 빈 거리를 산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동네에서, 유일한 가게는 카페 역할도 겸한 바가 다이다. 운이 좋다면 가게 몇 개를 더 찾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오후가 되고나면, 그나마 남아있던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는다. 시에스타에는 모든 가게와 바가 1시나 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계속 문을 닫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의 침묵은 때론 신비롭고 압도적이다. 순례길을 따라 늘어선 부서져가는 건물들의 구석이나 금이 간 곳에도 모두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많은 건물들은 아름다운 파스텔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발코니와 현관문 옆에 놓인 화분에는形形色색의 꽃들이 넘쳐났다. 각각의 마을은 하나의 미술관이었고, 나는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떤 묘지를 지나갔는데, 그곳에는 꽃이 없었다. 무덤 사이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하루 종일 바람이 거세고 웅웅거리던 날이었다. 내 모자의 챙이 계속해서 펄럭거렸다. 나는 듣던 음악뿐만 아니라 바람소리까지 감상해야만 했다. 바람소리와 음악은 재미있는 멜로디를 만들어 냈다. 때때로 나는 돌풍에 몸이 기우뚱 해서 나의 소중한 친구 워킹스틱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스틱을 잘 짚어야만 했다.

해바라기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다. 혹시라도 어떤 식으로 해바라기의 까만 씨앗 한 봉지가 작은 마트에 오게 됐는지, 아니면 해바라기오일 한 병이 어떻게 동네 가게까지 왔는지 궁금하다면 내가 대답해줄 수 있다. 이 엄청난 꽃은 까미노 순례길 여기저기에 있다. 나는 단 하루도 이 해바라기 꽃을 지나치지 않고 길을 걸어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밭은 까망고 바짝 말라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밭은 길고 무성한 녹색 줄기에 생생한 노란색 꽃이 달려있었다. 꽃들은 모두

꽃꽂하게 서서 얼굴 쪽을 땅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나는 나를 위해 춤을 추어주던 아주 재미있는 해바라기밭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어떤 리듬이나 음향효과도 없이, 해바라기 꽃이 바람에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까딱거리고 있었다. 꽃의 얼굴이 내 쪽을 흘깃 올려다보더니 이내 다시 아래쪽으로 향했다. 나는 까미노 순례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발견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했다. 만약에 내가 어수선한 마음으로 걷고 있었다면, 나는 이 전체적인 광경을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빗방울이 무섭게 떨어지려해서 나는 예방책으로 배낭에 방수커버를 씌웠다. 한 시간 쯤 지났을 무렵,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가방에서 뭔가 꺼낼 일이 생겼다. 방수커버를 벗겼을 때, 나는 내 가방 바깥쪽에 달려있던 가리비 껍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피터가 선물해준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도 가리비 껍질은 방수커버에 말려 들어가 있었다. 만약에 내가 커버를 씌우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이 조개껍질은 순례길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 소중한 무언가를 거의 잃어버리기 직전에 되찾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족에 빠지게 되고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당연히 여기기 마련이다. 나는 로베르타를 생각했다. 그리고 최근에 내가 그녀를 당연히 여기지 않았기를 바랐다. 나는 그녀를 잃어버린 물건 목록에 넣고 싶지 않았다.

열두 번째 순례길을 걷던 날, 나는 대략 백만 걸음 중에 반을 걸었고 아름다운 도시인 까리온에 도착했다. 마을에 거의 도착하니 그제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행운의 여신이 나의 순례길을 도와주는 기분이 들었다. 이 날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잠을 푹 자고 싶어서 나는 호텔에서 자기로 결정했다. 나는 35유로의 적당한 가격으로 숙소를 구했다. 방에 들어가자 빗방울은 이슬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했다. 가방을 풀고 창문을 열어보니 예스러운 뜰에 폭우가 퍼붓고 있었다.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비가 잠잠해지자, 나는 가게에 들러 판초를 사고 인터넷을 사용할 바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섰다. 불일을 다 끝마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후에 저녁에는, 동네 식당에서 베지테리언 피자를 먹었다. 나는 평화롭고 사적인 공간을 누리기 위해서 일찍 식당을 빠져나왔다.

열세 번째 날

추운 날

열세 번째 날은 차가운 아침 일찍 시작되었다. 이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 길에서 만났던 모든 친구들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과 헤어질 때 몇 번이나 집중해서 작별을 했을까? 이런 헤어짐은 정말 힘들지만 순례길 에서는 자주 있는 일상이 된다. 나는 이 길 위에서, 반복되는 헤어짐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끝이 있는 우리 인생의 만남처럼, 길 위에서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찾아왔다가 억지스런 이별을 하곤 한다. 비록 내가 후회스럽거나 때론 상실감을 느끼더라도, 나는 이 불가피한 이별의 현실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깜깜한 새벽이 끝났다. 점차 태양이 떠오르면서 대지의 색깔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차가운 아침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문득, 내 앞에 걷고 있는 단 한명의 순례자가 나의 순례길 친구인 유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험자들은 나에게 순례길을 걷는 방법이 그 사람의 삶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다. 그 말을 대입해 보자면, 내가 갖고 있는 오래된 습관은 일찍이 앞서나가게 밀어붙이고 나중에 그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이었다. 대학교 때, 나는 마지막 학기에 골프, 승마, 결혼과 가족에 대한 사회학 101 수업을 들었었다. 나는 항상 앞서나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내 직업에 대한 커리어를 힘들게 쟁취하고는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다. 나는 내 다리가 길다는 이유로 내 동료들보다 조금 더 많은 km를 걸어야 된다고 정당화 시키려했지만, 스페인에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실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무리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여행은 도착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행은 그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꼭 필요한 열기를 주는 태양의 빛 속에서 Joe Jackson의 'Fools in Love'의

라이브 버전의 저음을 듣고 있다 보니 나는 이내 최면상태로 빠져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었고 하늘의 상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 잠시 뒤, 나는 이런 광경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메세타 고원은 너무 저지대라서 구름이 땅보다 높은 곳에서 맴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내가 비행기를 타고 창문 밖으로 내려 보고 있는 것 같이, 깔려있는 구름을 뚫고 나아가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워킹스틱을 앞뒤로 잘 짚으며 걸으니, 내가 마치 구름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거의 32km를 걸은 뒤, 나는 작은 마을에 있는 아름다운 알베르계 레가네스 근처에 다다랐다. 그 곳에는 혼자 온 금발머리 여성이 선명한 빨간 테이블에 두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고 화이트 와인을 마시며 쉬고 있었다. 유리나가 또 한 번 내 앞에 나타났다.

이 알베르계는 너무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서 나는 나머지 일정을 그만두고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음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래 걸어야만 했다. 우리는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뒤, 나는 다시 사하군으로 향하는 걸음을 시작했다.

이날은 하루 종일, 내 마음이 거의 자동으로 조종되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 생각들이 들이 닦쳤다가 금세 사라지곤 했다. 아무런 생각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하루를 다 보낼 수 있다는 것도 꽤 즐거웠다. 마치 자유롭게 생각이 떠다니는 하루 같았다.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르기 1km 전 쯤, 어떤 숨겨져 있던 사실이 드러나서 내 발걸음을 멈추기 전 까지 말이다.

나는 대학시절에 대한 생각과,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술에 취해 낭비해 왔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살짝 계산을 해보니, 맵소사, 그 시간이 거의 24년이나 됐다. 나는 나의 진정한 성인의 삶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시작됐으며, 그 이후로는 늘 깨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가 1964년 1월 18일 태어난 후로, 그가 얻은 삶의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놓쳐버렸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나는 새로 태어났다.

이런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나는 즉시 이 일을

로베르타와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사하군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우리는 늘 서로에게 숨김이 없이 터놓는 사이였는데, 이번은 내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시작한 이래 그녀와 공유했던 것 중 가장 사적인 문제였다. 나는 그녀의 짧은 답장에 말문을 잃었다. 아마 내가 대서양 너머로 너무 깊은 친밀감을 기대했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저 내 기분을 털어놓고 싶었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이메일로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다.

마치 내가 나의 과거를 면밀히 살펴본 것처럼,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의 비밀도 내가 오늘 밤 묵을 숙소의 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나는 커다란 나무계단을 올라, 꽤 놀라운 알베르계의 2층으로 갔다. 외부의 벽돌은 하얀색 기둥과 커다란 아치 구조물들과 함께 이전에 있던 구조물을 가리고 있었다. 박공지붕의 기반은 마치 누군가가 이전에 있던 하얀색 건물의 윗부분을 잘라낸 것 같아 보였다. 원래 부지에 있던 중세시대의 로마네스크 양식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다. 18세기 초, 마을 사람들이 무너진 교회 건물의 잔해를 뒤져서 이 건물의 재료를 찾아낸 것이었다. 사람들이 일부 무너진 내부 위에 새로운 외장으로 수리한 건물이었다.

이 특별한 건물은 나로 하여금 나의 내부와 외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해주었다.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에 대한 집착 덕분에 나의 외모는 크게 변한 것이 없었지만, 나이를 먹으면 젊음을 앗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씩 약해져 갈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내면은 이전의 그것과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나는, 거친 삶을 추구하고 위스키를 갈망했던 내 이전 모습을 아는 시그마의 클럽 남자 회원들 중에 그 누구도 48세의 나이에 “가장 영혼을 위한 여행을 떠날 것 같은 사람”으로 나를 뽑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던 내 모습을 목격한, 이전 직장 Micron Technology 회사의 동료들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자연 속을 천천히 걸으며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는 거의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보이지에 기반을 둔 반도체 전문회사인 Micron에서 전문가로 일했다. 나는 9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성공한 세일즈 경영 간부로서 일했다. 나는 “올해의 마이크론인”이 되었고, 파티에서 누가 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확한 물류 배송과 품질 통계수치를 자랑하고 다녔다. 나는 Micron에서 근무를 마친 뒤, 6년 동안 세일즈를 중심으로 하

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컨설팅을 맡았다.

내가 36살이 되던 2000년도에 나는 시간과 돈에 대해서 오랫동안 심사숙고 했었다. 나는 빚더미 위에 올라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금더미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일을 해서 저축을 했고 투자를 했다.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틀에 박힌 일에서 은퇴하여 큰 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직업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결정은 내가 예전과는 크게 다른 길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해주었다. 나는 건강과 체형을 관리하거나, 학구적인 흥미에 시간을 쏟기도 했으며, 봉사 활동을 하거나 정신적인 삶에 대해 이해하려 애쓰기도 했다. 어떤 것이 됐던지 나는 온 열정을 다해서 임했다. 그 많은 도전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서있는 아주 오래된 길로 나를 인도했다.

스페인의 늦은 오후 시간동안 나는 사하군을 돌아다녔다. 커다란 마을 광장에서 나는 꽤 규모가 큰 아이들 무리를 보고 놀랍고도 기뻐했다. 보통 학교는 순례길에 있는 큰 도시에 집중해 있어서 학교 종소리나 쉬는 시간의 친숙한 소리는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축구공을 킁 하고 차는 아주 높은 음의 소음은 원래 정상적이던 삶을 떠올리게 하면서 나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큼지막한 초콜릿 에끌레르를 사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침에는 꽤 쌀쌀했기 때문에 나는 스페인에서 장갑을 파는 곳을 찾는 미션에 돌입했다. 나는 스페인 말로 장갑이 뭔지 몰라서 만국 공통어인 바디 랭기지로 상상속의 장갑을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에 끼는 몸짓을 했다. 6개의 가게에서 실패한 뒤, 다음 가게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갑 한 켤레를 살 수 있었다. 장갑이 나에게는 너무 작긴 했지만 남은 여행 동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순례길에서 산 물건들에 대해 기록하다가 내 행운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 부르고스에서 나는 선크림을 보충했는데 그 이후로 6일 동안 해를 볼 수가 없었다. 까리온에서는 판초를 샀지만, 나는 그 뒤로 여행이 끝날 때 까지 비를 만나지 못했다. 이날 꼭 끼는 장갑에 돈을 썼으니 앞으로 아침 온도가 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열네 번째 날

감사

아침에 눈을 뜨니, 이상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스페인에서 겨우 2주 조금 더 지냈을 뿐인데, 왠지 한 번도 스페인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중반쯤 다다르자, 나는 이 생활 패턴이 미국에서의 내 중년의 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나는 그때처럼 별다른 생각이 나 변화 없이 하루를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지금의 생활 패턴이 규칙적으로 되었다는 것 말고, 내가 매일 경험하는 것은 이전에 집에서 지낼 때 경험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였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삶속에서 가장 단순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옷으로 가득한 작은 가방으로만 살아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전에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했던 모든 잡념들을 없애가면서, 나는 새로운 경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껏 이렇게 적은 물건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으며, 이처럼 만족하며 살아본 적도 없었다.

새로 산 장갑은 대성공이었다. 추운 아침에 손가락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한 10분 정도 걸은 후, 나는 로터리 앞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더 모이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 뒤에 나는 캐나다에서 온 아름다운 여성 두 명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온타리오에서 온 절친한 친구사이였으며, 마을의 푸드뱅크에서 봉사활동가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즐거웠지만, 우리들의 걸음 속도가 맞지 않아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다. 사하군으로부터 5킬로 정도 걸었을 때, 나는 길 위에서 뜻밖의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순례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프랑스 순례길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길이었다. 이 두 길은 며칠 뒤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지만, 이것은 나에겐 새로운 경험이었다. 내 가이드북에서는 사람들이 프랑스길보다 로마

길을 덜 걷는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험을 해볼 겸 로마 길을 선택했다. 내 앞에 걷고 있는 사람은 한명밖에 안보였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프랑스 순례길을 걸었다.

새로운 길에서, 떠오르는 해는 추수가 끝난 황금빛 보리밭에 갑작스레 서리가 생기게 했다. 서리가 언 들판은 마치, 갈색 대지위에 붙어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호박보석 막대처럼 보였다. 마음을 사로잡는 이 광경을 보고, 나는 15장이 넘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한 지점에서, 나는 내 앞에서 걷고 있던 그 남자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데니스라고 했다. 우리의 첫 번째 대화는 정말 짧았다. 나는 그가 “걷기에 참 좋은 날이지요.”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이후로 한 두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옆치락뒤치락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먹으려 멈춰있는 상대를 서로 지나쳐갔다. 우리는 서로의 시야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함께 걷지도 않았다. 후에 우리는 친구가 되었는데, 그날 아침에 각자 걸으면서 즐거운 여행을 서로 공유한 것이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했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했다.

스트레칭을 하던 중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과감히 순례길을 걷게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일까 하는 생각에 빠졌다. 여기, 두 명의 성인 남성이 똑같은 날씨에 같은 길을 거의 같은 시간에 걷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아마도 전혀 다른 우주에 있을 것이다.

1,300년이 넘는 세월동안, 2백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스러운 길을 모험해왔다. 백 만 명은 중세시대에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걸었다. 나머지 백 만 명은 현대의 순례자들로서 영적으로나 종교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육체적인 도전을 위해, 아니면 인생의 즐거움을 이해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걸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2세부터 82세까지 연령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다. 우리는 체형이 날씬하거나, 뚱뚱하거나, 키가 작거나, 크거나 혹은 피부색이 다양하기도 하다. 우리는 각기 다른 외모 속에 우리의 존재를 담고 살아가고 감정이라는 짐을 관습이라는 것에 담아 살아간다. 또한 우리들의 여정은 특별하며 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첫 번째 날 프랑스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던 길은 바로 이 다름을 잘 보여주었다. 파란하늘과 떠다니는 구름, 풀이 무성한 언덕은 아주 특별한 장소로 내 마음속에 각인되었다. 그날은 2012년 9월 14일이었다. 그런데 나보다 하루 전에 똑같은 코스를 걸었던 순례자들은 비와 안개로 고생을 하면서 가시거리가 1.5미터도 안 되는 길을 걸었다고 한다. 진흙길 때문에 가파른 언덕은 험난했으며 거의 오르기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 순례자들이 처음으로 태양을 보던 날의 기분은 어땠을지 궁금하다. 나를 성가시게 하던 빗줄기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힘들게 느껴졌을까?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경험이 훗날 또 다른 시련을 좀 덜 힘들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날 아침에 나는 브라질에서 온 미구엘이라는 남자와 잠깐 같이 걸었다. 그는 발을 절룩거리며 걷고 있었고, 물집이 심각하게 잡혀있는 상태였다. 어쩌다보니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는 딸과 떨어져 있는 것이 순례길을 걸으며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했다. 내가 딸의 이름을 묻자,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헬레나예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해야겠네요.”라고 말했다. 누가 보아도 확실히 고통스러울 그의 몸이지만, 그의 정신적인 고통은 몸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었다. 내가 음식을 좀 먹고 가야해서, 다음마을에서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다.

내가 걷고 있는 코스가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는 길이어서 마을 입구에는 흔한 바나 카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거의 13km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걷고 있었고, 칼사데 로스 헤르메니로스 마을에서는 뭐라도 좀 먹어야했었다. 나는 마을 남자에게 식당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다. 그는 웃으면서 나를 작은 가게로 데려갔다.

나는 뇌진탕에 걸리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며 작은 가게 입구로 들어갔다. 키가 큰 남자 주인이, 브로드웨이를 밝힐 수 있을 만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나는 순례길로 부터 거의 4블럭이나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순례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빵 한 덩어리와 사과 한 개, 바나나 하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탕과 아몬드 쿠키를 샀다. 돈을 내기 직전에 나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친절하고 자비로운 주인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집은 그가 운영

하는 가게 바로 밑에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화장실에 앉아서 불일을 봤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순간 나는 당황하게 되었다. 그때 노크소리가 세 번 들렸고, 이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나는 “잠깐만요.”라며 내가 아는 모든 스페인어를 동원해서 대화를 시도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더니 손이 불쑥 들어와서 휴지를 놓고 갔다. 그 손은 불쑥 나타났을 때처럼 재빨리 사라졌다. 나는 다시 한 번, 무슨 일이든지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순례길이 주는 가르침을 깨닫고는 웃음이 났다. 나는 가게로 다시 돌아와서 주인과 함께 서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길을 걷다가 햇볕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발견했고, 음식을 담은 주머니를 가방에서 꺼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등을 주름진 깡통 벽에 댄 채 시멘트 바닥에 앉았다. 길 위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이따금씩 개가 짖는 소리나 닭이 우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가장 알맞은 조건에서 천천히 점심을 먹었다. 아몬드 쿠키와 따뜻한 태양이 이날을 극적으로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이 단순한 음식을 이전에 스페인에서 먹었던 그 어떤 식사보다 더 즐겁게 음미하고 있었다.

한 시간쯤 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낯선 사람 한명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다가와 힘차게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저 기억하시죠?” 그 남자가 물었다. “계속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며칠 전에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우울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제게 힘을 불어넣어주셨어요. 그때 감사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기 직전이었던거ですよ.”

잠시 후, 나는 그때 일이 생각났다. 며칠 전 내가 언덕을 내려가고 있을 때, 나는 몹시 지치고 좌절한 얼굴로 바위 위에 걸터앉아 발에 잡힌 물집을 살펴보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콤피드 패치가 필요한지 물어보았다. 그는 툭툭거리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가 건네는 패치를 받았다. 나는 내 호의를 고마워하지도 않는 태도에 불쾌해 하면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전후사정을 듣게 되자,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이번 깨우침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선부른 해석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날 하루의 끝을 향해갈 무렵, 나는 지평선위에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을 보았다. 저 멀리, 인위적인 구름이 커다란 산맥을 뒤덮고 있었다. 그 풍경은 마치 메세타 고원의 평지가 이제 막 역사에 남을 순간의 모습 같았다.

이날 나의 마지막 종착지는 렐리에고스라는 이름의 마을이었다. 나는 알베르게 길에 체크인 했는데, 이곳은 순례길의 랜드마크인 바 엘비스 옆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 바의 바깥은 아쿠아 블루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동기를 부여하는 글귀들과 잡다한 그림들과 함께, 메뉴판이 커다란 파란 벽 위에 낙서처럼 휘갈겨 써져 있었다. 나는 큰 컵에 담긴 카페 콘라체 한잔과 더블 캐러멜 매그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이곳의 주인은 그녀의 가게만큼이나 밝고 화려했다. 나는 그 순간만큼은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했다.

알베르게 길은, 방 하나에 겨우 세 개의 이층침대와 깨끗한 공용 화장실이 함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숙소였다. 나는 마지막 남은 아래층 침대를 골랐고 이날 밤 세 개의 윗 층 침대는 모두 비어있었다. 순례길에서 이런 경우는 알베르게에서 로또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렇게 가장 단순한 것들이 큰 행복과 감사함을 주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주디와 애니와 함께 방을 썼다. 그 둘은 헝가리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였는데, 주디는 지금은 영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렌틸스프와 후에버스(달걀요리) 그리고 프리타타로 된 맛있는 식사를 먹으면서, 각 나라의 임금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헝가리의 의사와 선생님이 똑같이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 두 여성은 모두 가장 고급 인력들은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찾아 해외로 떠난다고 말했다. 헝가리는 별다른 경제성장 없이 물가가 놀랄만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곳이었다. 내가 보통의 미국인이 한 달에 버는 수입을 말해주자 애니는 정말 깜짝 놀랐다.

다시 한 번, 나는 이러한 사실들에 감사했다. 나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살고 싶다.

열다섯 번째 날

봉사의 삶

나는 마치 챔피언처럼 잠을 자고 나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배탈이 난 애니에게는 전혀 좋은 아침이 아니었다. 그녀는 길에서 하루 더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나는 7시쯤, 다음 목적지인 레온을 향해 길을 나섰다. 암흑 같은 아침, 나는 홀로 걷는 이 고요함에 빠져들어 걷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유일한 인기적인 헤드랜턴의 불빛이 슬금슬금 내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 오래 걷지 않고, 나는 노년의 스팅과 매우 닮은 스티브라는 사람과 만났다. 내가 그에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어디든 내가 가장 변화 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지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것이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나는, 스티브가 내 고향집인 아이다호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도시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0살에, 그는 주택임대가 끝나서 자신의 물건들을 그냥 내주고는 스페인으로 건너와 순례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었다. 그는 남은 그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도우며 헌신하며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미 아프리카와 인도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자선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으스스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는데,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의 기차에서 만난 나이든 유대인 여성을 만났던 이야기였다. 그녀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지만, 그녀를 가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나쁜 감정이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누구든지 마음에 증오와 응어리를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진심어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 짧은 만남이 그의 인생을 변화 시켰다. 그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난 뒤에, 이집트에 가서 2011년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친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스티브와의 만남은 나에게 처음 순례길을 걸을 영감을 주었던 한 남자를 떠올

리게 했다. 나는 스카우트를 매년 열리는 “아이다호 자전거대회”에서 만났다. 이 대회는 거의 30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일주일 동안 단체로 자전거를 타는 행사였다. 나는 2008년에 처음 이 행사를 참여했고, 스카우트는 수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눈에 띄는 자원봉사자였다. 그는 항상 긍정적이었으며, 언제나 행복해 보였는데, 그 행복은 정말 순수한 행복이었다. 그 대회의 3일째 되던 날, 나는 그에게 다가가 나에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다음날,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고 그런 삶이 만들어낸 마음의 평화의 기운이 온몸에 가득하다고 말했다. “나는 나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그 어떤 사람이든지 부탁을 하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움 일이 없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돕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은 항상 있으니까요.”라고 그는 말했었다.

그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평화로운 순례자라는 이름의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이 비범한 여성은 1953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 전역을 여기저기 횡단했다고 한다. 그녀가 총 걸은 거리는 대략 4000km이며, 게다가 무일푼으로 걸었다고 한다. 스카우트는 그녀의 인생을 따라서 무일푼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신용카드도 없고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이, 예금 통장이나 퇴직 연금도 없이 말이다. 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놀랍고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그의 선택이 미칠 영향력이 좀 부럽기도 했다. 나로선 돈이 없이 살면서 게다가 타인을 돕는데 인생을 바치며 살겠다는 그의 신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자전거 대회가 끝난 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으로 가서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걸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런 식으로 걷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제정신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여전히 나에게 그는 흥미로운 사람이다.

대회가 끝난 후, 나는 스카우트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1주일정도 같이 지냈었다. 나는 그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도우려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동물들의 쉼 곳을 만들 방법을 모색하고 오후에는 유기동물을 돌봤다. 어떤 날은, 함께 지역 노인센터를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또 한 번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이웃

의 마당일을 도와준 적도 있었다. 그의 삶에서 모든 행동은 타인을 돕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러면서 그는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그의 끊임없는 미소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으며,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이 주는 장점의 예시를 보여주는 듯 했다.

나또한 이런 삶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런 실제로 이런 식의 삶을 결과로써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내가 언젠가는 순례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은 갖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 8월이 끝나갈 무렵, 나는 순례길을 걸을 결심을 했고 스카우트에게 이 흥미진진한 소식을 이메일로 전했다. “네가 길을 걸기로 했다니 감동적이야, 하지만 그건 네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순례길이 네가 그 길 위에 있을 때를 결정해 준거야.”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순례길이 내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주 뒤에 나는 생장 길을 걷고 있었다.

열다섯 번째 날, 스티브와 함께 나눈 대화는 나의 기억을 2006년 자전거 여행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했다. 그때 나는 6주가 넘는 동안 9개의 유럽 나라를 혼자서 자전거를 타며 총 3200km를 여행했다. 바람과 기계문제, 의사소통 등 수많은 문제와 역경이 여행길에 있었지만, 이때의 여행은 나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나는 스티브에게, 순례길에서는 모든 일들이 운이 좋게 잘 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전에 했던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스티브는 나에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기운이 우리가 돌려받는 것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의 말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재와 과거의 내 모습에 대해서 진지한 자아성찰을 하게 만들었다. 자전거로 여행하는 동안, 나는 기대가 컸었고 나에게 닥친 고난에 쉽게 좌절하고는 했다. 하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나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냥 쉽게 보내고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와 함께 6km 정도 걸은 뒤, 우리는 만시아레 라스물라스에서 잠깐 멈춰 아침을 먹기로 했다. 사실 스티브는 마리 베스라는 여성과 함께 여행하는 중이었다. 그는 아침에는 혼자 걷는 시간을 즐겼다. 그는 항상 다음 마을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재회를 여유 있게 기다리곤 했다. 우리는 아침을 먹을 알맞은 작은 식당을 골랐다. 토스트는 맛있었고, 식당의 환경은 독특했으며 따뜻한 온기에 재충전을 할 수 있었다. 아침식사를 마친 후, 나는 이전의 몇 시간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는 동안, 그 기억을 붙잡아두려는 불안함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대략 30분 정도 글을 쓰다가 나는 길을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5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다시 한 번 그리스에서 온 나의 금발머리 친구 유리나와 함께 걷게 되었다. 그녀는 까베르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뒤, 숙취에서 회복중이라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다. 그녀의 물집이 잡힌 발은 그녀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발바닥을 보여주었다. 마치 차 사고의 여파처럼, 그 모습은 매번 볼 때마다 안타깝다.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우리는 다시 헤어졌지만 작별인사에 그리 시간을 쏟지는 않았다.

이날 걸었던 순례길 코스는, 레온 도시로 향하는 수많은 차량으로 가득한 분주한 고속도로와 매우 가까웠다. 몇몇 다리를 건널 때는 정말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머지 오르막 길 구간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시야에 도로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감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 나는 여기 차가운 길 위에서 삶과 자연을 사랑하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고작 9미터 옆에서 자동차들은 누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서둘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나는 이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혼자 걷게 내버려 두고 있는, 이 수많은 운전자들이 과연 최근에 인생을 변화시킬만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가깝고도 먼 사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일깨워 주는 일이었다.

나는 산티아고로 가는 길에 있는 마지막 대도시인 레온으로 가는 길에서, 스티브와 마리 배스를 다시 만나 함께 오후 휴식시간을 보냈다. 나는 다시 한 번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그 지역을 둘러볼 계획이었다. 우리가 마을 언저리에 다다르자, 스티브와 마리는 마을의 첫 번째 알베르게를 찾아 돌아갔고,

나는 호텔을 찾기 시작했다.

순례길에서 홀로 걷는 것은 평화로웠지만, 도시에 혼자 있게 되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자동차의 소음과 가게들, 사람으로 가득한 거리는 나의 차분한 기분을 압도한다. 나는 길을 걸을 때는 내성적인 경향이 있었다. 예상 밖으로, 그날 나머지 시간을 도시에서 보내는 것이 내가 조용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방해했다.

순례길에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나는 작은 노란색 화살표를 잃어버렸다. 나는 마을 중심에 있는 큰 대성당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이 작은 표식을 따라가야 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배낭을 메고 미소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에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스페인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다. 비록 거의 80프로 이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걸어왔지만, 순례자 무리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들게 했다. 나는 몇 군데 호텔을 알아봤지만, 부르고스에서처럼 호텔은 전부 예약이 차있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분주한 거리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서있자니, 나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내가 옆길로 시선을 돌렸을 때, 거기에는 길을 잃은 듯 보이는 사람이 혼자 서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구출해서 알베르게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싶었다. 물론 나는 호텔에서 잘 생각을 바로 포기했다. 나는 나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우리는 함께 베네딕트 수녀들이 운영하는 알베르게 산타 마리아 데 까바할을 찾아갔다. 우리는 숙박비로 5유로씩 냈고, 추가로 8유로를 더 내면 세탁물을 빨래해주고 말려준다고 했다. 나는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구역을 나누어 생활 하는 곳을 경험했다.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히 공동 사용이었다. 낮 동안에는 서로의 시설을 방문 하는 것에 제약이 없었지만, 수녀들은 불이 꺼진 후에는 따로 공간을 이용하길 바랐다. 이곳에는 네 개의 방에 총 144개의 침대가 놓여있었다. 내 방에는 최소 60개의 침대가 있었고, 이 작은 공간을 통제하려면 새로운 규칙이 있어야만 했다.

침대는 순례길 삶의 실상이자 전반적인 경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항상 위나 아래에 누군가가 있으며, 각 침대 사이의 복도가 약간의 생활을 분리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침대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있었다. 침대는 완두콩 모양처럼, 가로로 두 줄, 세로로 세 줄 총 12개가 놓여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위에 누군가가 자고 있고, 내 침대가 바로 왼

쪽 침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내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아리조나에서 온 전 미 해군 특수부대원이었다. 한밤중에 그를 발로 차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에 나는 8유로를 내고, 봉사자에게 내가 가진 모든 옷을 세탁하는 것을 부탁하기로 했다. 나는 마치 내 옷장에 있는 모든 옷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럭셔리한 생각을 했다.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남아있는 두 개의 옷인 트레이닝 반바지와 바람막이를 입고서, 나는 마당으로 가려고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햇볕을 쬐면서 일기를 쓰면서 큰 기계에서 빨래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내가 이렇게 여유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친구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만약에 호텔에서 묵었다면 이렇게나 많은 나의 오랜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오후 내내, 나는 토비, 조셉, 마테오, 파스칼, 유리나, 스티브, 마리배스, 주디, 선아, 모르게스, 카스퍼, 니콜, 마시모와 어머니를 모두 만났다. 순례길이 나에게 나의 사람과 함께 있기를, 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많은 오랜 친구들을 한자리에서 다 만나는 “동창회”를 해본 기억이 없다. 우리의 우연한 만남에 우연은 없었다. 이날 이후로 나는 마시모와 그의 어머니를 포함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세탁이 끝난 옷을 돌려받고 나서, 나는 간단한 먹을거리도 구하고 관광을 하려고 마을을 돌아다니기로 했다. 이 마을에는 가볼만한 흥미로운 장소가 많아서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이곳의 메인 대성당은, 2세기에 로마사람들을 위한 목욕장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8백년이 지난 뒤에 이곳은 아랍 침략자로부터 이 지역을 방어했던 왕 오르로누를 위한 장소로 쓰였다.

오늘날에는 이 고딕양식의 기독교 교회는 1,800제곱미터 크기의 스테인 글라스로 더 유명하다.

아이스크림을 조금 먹은 뒤에 나는 다시 알베르게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에 있을 라이브 콘서트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남성 한명이 25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오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위에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실로 놀라웠다. 15일전의 나였다면 분명히 감상을 포기하고 그냥 지나쳐 갔었을 것이다. 이 남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다양한 악기로 한 시간 가량 연주를 했다.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만, 그의 멜로디와 음은 나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현수막을 살짝 보고나서, 나는 내 자리 바로 옆에 있는 독특한 건물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명인, 안토니오 가우디가 디자인한 보네스티의 저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저 평범한 모험 속에 평범한 하루가 함께 하고 있었다.

알베르게로 돌아와서, 나는 스티브와 마리 배스를 만났다. 그들은 나에게 수녀원 예배당에서 있을 수녀들의 저녁 성가에 같이 가자고 물었다. 우리는 4줄로 서 있는 수녀들을 수직으로 바라다보는 신도석에 자리를 잡았다. 16명의 수녀들은 7시 정각에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마네킹 같아 보였다. 정확하게 시간이 되자, 마네킹들은 현실세계로 돌아와 그들의 성가대 책을 쳐다보고 소름 돋는 찬송을 시작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수녀들의 경이로운 음은 나의 귀를 사로잡았다.

찬송을 부르는 수녀들과 스티브를 만난 것은 나에게 기부와 빈곤에 대한 생각이 들게 하였다.

아이다호의 보이지로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좋아했던 봉사는 Friends in Action(FIA) 이라고 불리는 단체 활동이었다. 이곳에서는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도움이 좀 필요한 노인들과 봉사자들을 연결시켜 주었다. 대부분의 일은 노인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돕거나, 식료품을 사고, 정원을 관리하고, 기본적인 담소를 나누는 것들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만나는 것을 좋아했지만, 특히나 그중 한명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이 단체는 매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내용을 적은 목록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그중에 마고라는 할머니는 언제나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목록에 올라와 있었다. 그것은 나이든 할머니들과 함께 월마트를 느릿느릿 같이 걸어주는 일상적인 것들에 비해서 좀 버거워보였다. 몇 달간 할머니의 이름을 리스트에서 보고 나서, 나는 편안하게 도왔던 것에서 벗어나 로키산맥 주에 있는 종양치료기관으로 할머니를 데려다 주는 봉사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서로 호감을 느꼈다. 할머니를 처음 병원으로 데려다 주기

전에, 나는 할머니의 집 거실에서 30분 동안 그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IBM에서 성공한 직장인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며, 개발도상 국가들을 여행하고 거주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매주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다주면서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언제부턴가 할머니는 나를 직접 부르기 시작했고, 내가 데려다주지 못할 때만 FIA에 도움을 받았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우리의 우정은 더욱 더 피어났으며,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할머니가 암에 대해 좋거나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나는 그 새로운 소식을 듣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암울한 소식을 들을 때면, 나는 그녀의 놀라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에 오히려 힘을 얻곤 했다.

나는 로베르타와 함께 할머니를 만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거나 할머니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다가, 마침내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우리들의 가장 특별한 날에도 “영광스러운 초대 손님”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만약에 이 관계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확실히 우리들 이었다!

내가 스페인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마고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었다. 나는 3주 동안 그녀의 핸드폰에 여러 번 메시지를 남겼다. 처음 1주일과 2주일째는 그저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3주가 지나자 불안한 생각이 드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아이다호 온라인 사망기고 사이트에 할머니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내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확실시되자, 슬픔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마고 할머니는 내가 산티아고 대성당으로부터 38km 떨어진 여정의 끝자락에 있던 2012년 10월 8일 돌아가셨다.

나는 할머니에게 제대로 된 작별인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스럽기도 했지만, 나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늘 열린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여성을 기리고 싶었다.

“그들의 문제는 삶을 위협하는 종양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그 암 덩어리를 인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될 뿐이지.”

열여섯 번째 날

순례길 위의 예술

메세타 고원을 뒤로하고 레온을 향해 출발할 때, 나는 산티아고로 향하는 마지막 320km 구간을 시작했다. 첫 번째 3분의 1구간은 나의 육체가 강해지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구간에서, 나의 마음은 바람이 부는 마세타의 평지 위에 자유로이 날려 보냈다. 이제 나는 갈라치아의 산이 많은 지역을 걸으며 나의 영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날 밤의 레온의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슬금슬금 기어가는 청제구간이었다면, 이날 아침의 분위기는 그와는 정 반대로 소음도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저 계속 들리는 소리라고는 내 듀란의 금속 팁이 자갈밭을 만나서 내는 리드미컬한 소리밖에 없었다. 네발자국을 걷고, “딸각”, 네발자국을 걷고, “딸각”, 다시 네발자국 걷고...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을 때, 나는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이는 다른 순례자와 마주쳤다. 토미오는 일본에서 온 젊은 청년이었다. 우리를 가로막는 언어장벽이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우리 길 위에 표시된 찾기 어려운 노란색 화살표를 발견해냈다.

토미오와 함께 걷는 동안, 우리는 만나는 모든 낯선 이들에게 “올라. 부엔 디아스.”라며 일상적인 인사를 건넸다. 작은 마을에서는, 보통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 미소를 지으며 “부엔 까미노.”라는 마법의 단어가 돌아오곤 했었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아 보였다. 그의 인사에 사람들이 대답 해주지 않는 것이, 내 친구 토미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불만에 대해 나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애썼다. 마침내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가 말하는 것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다시 한 번 나는 어제 스티브와 나누었던 우리의 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아낌없이 발산하는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는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을 것들과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얼굴에서 표출되는 에너지를 억누를 수가 없다.

우리는 마을 끝에서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마침내 바람이 부는 것이 멈추고,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졌다. 나는 이 차가운 아침이 티끌하나 없는 기분 좋은 오후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길의 구간은 약간 분주한 도로와 매우 가까이 놓여 있었다. 나는 부주의한 운전자들이 잘못해서 운전자를 향해 돌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다지 기분 좋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나의 순례길이 급하게 끝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다. 자동차 사고는 끔찍하게 끝나는 경우임에 분명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수없이 많이 있다. 나는 신체적인 피로 때문에 산티아고에서 많은 순례자 친구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확신했다. 질병은 또 다른 잠재적 위험요소이다. 물집이 감염되거나 발목을 빼는 것도 여행을 접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악천후 또한 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구간의 길은 대서양과 매우 가까워서 끊임없이 내리는 비가 잦은 켈틱 지역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갑자기 내 마음의 선두에, 여행에서 오는 허약함이 나타났다.

충분히 고민하고 나니, 이런 불안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해주었다. 나의 긴 목록에 들어있던 사고와 손을 쓸 수 없는 질병은 도저히 내가 통제 할 수 없는 것들이며, 그저 조금 빠른 장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뿐 이었다. 순례길 위에서의 매일 매일이 그러했듯이, 나는 반드시 삶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드시 내일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혹 내일이 온다 하여도 우리의 신체적인 상황이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어제나 내일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이 바로 그 어떤 것이라도 감동을 느낄 순간이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 나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보내버린 순간이 셀 수 없이 많

이 있었다. 그 시간들은 다시는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정한 선물인 것이다.

그 시점에, 여전히 스팅을 닮은 스티브는 나의 이목을 끌었다. 거의 1시간동안 나는 그의 흥미롭고 특이한 외모를 감상했다. 나는 내가 순례길을 걷도록 영감을 주었던 스카우트와 스티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조직화 시켜 기록을 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길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가 마리 배스와 기다리는 아침의식을 계속 하는 동안, 나는 길을 출발했다.

라 비르헨 델 까미노라는 이름의 마을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나는 순례길 예술의 대표적인 걸작을 하마터면 놓칠 뻔 했다. 길 위에서 45도 정도 왼쪽으로 돌아서니, 나는 내 오른쪽 어깨 너머로 교회 앞에 서있는 13개의 거대한 동상을 볼 수 있었다.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16세기에 한 양치기가 성모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성모 마리아는 그에게 돌을 하나 던져서 그 돌이 떨어지는 곳에 교회를 지으라고 했다. 오늘날 산티아고 쪽을 응시하고 있는 성 야고보 동상과 함께, 12사제의 동상이 그곳에 서있다. 성모마리아의 동상은 전체 모습보다 위에 떠있었다. 그 이야기는 마치 내가 산티아고 길을 걷기로 결정했던 것만큼이나 충동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이 들었다.

다시 길 위로 돌아와, 나는 헝가리에서 온 주디를 만나기 전까지 잠깐 혼자 걸었다. 그녀는 친구 애니가 아직도 몸이 좋지 않아서 자신보다 며칠 뒤떨어져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 친구가 이 여행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주디는 휴식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헤어졌다.

다시 한 번, 순례길은 아름다운 태양과 온화한 기온, 그리고 눈부신 풍경들로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헤드폰을 썼는데, 레드 제플린의 The Rain Song이 그날의 즐거운 내 기분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 노래는 거의 7분 동안 재생됐다. 이 노래로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나는 계속해서 4번이나 들으면서 내 워킹스틱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내 생각에는, 매번 부를 때 마다 조금씩 잘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카메라를 분홍색 파우치에 넣어둘 틈이 없었다. 나는 짓고 있는 개들, 표식 위에 널어둔 등산화 한 짝, 노란색 화살표, 벽돌의 패턴, 열쇠구멍, 화려한

색의 문, 순례길, 풍경, 새로운 친구들, 내 배낭, 심지어 내 커피 컵 까지, 이 모든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듀란은 이때까지 그가 모델로 찍힌 사진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었다.

나는 네덜란드에서 온 시몬과 영국에서 온 존, 이 두 남자를 천천히 따라잡았고, 그들 무리에 끼었다가 빠져나왔다가 하면서 이날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배를 잡고 웃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로부터 300미터 정도 떨어져서 걷고 있는 각자의 부인에 대한 농담을 했으며, 나보고 뒤떨어져 걸으면서 자신의 부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들의 농담에 또 한 번 배를 잡고 웃었다. 이 길 위에서, 다 큰 성인 남자 셋이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아이처럼 웃고 떠들고 있었다. 어쩌다보니, 존은 다시 자기 부인과 합류하고,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쉬게 되었으며, 시몬은 계속 걸어가게 되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시몬을 따라잡았을 때, 그는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었다.

나는 빌라 데 마자리페에 있는 알베르게 지저스에서 이날 하루를 마감했다. 나는 스티브와 마리 배스가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기까지 거의 한 시간 정도를 그곳에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전에 만났던 지인을 보게 되어 기쁘고 놀라운 마음이 들었고, 이내 순례자 친구들을 항상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이곳의 숙소는 엄청난 특징이 있었다. 내가 묵는 방에는 두 개의 나무로 만든 침대가 있었으며, 라임그린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다른 9개의 방도 각각 다른 색의 파스텔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형형색색의 벽에는 이전에 다녀간 순례자들이 그린 그림과 글귀로 가득했다. 길고 짧은 엄청난게 큰 그림과 글들이 세계 방방 곳곳의 언어로 쓰여 있었다. 나는 이방에서 저 방으로 그것들을 전부 감상하는데 거의 한 시간이나 걸렸다. 그리고 25장이 넘는 사진을 찍었다.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그림이었다. 하얀 벽 위에 석탄으로 살짝 여자의 머리카락과 얼굴 라인을 그리고 눈, 입술, 미소를 세밀하게 표현한 그림이었다. 이 그림의 단순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른 그림은 초록색 벽 위에 그려진, 두 사람의 얼굴이 빨간색 하트로 둘러싸여 있

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에는 ‘스벤이 사랑하는 수잔나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이 덧붙여 있었다. 그리고 다음 문구에는, 2007년 3월 29일 이라는 숫자와 함께 “이곳에서 배운 선함으로 살아가기를,”이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나는 이날 오후와 저녁을 작은 마을을 통과하면서 구불구불한 길을 걷고 4대륙에서 온 순례자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다. 그중에서도 던은 특별히 인상 깊었다. 그는 자신의 21년 인생의 20년을 독일에서 보냈지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다. 순례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보편적인 공통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각자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열일곱 번째 날

마라톤

한 주의 요일은 여행에 별 상관이 없었지만, 일요일에 나는 지저스 알베르게를 떠나게 되었다. 온도는 40도를 웃돌지 않았고, 하늘은 수정같이 맑았으며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별이 너무 밝게 비춰서, 나는 헤드랜턴을 쓸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나는 이 풍경 덕분에 분에 넘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계속해서 어깨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지 보고 있었다. 하늘은 밝아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태양이 뜨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다. 줄지어 서있는 거대한 송전탑에 걸린 세 개의 전선이, 이날 아침의 순례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대지는 칠흑 같은 어둠속에 있었고, 송전탑은 나무의 그림자와 나란히 지평선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지어 있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높게 떠오르자, 나는 극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다. 내 뒤에 있던 그림자가 수정같이 맑은 파란하늘에 희미해져가는 형광 오렌지 하늘빛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내 앞에 펼쳐진 하늘에는, 여전히 보름달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조용히 떠 있었다. 나는 이게 꿈인지 아닌지 내 볼을 꼬집기 전에, 이 모습을 집에 걸어두고 싶어서 서둘러 사진을 찍었다.

내가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때 까지도, 맑고 파란 하늘위에 달이 떠있었다. 비야반떼 마을에 들어서자, 주황색 벽돌 위에 그려진 밝은 노란색 화살표가 나를 맞이해 주었다. 첫 번째 알베르게는 이미 전날 밤의 손님들의 흔적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식사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였다. 빛이 날정도로 깨끗한 알베르게의 직원들이 나를 열렬히 반기고 있었다.

나는 다섯 개의 식탁이 놓인 방에서 두 명의 여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은 독일에서 온 엄마와 딸의 사이로, 이곳에 온 것에 아주 기뻐하고 있었다. 의사소통이 좀 힘들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즐거웠다.

예상했듯이, 음식은 완벽했다. 우리 테이블에 다른 두 명의 순례자가 더 합석했다. 그들은 워싱턴에서 온 프레드와 텍사스에서 온 페트였다. 나는 고작 4유로에 이 영광스러운 하루를 계속 즐기며 재충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시 순례길로 돌아오자, 이른 아침 햇살이 커다란 옥수수 줄기위로 장엄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피터와 페트와 함께 한 시간가량 함께 걸었다. 텍사스 주민이 내 핑크색 카메라 케이스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왔다.

“그건 당신의 딸이 골라준 겁니까?” 그는 슬며시 물어보았다.

“진정한 남자라면 핑크색 정도는 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내가 대답하자, 모두가 웃었다.

나는 이 카메라를 로베르타와 공동으로 구매했던 때가 생각났다. 수많은 후기를 다 읽은 뒤에, 우리는 캐논에서 나온 콤팩트카메라 모델을 선택했다. 내가 카메라의 색을 고를 때, 그녀는 나에게 과감한 도전을 해보라고 권유했었다. 순례길 여행 내내, 나는 이 카메라와 케이스를 줄에 걸어 내 심장이 가까운 가슴 쪽에 매달고 다녔다.

이날 여정의 절반쯤 되었을 때, 나는 순례길에서 가장 커다란 로마식 다리를 보게 되었다. 오비리고 다리는 중세시대에 지어진 16개의 거대한 아치를 가지고 있는 다리였다. 5세기 초, 이곳에서 서고트족과 수에비족이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19세기에는, 영국군이 이 다리를 나폴레옹의 군대로부터 되찾는 과정에서 다리의 일부를 파손시켰었다.

이곳에 관한 가장 용감한 이야기는, 15세기에 있었던 돈수에로 데 키노에스 라는 기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한 귀족 여인에 대한 헌신적인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서 온 기사들과 마상 창시합 대결을 벌였다. 그와 그의 10명의 부하는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이 다리를 300 번 이상 방어하는 것에 성공했다. 마침내 그는 명예를 회복하고, “사랑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그의 전우들과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의 순례자가 되어 계속 길을 걸었다고 한다.

나는 이 여행에서 굳이 사랑을 위해 싸워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다음 끼니에 먹어야 할 음식을 구하려 애써야했다. 나는 마을에 있는 작은 가게에 들어서 참치

엠파나다와 사과 그리고 에끌레르를 하나씩 샀다. 이때는 막 배가 고프지가 않아서, 길에서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포장해 가기로 했다.

나는 음악에 심취해서 걷던 중에, 날이 너무 아름다워서 좀 과하게 사진을 찍었다. 특히 이날따라 마음에 와 닿았던 가사는, Dave Mathews가 불렀던 Jimi Thing라는 노래에 나오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은 언제나 내 주위에 있다네.”라는 가사였다.

다른 마을의 끝자락에서, 나는 한 노인이 점심을 먹기에 완벽해 보이는 휴식 장소처럼 보이는 피크닉 테이블 두 개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던 노인을 만났다. 우리는 서로 미소로 인사를 나눴고, 나는 그 동네 노인에게 내 샌드위치와 과일을 좀 나눠주려고 했지만 노인은 음식에는 흥미가 없었다. 내가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간신히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노인이 스페인어로 점점 더 빠르고 크게 말을 퍼부을수록, 나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노인이 자기 모자를 벗어서 벗겨진 대머리를 보여줬을 때 나는 웃음이 터졌다. 아마도 그는 나의 조금 남아있는 벗겨진 머리가 부러웠던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걸기를 시작했고, 언덕을 넘어 이제는 메세타 고원을 벗어났다. 갑자기 내 눈앞에 산티아고를 달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내 뒤에 있던 커다란 아치모양의 다리에서 이제 막 16km의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순례자들의 길을 정리하기 위해서, 맨 앞에 달리던 사람을 자전거들이 이끌고 있었다.

나는 이날 오후 내내, 줄지어가는形形色색의 참가자들을 보면서 즐겁게 걸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행사들처럼, 친구와 가족들이 적재적소에서 사랑하는 이를 응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에서 쓸데없이 부탁을 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었다.

이 경기는 중세 성벽으로 둘러싸인 언덕 맨 위에 있는 아스토르가라는 도시에서 끝이 났다. 이 도시는 기원전 14년경에 세워졌으며, 지금은 대략 12,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경기는 작은 마을에는 확실히 큰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지친 내 발들이 이날은 호텔에서 묵자며 아우성이었다. 다섯 군데의 호텔을 둘러보고 나서, 나는 예쁘고 유행하는 스타일의 비아 델라 플라타 스파 호텔로 확정했다. 3층에 있던 내 방에서는 빨간 타일의 지붕과, 파란 하늘 그리고 여섯 개의 황새등지가 있던 교회 탑이 보였다.

호텔에 있는 용품들의 이용방법을 각각 다 살펴본 후, 나는 마을을 살펴보러 나갔다. 호텔과 연결된 곳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로마인의 집터가 전시되어 있었다. 보이는 모든 방마다 플랜카드로 도표를 표시해 놓았다. 그들은 정말로 큰 집에서 살았었다.

내가 마을의 메인 광장으로 걸어들어 갔을 때, 그곳에서는 마라톤의 수상식을 하고 있었다. 관계자들이 우승자들에게 수상을 하자, 눈부신 옷을 입은 주자들은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모여 있던 군중들에게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었다. 나는 그 무리의 일부가 되어 함께 즐겼다.

나는 그 광장을 조금 더 걸어가다가 주교들의 저택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법한 돌탑과 작은 탑들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이곳이 건축의 상징인 안토니 가우디가 디자인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지었던 건물들은 당시에 시대를 너무 앞서나가서, 현세의 기술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의 작품 중 7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그의 걸작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 1882년부터 지금까지도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한다.

주전부리를 좀 하고나서, 나는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 마을 광장에 있던 마라톤 주자들은 사라졌지만, 일요일의 인파는 여전히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는 동네 노인들로부터 꽤나 시선을 받았다.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의 벤치를 거의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이게 이 동네사람들의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들이 산티아고를 향해 행군하는 외국인 행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했다. 그들은 그저 그곳에 앉아서, 태양을 쬐면서 관광객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조금함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확실히 그들은 서로서로 어울리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이形形色색의 역사적인 광장에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바로 이 노인들의 모습이었다.

열여덟 번째 날

워가워가 베지마이트

10월 1일으로써, 나는 이 길을 걸은 지 18일이 되었다. 이날은 럭셔리한 호텔식당에서 뷔페로 아침을 시작했다. 나는 럭셔리한 아침식사를 즐기면서 아침잠을 깨고, 바깥 날씨가 약간 따뜻해질 즈음 길을 나설 것이다.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는 천천히 이 동네에서 자란 토마토와 신선한 모짜렐라 치즈, 토스트와 시리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얇게 썰린 고기를 음미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필요 이상의 많은 음식을 먹고는 한다. 하지만 이곳 순례길에서는, 음식이란 마땅히 먹어야 하는 것이며, 충분히 누려야하는 것이다. 만약에 호텔에서 내가 먹는 양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추가요금을 요청할지도 모른다.

나는 아침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매일, 일분일초의 순간을 진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 생겨나는 마음의 짐으로부터 마음을 맑게 가다듬고 나면, 나의 모든 감각들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나는 과연 이런 분명한 마음가짐을 순례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다. 마음속으로 혼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투표를 해보고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내가 내린 결론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는 인생의 수 많은 걱정거리들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지면, 현실을 살아갈 생각의 공간들이 생겨난다.

내 삶에서, 걱정거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생겨난다. 첫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민거리들이다. 이 두 가지 걱정의 바다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나는 정말 괜찮은 일들로 가득한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즐길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나는 거의 9시 무렵에서야 스파호텔을 나와서 혼자서 최소 3시간정도를 걸었

다. 믿기 힘든 나의 출발시간 덕분에, 순례길은 다른 순례자들이 하나도 없고 공허했다.

나는 문득, 어제 점심시간에 만났던 노인이 생각났다. 그가 우리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더 큰 목소리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것이었다. 그의 방법은 나로 하여금 그동안 내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얼마나 자주 내방식대로 생각해서 해결책을 밀어붙였는지 떠올리게 해주었다. 내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나는 그저 기존에 있는 뻔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능숙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했었다. 사실 수많은 복잡하고 또 단순한 문제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선하고 획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쉽사리 해결 될 수 있다. 내가 그때 만약 그림 그려서 단어 맞추기 게임 같은 것으로 그 노인과 대화를 시도했다라면, 아마도 나는 내 점심 파트너와 함께 엄청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노인으로부터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마침내 나는 워킹스틱 세 개를 들고 걷고 있는 젊은 커플 순례자들을 볼 수 있었다. 내 친구 듀란과의 우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틱 세 개를 들고 걸던 그들에게 관심이 갔다.

그들은 호주에서 온 두 명의 젊은 연인이었는데, 이름이 제시와 제임스였다. (둘 다 이름이 정말 남자이름이었다.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그들은 호주와 가와가 지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정말 동네 이름이 와가와가이다.) 그들은 최근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 후 그들은 유럽에서 2년 동안 배낭여행을 했으며,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그 여행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몇 분간 대화를 나눈 뒤, 나는 무슨 연유로 두 명에서 스틱을 세 개 들고 걷고 있냐며,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다.

그리고 나는 워킹스틱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주 흔하고 세심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워킹스틱, 페페와 페도라 그리고 단테에게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하고나니 좀 더 확실하게 와 닿았다. 단테는 나무지팡이였고, 나머지 둘은 가게에서 산 스틱이었다. 여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시와 제임스는 이 나무지팡이를 버리고 더 가벼운 것을 새로 장만하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단테와 너무 정이 들어서, 그냥 버리지는 못하고 묻거나 화장을 시켜줄 생

각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그들은 우연히 단테를 알베르게에 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페도라가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나를 만나기 한 시간쯤 전에 그들은 마을을 헤매다가, 작은 메모가 걸려있는 단테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 메모에는 “제가 알베르게에서 스틱을 잘못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찾아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부엔 까미노!!” 그들은 자신들의 스틱을 되찾아서 정말 기뻐했다. 단테를 잃고 난 후에, 그들은 그 소중한 깨달게 된 것이다. Sheryl Crow가 불렀던 Soak up the Sun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갖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이 커플에게서 순례길의 정신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끊임없는 미소는 전염성이 있었다. 생각나는 호주 음식이 별로 없어서, 나는 그들에게 베지마이트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바로 킁킁대며 웃으면서 Happy Little Vegemites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우리는 행복한 작은 베지마이트
우리는 밝고 명랑하지요.
우리는 모두 베지마이트를 좋아하지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티타임에도 먹어요.
우리 엄마는 매주 매주
우리가 자라서 더 힘이 세질 거래요.
왜냐면 우리가 베지마이트를 좋아하니까요.
우리는 베지마이트를 사랑해요.
베지마이트의 볼이 빨개졌어요.

들어보니, 호주에 있는 아이들이 이 짧은 광고노래를 외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별다른 호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노래를 거의 다섯 번이나 불렀다. 그들의 열정은 식지가 않았다. 시기적절하게, 우리는 간식을 먹기에

적당한 마을을 만났다. 나는 그들과 함께 30분 정도 휴식을 즐기고는 다시 길을 나섰다. 짧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자, 나는 옷을 벗어야했다. 이맘 즈음, 순례길의 온도는 아침엔 4도 정도였다가 오후에는 16도가 넘게 오르곤 했다. 나는 바지에 달린 지퍼를 풀어 바지 밑단을 없애서, 긴바지를 반바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모자와 장갑 바람막이 외투를 가방에 넣었다.

잠깐 쉬려고 멈춰있는 동안, 나는 내 신발의 깔창을 살펴보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순례길이 내 신발을 헤지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파타고니아 신발의 오른쪽 깔창에 새겨져있는 까만색의 네모난 이빨 무늬가 사라진 것이다. 나는 그 모양이 산티아고에 도착할 때까지 남아있기를 바랬지만, 그러려면 매일매일 잘 관찰해야 할 것 같았다.

Fat Boy Slim의 Praise You 노래의 음악의 힘으로, 나는 커다란 언덕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듀란은 키보드가 됐다가 마이크가 됐다가 했다. 나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떤 미친 대머리 미국인이 순례길을 혼자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다며 이메일을 보내거나 일기를 쓰지는 않을까 궁금했다. 나는 종종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나의 순례자 친구들에 대해 기고하고는 했다. 그래서 나는 혹시 또 누군가가 나를 비슷한 방법으로 세계 이곳저곳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이날 나의 마지막 종착지는 폰세바돈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었다. 중세시대 12세기 동안에는, 이 고립되어있던 아주 작은 마을은 순례자들에게 유명한 장소였다. 하지만 1990년대가 되자, 새로운 철도와 도로가 이 마을을 멀리 우회해서 났고, 인구는 줄어들어 겨우 두 가구만이 남았다. 최근에는 순례길에서 재기 사업을 벌여, 지역 상인들로 하여금 900미터가 넘는 메인 거리의 무너진 상권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는 이정도로 쇠퇴 하고 있는 상태의 다른 마을은 본적이 없다. 한 건물의 지붕은 35개의 다른 건물의 조각을 이어서 만들어냈었는데, 초록색 자동차의 본넷과 앞 유리창까지 사용하였다. 나는 이 지붕 사진을 찍어두었다. 어느 은둔자가 12세기에 이곳의 교회와 병원을 지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날 하룻밤을 지내보니 왜 그

런 느낌이 들었는지 알 것 같았다.

나는 네 곳의 순례자 호스텔 중에 세 군데를 돌아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네 번째도 찾아가 보았다. 교회 알베르게의 현관에는 두 명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앉아있었다. 그녀들은 이곳이 이 작은 마을의 진정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설득했다. 그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온 조안과 브라질에서 온 제나라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을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경험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 숙소는 그라농에서 머물렀던 곳과 비슷한 교회식 호스텔이었다. 교회 교구에서는 까미노 순례자들을 돌보는 것을 그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숙박비 대신에 약간의 기부금을 받고 그 돈으로 공동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한다. 나는 아직까지는, 전에 그라농에서의 숙소와 비슷하리라는 한줄기 희망을 품고서, 이날 밤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하고 있었다.

가이드북에는 이 알베르게가 18개의 침대를 가진 차분하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묻어나는 곳이라고 쓰여 있었다. 잠자는 곳의 공간은 침대 10개 정도가 들어가기에 알맞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 비좁은 공간의 17번째 침대를 사용하게 되었고 18번째 침대에는 내 짐을 좀 올려둘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가졌다. 나는 코딱지만 한 샤워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작은 문을 통과하려고 내 머리를 거의 90센치미터 까지 숙여야만했다. 내가 몸에 거품 칠을 할 때 마다 팔꿈치가 작은 샤워 칸막이에 쿵쿵 부딪쳤다. 만약에 비누라도 떨어트렸다면 샤워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지만 다시 주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독일에서 왔다는 이 숙소의 봉사자 미구엘은 14일간의 봉사활동 기간 중에 첫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약간 이상한 친구였다. 나는 작은 싱크대에서 빨래를 한 다음에 원심회전 건조기를 봤을 때, 너무 반가웠다. 나는 기계 플러그를 꽂았는데, 그때 미구엘이 어디선가 재빨리 나타나서 나를 질책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내가 규칙을 어겼다는 것은 확실해보였다.

나는 늘 하던 일들을 끝마치고, 샤워를 한 뒤에, 책상에 앉아 메인 거리를 바라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캐나다에서 온 제닌을 비롯해서 몇몇 재미있는 사람

들을 만나게 되었다. 제닌은 제법 술에 취해있었는데, 약간 취기가 올라온 것보다는 좀 더 상태가 심해보였다.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고주망태였는데, 열빠진 사람처럼 행동했다. 나는 제니라와 조안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후 그들은 내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거의 한시간정도 길 잃은 동물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있었다. 엄마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이 우리를 쳐다보다가 자기들 영역에서 새로운 보금 자리를 찾으려 데크 밑으로 들어갔다. 그때 종을 매단 염소 일곱 마리가 숙소 현관에서 어슬렁거렸다. 염소들은 허물어져가는 건물을 오르내리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개들이 음식을 얻어먹을 곳을 찾아 헤매면서, 줄을 지어 지나갔다.

나는 우리 방의 마지막 침대를 차지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을 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바로 위층 침대를 비워주려 내 옷가지를 정리해 주었다. 나는 이 비좁은 방에서 내 짐을 놓을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제닌이 거의 만취상태로 거나하게 취한 채 나타났다. 그녀는 꽤나 매력적이어서 금방 이방에 있던 다른 젊은이들과 술김에 시시덕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제야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호스텔을 좋아하는 이유가 유로로 기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폰세바돈을 전 후로, 나는 이런 고주망태가 된 순례자들을 단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제니라와 나는 단체 식사를 준비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사령과나 미구엘이 우리에게 7시까지 출석해서 식사 준비를 시작할 것을 명령했지만, 정작 그는 7시 반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거의 16명의 불안하고 배고픈 순례자들은 음식 준비를 도울 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구엘이 사람들에게 일을 배정할 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제니라는 양파를 썰는 첫 번째 임무를 받았다. 그녀가 세 번째 양파를 썰 때, 미구엘이 스페인어로 “더 작게, 더 작게.”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가 저 정도의 양파 사이즈도 불만이라면, 나는 내 빵 썰는 솜씨를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는 한명 한명씩 미구엘로부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통제당하면서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나는 제때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냥 숙소로 돌아와 눈만 감으면 바로 잠들 수 있기를 바라며 침대에 누웠다. 혹시 몰라서, 나는 불면증약

한 알과 신경안정제 반 알을 먹고, 귀마개를 하고 내 실크 수면 마스크를 썼다. 나는 재빠르게, 배고픔보다 잠을 선택했다. 근데, 교도관이 감옥의 죄수 숫자를 세다가 하나를 빼먹었나보다. 미구엘이 내 침대로 다가와 인간 알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흔들며 깨웠다. 그래도 나는 정중하게 만국 공용어인 보디랭귀지로 그냥 침대에 있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열아홉 번째 날

기적의 신발

“일찍 잠들면 일찍 일어난다.”라는 속담이 내 19번째 여정에서 최소 앞에 절반은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새벽 5시 반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조그만 식당에서 재빠르게 내 짐을 꾸리고 있었다. 대체로 나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했기에,” 찬장에 있던 바구니 속의 빵과 버터 그리고 잼을 발견하고는 매우 기뻐했다. 식탁 위에는 16인분의 테이블매트가 깔려있었고, 커피 잔이 놓여있었다. 나는 어제 저녁 밥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으려 빵을 양껏 먹었다. 존경스럽게, 나는 마치 아무도 부역에 없었던 것처럼 테이블과 먹었던 흔적을 깨끗이 치웠다.

나는 짐 정리를 다 끝내고 6시 반쯤 숙소를 떠나려고 하고 있었다. 불행히도, 그때 미구엘이 나타나, 내가 식당에 있는 모습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 신의 간섭을 통해, 그는 나에게 그 누구도 6시 반 전까지는 식당에 들어 올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에 내가 빵을 잔뜩 먹은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는 나를 전기충격기로 고문할지도 모른다.

어둠속에서 길을 걸으면서, 나는 이 은둔자의 도시를 끝마쳤다는 것에 진정으로 행복했다. 나는 낯선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썼지만, 어젯밤에는 그 무엇도 제대로 알아낼 수가 없었다. 아마도 이곳에서의 경험은 나의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다른 알베르계에서의 밤을 감사하게 여기도록 하려함이 아니었을까. 조안과 제니라와의 우정이 깊어진 것은 확실히 소중한 경험이었다. 며칠 뒤 조안을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때 숙소가 좀 이상했다고 말을 꺼냈다. 그녀는 웃으면서 제니와 술에 취한 그녀의 남자친구가 자기 침대 위층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잠을 설쳤다고 말했다. 이번 마을을 전후로, 나는 이렇게 이상한 알베르계는 겪어보질 못했다.

평소처럼, 나는 다시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만 한다. 나는 심란했던 정신을 맑

게 비우고, 다시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둠속에서 중요한 동상을 지나쳐 걸어가고 있었다. 그 동상은 크루즈 데 페로라는 철 십자가 동상이었는데, 커다란 통나무 위에 세워져있었다. 순례길에는 순례자들이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돌을 가져와 이동상 아래에 던지는 전통이 있었다. 나는 거대한 돌무더기를 보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긴 했지만, 다음날 아침에 이 전통에 대한 글을 읽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아채지는 못했다.

내가 이날 어둠속에서 놓치고 온 그 동상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일출을 보게 된 순간 까맣게 잊혀졌다. 앙리 마티스도 내 눈앞에 펼쳐진 색의 조합은 그려낼 수 없을 것이다. 정상에 오른 다음부터는 엄청난 내리막길이 펼쳐졌는데, 장장 12km에 걸쳐서 3000피트를 내려가야 했다. 첫 하강 구간에서 우연히 뒤를 돌아봤는데, 어둡하고 험준한 산의 나무들이 장엄한 파스텔 색 햇빛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지평선 위로는 선명한 구름들이 떠있었다. 길이 너무 가팔라서 나는 잠깐 내리막길을 걷고는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다.

나는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진을 찍고 거의 40분 동안이나 뒤돌아서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다보았다. 나는 바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계속 뒤돌아보기만 하다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출이 주는 깨달음을 통해, 나는 서둘러 나아가고 일을 진척시켜야하는 것만 아니라면,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생각했다. 과거를 돌아볼 때는 언제나 좋았던 일이 좀 더 많이 생각나고, 안 좋았던 일은 상대적으로 덜 생각나는 것 같다. 확실히, 이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나는 폰세바돈에서 있었던 일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느라 나는 내 두발과 다리를 내주어야만 했다. 첫째 날 걸었던 피레네 산맥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가파른 언덕길은 없었다. 순례길은 단순히 가파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험한 돌길이기도 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인 산악자전거를 이 정도로 가파른 길에서 타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다. 아마 이렇게 험한 길에서는 절대로 탈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휴식을 취할수 있는 아세보라는 예스러운 작은 마을의 도착해서, 햇볕도 좀 쬐고 간식도 좀 먹을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다. 나는 작은 호텔 안으로 걸어들어 갔는데, 그곳은 쉬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커다란 모닥불이 로비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이 매력적인 쉼터의 주인이 자랑스러운 듯, 바 뒤에서 나를 맞이했다. 그는 나에게 맛있

는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건넸다. 아늑한 공간의 바닥에는 커다란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가 누워있었다. 모닥불의 불꽃이 내뿜는 온기 덕분에, 나는 최상의 따뜻함을 즐길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거의 한 시간가량 앉아서 가이드 책을 읽었다.

나는 점심식사 전까지 몇 시간을 더 걸었다. 나는 벨기에에서 온 마차라는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는 그녀를 지난 며칠 동안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동행하기로 했다.

그녀와 함께 걸으면서, 나는 그녀의 순례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2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세 명의 다 큰 자녀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37살이었다. 5년 전쯤인가, 그녀는 6년 동안 만나왔던 남자에게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별을 통고 받았고, 그녀는 충격을 받고 1년 동안 실의에 빠져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혼자가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녀는 매년 10일씩 순례길의 일부를 걸었다. 그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순례길 800km를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걷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럼요, 혼자 걸으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이 제가 혼자되는 법을 배우게 해줬어요.”라고 대답했다.

“와, 그건 뭔가 총살형 집행대위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혹시 물에 뛰어들지도 않았는데 발이 젖을 걱정 먼저 하는 건 아닌가요?”

“어머, 그렇게 생각해보지는 못했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또 하나 여행하면서 배운 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절대 혼자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낯선 사람들이 이 길을 찾아오고, 우리는 모두 함께 걷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똑같은지 알게 되죠. 이 순례길 위에서 우리 순례자들은 모두 가족인거죠.”

우리는 폰페라다라는 또 다른 큰 도시에서 하루 일정을 마무리 했다. 독특한 생김새의 가스틸로 델로스 템플라리오가 도시 위로 솟아있었다. 그것은 마치 동화에 나오는 성처럼 생겼다. 나는 라퐁첼이 높은 탑에서 머리를 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생각났다.

우리는 꽤 길었던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남은 체력을 다 써서 피곤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날 호텔에서 묵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마을 근처에서 적당한 호텔을 찾았다.

나는 샤워와 빨래를 마친 후, 짐을 정리하면서 잠깐 낮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내 신발 밑창을 보고는 심장이 멎을 뻔 했다.

거기에는 누가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는 큰 구멍이 나 있었고, 남은 순례길을 마치기에는 그 구멍은 너무 커지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침착하게 대안을 생각했다. 인생에서 역경은 빠질 수 없는 것이고, 이번 일은 또 다른 경험을 위한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내가 생각한 첫 번째 방법은, 마드리드나 부르고스같이 가게들이 좀 더 많은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새 신발 한 켤레를 나에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은 왠지 나의 완벽한 여행을 방해할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종종 나의 산티아고 여정을 멈추게 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낡은 신발 때문에 그만두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생각한 마지막 방법은 동네에서 신발가게를 찾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이 방법을 도전할 자신이 별로 없었다. 여기에는 월마트, 레이스 쇼핑몰, 홈 디푹이나 메이시스 백화점이 없기 때문이었다. 대신에 빵가게에서 빵을 사고, 약국에서 약을 사고, 꽃가게에서 꽃을 사며,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살 수 있다. 순례길 위의 95%정도 되는 작은 마을에서는 작은 침실 정도의 크기의 구멍가게만 있다. 혹시라도 내가 신발가게를 발견한다 치더라도, 늘 문이 닫혀 있었다. 주중에 스페인에서는, 가게들은 오직 한정된 시간에만 문을 열었다. 게다가 토요일에는, 그 시간이 적어져서, 겨우 몇 시간만 영업한다. 일요일은 교회를 가는 날로 휴무를 엄격하게 지킨다. 일주일 내내 시에스타가 있으며, 그 시간은 대개 오후 두시에서 다섯 시 사이이다.

이번 마을은 인구가 6만 명이 넘어서 다른 대부분의 도시들보다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였다. 나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만약에 새 신발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아마 동네 신발 수선가게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나는 제법 운이 따랐는지, 나는 내 호텔 바로 맞은편 가게의 창문에 등산화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기 때문에, 나는 한 시간 가량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가게 주인의 시에스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푹 쉬고 난 가게 주인이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다. 내 신발 사이즈는 310인데, 대부분의 스페인 남자들이 신는 신발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였다. 가게 주인은 그의 조그만 창고로 들어갔다가 내 발을 간신히 덮을 신발 한 짝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나는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과 비슷하게 생긴 여성용 신발 한 짝을 쇼윈도에서 발견 했다. 주인은 고개를 저으면서 창고로 다시 들어갔다. 잠시 뒤, 놀랍게도 그는 한사이즈 크긴 했지만, 딱 내 것 같은 신발 한 켤레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나는 약간 큰 사이즈가 걱정됐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에게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신발은 신발을 길들이는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은 항상 필요한 것을 내어준다고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보다 좀 더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

나는 새 신발을 신고 이 도시를 걸어 다녀 보기로 했다.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서, 나는 두 시간 가량 이 마을의 관광지와 가게들을 돌아다녔다. 새 신발은 발꿈치 부분에서 미끄러웠지만, 나는 내일 아침에 양말을 두 개 신으면 좀 고정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식당에 들러 피자를 좀 먹었다.

나는 잠에 푹 빠져 있다가, 아름다운 백파이프 연주 소리를 들으며 깼다. 창문을 열자, 한 남자가 관광객들을 위해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장례식에서 백파이프 연주를 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늘 이 아름다운 연주 소리를 들으면 언젠가 다가올 그날의 슬픔을 함께 느끼곤 했다.

스무 번째 날

포도밭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파타고니아 신발을 신고 걷는 두려움이 나의 산티아고 완주의 꿈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 신발은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걱정됐다. 내가 가진 브리얼리 가이드북에서는 절대로 순례길에서 새 신발을 신고 걷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두세 켤레의 양말을 신고 새 신발을 신고 나서, 배낭을 지고 호텔을 나섰다.

나는 빨간 니트 모자를 쓰고 있는 두 명의 여성들을 만나기 전에 간신히 도시를 빠져나왔다. 그녀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온 안네와 멜린다였다. 그녀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면서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들은 나의 험 신발을 보고는 바로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흥미를 보였다.

나는 내 낡은 신발 한 켤레를 신발 끈으로 묶어서 내 목에 걸어 같이 걷고 있었다. 나는 불명예스럽게 완주하지 못한 이 신발을 순례길 위에 놓아두고 가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었다. 나의 새 친구들은 곧바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함께 고민해주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신발을 길 위의 표식 위에다가 돌지, 아니면 전기 줄에 매달아둘지 함께 의논했다. 우리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았지만, 적당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가진 뒤, 나는 이 남아프리카에서 온 여인들과 헤어지고 미국에서 왔다는 두 명의 남자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스톤에서 온 존과 몬타나에서 온 짐이었다. 짐은 어젯밤에 백파이프를 연주하던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나는 가이드북에서 백파이프를 순례길 추천 물품으로 권고 한 것은 본 적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존은 그 큰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내 목에 걸려있는 신발은 그들의 흥미를 끌었고, 내가 새 신발을 쉽게

살 수 있었던 행운에 대해 이야기 해주자 그들은 거의 경악했다. 짐 또한 키가 큰 편이어서 발이 컸는데, 그도 순례길을 걷던 도중에 새 신발을 사려고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제법 큰 도시인 부르고스에서 신발을 사려고 15시간을 허비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다. 내가 새 신발을 발견한 것은 정말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은 일이었던 것이다.

콜롬브라이언스 마을을 통과하는 동안, 나는 내 낡은 신발을 놓고 갈 적당한 장소를 찾았다. 나는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가리비 문양이 양각으로 새겨져있는 하얀색 순례길 표식 위에 신발을 올려놓았다. 갈색 돌 벽 앞에 놓여있던 그 표식은 내 신발의 색과 같았다. 길을 다니며, 나는 몇 켤레의 신발이 비슷한 장소에 놓여 있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신발의 나머지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내 구멍 난 깔창은 보이지 집으로 가져가 파타고니아의 내구성 보증 프로그램에 의뢰해보기로 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내 새 신발에 대해 집착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물집이 내 발등을 뒤덮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다. 4킬로미터를 걸을 때마다, 나는 멈춰서 신발 끈을 푸르고 양말도 벗어서 온 발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런 짓을 여덟 번을 하면서, 나는 이 신발의 특출 난 장점은 없지만, 그래도 망할 구멍이 난 신발 보다는 확실히 좀 더 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한 번, 막연한 두려움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현실 덕분에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 신발을 패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두운 색상이 확실히 내 순례길 옷차림을 보완해주고 있었다.

전날 있었던 신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내 순례길이 언제 갑자기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목을 삐끗 한다거나, 엄청난 물집이 생긴다거나, 발가락이 부러지거나, 아프거나 혹은 또 다른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이 여정은 갑자기 끝날 수도 있다. 이번일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나는 지금까지 20여일을 걸어왔고, 앞으로 8일의 여정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동안 매일 평균 30킬로미터를 걸어왔지만, 남은 기간 동안은 하루에 19킬로미터 정도를 걸어 산티아고를 향해 순항하듯이 걸어가기로 계획했다. 내가 순례길의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만약 그날의 미묘한 바람, 따뜻한 태양, 불규칙하게 변하던 구름을 섞어서 칵테일을 만든다면, 아마 제임스본드 마티니와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초지 위에 부는 바람은 달콤했고, 태양은 걷는 동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다. 흘러가는 구름은, 기분 좋은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는 온도조절장치 역할을 해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서 나는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나무껍질이나 벽돌의 패턴, 젖은 길가, 시멘트 묘비, 내 워킹스틱처럼 특이한 사진도 찍었다. 굳이 사진을 찍을 것을 일부러 찾아 헤매지는 않았지만, 순간을 기록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나니, 나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나의 일상의 여러 모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때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 남자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찡그린 얼굴을 하고 다리를 절면서 걷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 그를 도와주려 했지만, 서로 다른 언어의 장벽이 대화를 방해했다. 그는 청바지 속의 무릎을 가리켰다. 그는 양쪽 다리의 무릎 아래쪽을 자전거 타이어 튜브로 꼭 묶어 났었다. 고통을 참기위한 그의 필사적인 노력에 나는 놀랍기도 하고, 또 무엇이 그를 계속 걷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우리는 모두 제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순례길을 걷고 있었고, 우리의 자아라는 녀석은 엄청나게 힘이 센 놈이었다.

이날은 메세타 고원의 평지에서 초록색 잎이 무성한 포도밭이 펼쳐진 언덕으로, 갑자기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다. 포도나무는 모두 잘 여문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려있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포도 몇 알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다. 커다란 사시나무 과수원에는, 나뭇잎이 노란색으로 물들어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지역의 포도밭과 집, 마을은 바스크 지방의 것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모습이였다. 오후 내내, 순례길에서는 트랙터들이 줄지어 바퀴를 굴리며 달렸고, 커다란 수레로 물기를 머금은 초록색과 보라색의 포도들을 실어 날랐다. 나중에서야, 스페인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와인 생산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아름다운 마을 비야프란카 델 비에르쑤에 있는 도립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걷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나는 전날보다 약간 더 빨리 마을에 도착했다.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이곳에 동전 세탁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이번이 세 번째 빨래를 돌리는 것이었는데, 매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내 옷들이 거품목욕을 즐기는 사이, 나는 밖에서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면서 오후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빨래가 끝나자 옷가지를 들고 3층 침대방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내 침대 위층에 있는 남자가 자기 침대의 매트리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됐다.

좀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개인적인 습관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덴마크에서 온 미켈이라고 소개했다. 최근에 베드버그 때문에 한바탕 일을 치룬 뒤에 침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침대 실밥쪽에서 죽은 벌레를 하나 발견했지만 별로 심각해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빨리 내 짐을 싣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다. 나는 정중하게 환불을 요청했고, 새로운 숙소를 찾기 시작했다.

딱 하나 남은 다른 알베르게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이날은 호텔 샌프란시스코에서 묵기로 결정했다. 나의 완벽한 호텔 방에서는 마을의 광장을 볼수 있었다. 연이은 호텔 숙박은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지만, 뜻밖의 선물이 되었다. 나는 마을을 여기저기 살펴보며 시간을 보냈다. 멋진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분수가 있는 커다란 정원에서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인터넷 바를 발견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식당은 사람들이 북적이기에 나도 이곳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식당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미켈이 식당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미켈은 19살이었으며, 코펜하겐에 있는 장애아동 어린이집에서 일했다고 했다. 이 멀썩한 청년은, 그의 직장 상사가 그가 요구한 7주 동안의 휴가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을 그만뒀다고 했다. 어린이집 쪽에서는 4주간의 휴가를 제안했지만, 그는 스페인을 횡단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산티아고를 겪기 전에 나였다면, 그의 결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배우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행을 하고 있는 지금은, 그에게

산티아고를 걷는 것만큼 더 훌륭한 인생 수업은 없다고 생각했다. 밤이 무르익어 갔고, 그는 나에게 자신의 학생들에게 매일 엽서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의 학생들과 직장상사가 그가 덴마크로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확신했다.

나는 매우 흡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의 행복은 좋은 신발, 세탁기, 훌륭한 개인 호텔방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뜨거운 물처럼, 매우 단순한 것들이었다.

스물한 번째 날

오르막 길

나는 스물한 번째 순례길을 기대하며 산티아고 종착지로부터 18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침을 시작했다. 나는 이날 13킬로미터의 코스의 대부분인, 총 누적 높이가 해발 1097미터의 커다란 산 두 개를 넘을 만발의 준비를 했다. 첫 번째 산은 선택하기에 따라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나의 몸속에 끌어 오르는 남자의 자존심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깜깜한 어둠속에서, 나는 엄청나게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 5분쯤 지났을까, 한 나이든 남자가 반대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산을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불평을 했다. 나는 그 노인이 걱정하는 것을 그의 나이 탓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한 5분쯤 더 지난 후, 산을 거슬러 내려가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쯤, 내 몸은 슬슬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 무리 중 한 명은 남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멜린다였다. 그녀는 자기한테는 이 산이 너무 무리여서 내려가지만, 그녀의 친구 안나는 계속 오르기로 했다고 했다. 고작 300미터 정도 올라왔는데도 언덕의 경사가 정말 엄청났다.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며 내려가면서, 나를 염려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 무시무시한 경사의 길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동이 틀 무렵이 되자, 나는 산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만나와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산을 오르고 있었다. 나는 여러 번 고개를 들고, 사방에서 볼 수 있는 마을과 산등성이의 불빛을 바라다보았다. 한동안 힘들게 오르다보니,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로마사람들은, 스페인의 서쪽 끝에 있는 피니스테레가 세상의 끝이라고 믿어서, 귀족들이 죽으면 이곳에 묻는 것을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나는 이 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상에 다
다르자, 태양이 마법 같은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산등성이의 그림자가
열어지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산등성이의 소나무와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 멀리 있는 산등성이는 약간 갈색 빛으로 보였고, 가장 먼 곳은 아직 어둠속
에 있었다. 산등성이들이 멀리 보이는 지평선에 닿기 시작하면서 점차 회색 그림
자가 열어지고 있었다. 태양이 떠올라 햇빛이 온 천지에 비추기 시작하자, 주위
풍경이 시시각각 변했다. 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오를 때, 가장 멀리 떨어진 산들
이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산의 반대편으로 내려가자 음식을 파는 작은 바가 있었다. 나는 바의 입구를
들어가면서 뭔가 기적의 약이라도 먹은 기분이 들었다. 아침 등산으로 나의 몸과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빛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여기서 포르필라 데 빠따따와
성 야고보의 십자가가 파우더 슈가로 새겨진 아몬드 케이크인, 따르따 데 산티아
고를 처음으로 먹어 보았다. 이 케이크는 순례길의 오랜 역사를 상기시키는 음식
이었다. 중세시대로부터 전해지는 전통 요리법을 따르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바의 갑판에서, 십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큰 마을 공동 농장에서 감자를 추수
하는 것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챙이 짧은 모자를 쓴 노인이 운전하는, 작은 주
황색 트랙터가 땅을 갈고 있었다. 딱 한명 있던 여자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파
란색 원피스를 예쁘게 입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막 캐낸 감자 덩이들로 18개의
커다란 자루를 가득 채웠다. 그 장면은 마치 내가 한 번도 감자를 캐는 모습을
본적이 없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했다. 아이다호에 48년 동안 살
면서, 나는 땅에서 직접 감자를 캐내는 모습을 스페인의 트라바델로에서 처음으
로 보고 있는 것이었다.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면서 나는 재충전을 끝내고 다시 순례길로 돌아갔다.
다음번에 있을 엄청난 오르막길인 오세브레이도 전까지는, 내리막길과 긴 평지가
있다고 들었다. 그 후 몇 시간동안, 나는 길 위에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
안에 돌 위로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왼쪽
에서는 소들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 오른쪽으로는 양들의 방울소리를 들으며 즐
겁게 걸어갔다.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매일
매일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고 있었다.

맑고 파란 하늘과 완벽한 기온이 내가 갈리시아 지방에 온 것을 환영하는 것 같았다. 19세기에, 로마사람들은 이 지역을 로마왕국의 일부로 포함했다고 한다. 이 시골 지역은, 울창한 나무들과 장대한 산맥이 있는 아일랜드의 셸틱 섬과 비슷한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곳의 전형적인 기후인 무질서하게 내리는 폭우로, 이리저리 작은 개울과 강이 미로처럼 흐르고 있었다. 이 지역의 음식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콩과 초리초나 햄, 야채로 만들어진, 갈리시안 스투였다. 이 음식을 먹으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밀려드는 춥고 축축한 날씨 속에서, 온기를 가득 느낄 수 있었다.

이날의 마지막 등산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처음으로, 나는 오세브레이도의 끝없는 오르막길을 계속 오르려고 고군분투했다. 쉬는 시간 동안, 나는 돌로 만든 특이한 동상 앞에 있는 내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하루가 끝나고 찍은 사진을 보는데, 수많은 사진 중에서 미친 듯이 땀을 흘리는 대머리 남자가 있는 이 사진이 눈에 띄었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랐을 때, 나는 또 다른 세상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루에 두 번이나 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행운아인가.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내 눈에 띈 것은, 선반위에 최소 200개가 넘는 붉은 촛불이 놓인 입구가 인상적인,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교회였다. 이 교회는 19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순례길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이었다.

이 마을은 겨우 6개의 단지의 규모에다가 일차선 도로밖에 없었다. 마을의 모든 거리와 건물들은 똑같은 회색 돌로 만들어져있었다. 고작 50여명이 살고있는 이 작은 마을에는, 온갖 저렴한 산티아고 순례길 장식품을 파는 기념품 가게로 가득했다. 고속도로가 이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관광지화 되어버렸다.

이날 목을 알베르게 순타는 이 지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현대적인 숙소였다. 순례길의 막바지에 다다르자, 이런 식의 숙소가 흔해졌다. 이 숙소에 있는지 10분도 채 되지않아서, 나는 미켈, 지미, 톰, 프레드, 안나, 멜린다, 존, 제니라를 만났다.

늘 하던 일들을 마친 뒤, 나는 아이스크림을 찾는 미션을 가지고 마을 순찰을 나섰다. 한손에 더블 캐러멜 매그넘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담 위에 앉아서, 나는 오늘 내가 정복했던 산들을 바라다보았다. 나는 지평선 넘어 보이는 아홉 개의

다른 산등성이의 숫자를 세어보았다. 각각의 산등성이의 꼭대기들은 각기 다른 색으로 뿔내고 있었다. 나는 거의 한 시간동안 혼자 앉아서 조용히 그 광경을 감상했다. 그리고 나는 문득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오롯이 자연을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기까지, 48년의 세월과 517킬로미터의 순례길을 걸어야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프레드와 미켈, 호주에서 온 새 친구 조슈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당은, 난로의 깜빡거리는 불꽃이 시골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멋진 곳이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조슈아는 자신이 플랜파이를 너무 게걸스럽게 먹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최고의 플랜파이 10개를 테스트하는 중이라며 웃으며 말했다. 근데 이 파이의 커스타드 크림은 그의 입에 우겨넣기가 어려울 것 같아보였다. 내가 다른 맛있는 파이 10개가 어딘지 물어보자, 그는 입에 가득 든 파이 때문에, 닭 울음소리를 내면서 대답을 했다. 나는 그가 가슴을 부풀리며 꼬끼오 소리를 내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산등성이가 노을에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으로 물들어가는 풍경 속에서 함께 걸으며, 숙소로 돌아왔다.

스물두 번째 날

모든 식탁에서 당신을 환영 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산 정상에서 차가운 아침 공기를 느끼며, 어제 저녁의 노을만큼이나 장엄한 일출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어제 올라온 높이만큼 오늘 아침에 내려가야 했다.

나의 걷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비슷한 속도의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 걸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할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휴식시간에 나는 안나와 멜린다, 조안,제니라를 만났다.

제니라는 브라질에서 온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였는데, 나는 그녀의 열정이 전염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여 부정적인 기운으로 물들이기 전에 먼저 생각의 싹을 없애려고 하는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은, 그녀가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재능이었다. 근데 그녀는 아마 자신이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안나와 멜린다는 밝은 미소로 숙소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유쾌한 여성들이었다. 내가 그녀들에게 내 기적의 신발에 대한 모험담을 이야기를 하자, 멜린다는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순례길 초반에, 그녀는 신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주친 한 남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털어놓자, 그가 그녀의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았다. 사실 그 남자는 마침 그 날이 자신의 순례길을 끝내는 날이었고, 더 이상 신발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멜린다에게 신발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그냥 공짜로 받아서 이 신발을 잘 보살펴주겠다고 한다면 주겠지만, 만약에 돈을 주려고 한다면 자신은 신발을 그냥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그 신발은 그녀에게 딱 맞았고, 나머지 순례길 내내 잘 신고있다고 했다.

조안은 순례길을 좀 독특한 방법으로 완주하고 있었으며, 획일화 된 체계를 따

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다수의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산티아고에서 여정을 끝낸다. 몇몇은 스페인의 서쪽 연안에 있는 피니스테레까지 더 걸기도 한다. 하지만 조안은 산티아고가 그녀의 순례길에 대한 열정을 망칠수도 있는, 상술로 가득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본인이 생각한 이 속세에 찌든 곳을 피하기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 도시를 지나치고, 대서양 연안으로 향하는 그녀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는 순례길이다 끝나고 나면 지내려고, 무히아도시 외곽에 위치한 더 리틀 팩스 하우스라는, 수도원도 예약해두었다. 그곳은 아무것도 안하면서, 현실로 바로 돌아가기 이전에 여행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날 마지막 장소는 트리아카스테야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간식을 함께 먹기 위해서 따뜻한 햇볕이 드는 쪽으로 모여들었다. 이곳은 조안이 버스를 타고 산티아고를 지나치기 전에 머무르는 마지막 장소였다. 나는 이것이 순례길에서의 인연을 잘 마무리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모두 진심어린 작별을 나누고 나서, 각자 그날 묵을 숙소를 찾아 나섰다.

나는 쟈이라는 알베르게에 묵기로 결정한 제니라와 함께 남아있었다. 그런데, 함께 숙소를 둘러볼 때, 이 배포가 큰 브라질 여성은 이곳을 탐탁치 않아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본인 마음에 드는 다른 알베르게를 찾아냈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운이 좋게도, 방에 침대가 네 개밖에 없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알베르게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숙소를 발견한 것은 마치 순례길 위에서 상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심지어 보너스로, 내 방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안나도 호주에서 온 코트니라는 이름의 새로운 친구와 함께 같은 곳에서 묵고 있었다. 멜린다는 베드버그 때문에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호텔에 머무르기로 했다. 벌레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녀는 모든 옷가지를 가장 높은 온도에 맞춰 세탁을 했다. 그리고 빨래를 할 수 없는 물건들은 비닐봉지에 모두 넣어서 햇볕아래에 널어두어 벌레를 태워 죽이기로 했다.

마을을 걸어 다니면서, 나는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친구들 몇 명을 만났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이것은 이내 여러 명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시

간으로 바뀌었다. 친구들이 점점 더 나타나면서, 우리는 넘쳐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위 테이블을 한데 모았다. 첫 번째 코스 메뉴가 시작될 때 쯤, 나는 스페인에서 온 알베르토, 브라질에서 온 제니라, 남아프리카에서 온 멜린다와 안나, 덴마크에서 온 미켈, 버몬트 주에서 온 누, 호주에서 온 코트니와 함께였다.

순례길 위에서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그 어떤 식탁에서 환영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대화는 늘 희망적이고 기분 좋게 이어진다. 나는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즐겁게 모여 있는 다른 모임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여행을 하면서 이 때 쯤에, 나는 세계 각국에서 스페인으로 찾아온,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 마치 순례길이 모든 사람들에게겐 이퀄라이저같이 보였다. 길 위에서, 사람들은 종교, 나이, 직업, 부유함과 상관없이 평등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에서 잠을 잤으며, 우리 중 그 누구도 배낭에 금으로 만든 식판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상대방을 정의했다. 새로운 친구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나는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 더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 재산, 건강,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은 모두 보편적인 것들이었으며, 우리의 행복을 위한 즐거움을 무장해제 시키는 공통분모인 것이다. 처음 함께 걸었을 때부터, 우리는 마치 집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커다란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날 들었던 음악의 가사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 Tupac Shakur라는 가수의 Unconditional Love(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노래가 내가 순례길 동료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해보자. 그것은 희미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친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남을 것들이지.”

스물세 번째 날

집으로의 전화

사전에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친한 친구들이었던 나와 안나, 멜린다, 코트니와 함께 아침 일찍 트리아까스텔라를 출발하기로 했다. 우리는 헤드랜턴의 불빛에 의지해서 어둠속에서 뻑뻑한 나무숲을 오르기 시작했다. 오르막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머리위로 얽히고설킨 나무 가지로 만들어진 초록색 터널을 통과해서 걸었다.

코트니는 우리 속도를 따라잡느라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편하게 걷던 속도의 범위를 넓히고 싶어서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다. 첫 번째 언덕을 넘고 나서,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나는 음악을 좀 들으려고 헤드폰을 꼈다. Alanis Morissette이라는 가수가 뛰어난 가창력으로 부른 ‘You Learn’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끽했다.

이 지역은 작은 농가와 초지 농작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전경을 가진 구릉지대였다. 외딴곳에, 작은 바 하나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안나의 47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갓 짜낸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훌쩍이면서 친구들이 생일케이크를 대신할 엄청나게 단 페스츄리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들은 다음날 목적지인 사리아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순례자들이 합류하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많은 단기 순례자들은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사리아에서 코스를 시작한다. 순례자들은 산티아고에서 순례자 인증서 콤포스텔라를 받으려면 최소 두 개의 인증도장을 받아야 하고, 100킬로미터 이상을 걸어야만 한다. 이 콤포스텔라 인증서는 순례길을 무사히 완주했다는 증명서이다. 사리아는 산티아고에서부터 115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버스나 기차로 도착하기 쉬운 도시이다. 이런 이유들로, 이곳은 양피지 문서를 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코스를 시작하는 곳이 되었다.

친구들 중 한명이 순례길을 막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길을 가득 메울 것을 걱정해 투덜거리는 것을 보니 나는 기분이 좀 언짢아졌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다시 한 번 편견 없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단지 우리들이 생장마을에서 순례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순례길을 차지할 수도 없으며, 순례길의 수많은 모습을 독점할 권리는 없다. 시간적 체력적 여유가 돼서 800킬로미터를 모두 완주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도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대신, 길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순례길에서 첫 발을 내딛을 때 많은 도움이 필요했듯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돕고 응원할 것이다.

경험 많은 순례 여행자들 사이에서 초보자를 찾아내는 것은 아주 쉽다는 재밌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순례길을 걷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걸으면서 살이 빠지게 된다. 그들이 말라가면서, 바지는 점점 헐렁해진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입 순례자들은 아직 바지가 엉덩이에 딱 맞을 것이다.

아침식사를 먹고 나서, 나는 다시 순례길로 되돌아와 19킬로미터를 더 걸어 사리아에 도착했다. 사리아는 인구 13,000명이 살고 있는, 순례길에 있는 다른 마을보다 제법 규모가 큰 도시였다. 마요르 광장에서 나는 방긋 웃고 있는 아홉 명의 친구들을 만나, 안나의 생일을 계속해서 축하해주었다. 안나에게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나서, 일행 중 세 명은 안나와 함께 다음 마을까지 계속 걷기로 했고, 나머지는 사리아에서 숙소를 찾으러 흩어졌다.

안나는 미소 띤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인사와 포옹을 나눴다. 그녀를 배웅하면서, 남은 사람들도 모두 안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길 위에서 수많은 작별인사를 했어도 작별인사는 여전히 힘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다. 또 새로운 누군가가 나에게로 다가와 무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서로를 보듬고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끝내면 다시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남기고 떠나가며, 많은 것들을 타인과 함께할 것이다.

나는 이날은 개인적인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독방에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펜션에 묵기로 했다. 숙소를 찾아 헤매는 동안 나는 미켈과 프레드와 마주쳤다. 이런 식의 우연은 남은 여행 동안 늘 벌어지는 일이 되었다.

샤워를 하고 빨래를 마친 뒤, 멋진 나무 판넬 길로 둘러싸인 야외카페가 많이 있는, 마을 변두리에 있는 작은 다리로 돌아갔다. 나는 그곳에서 한시간 가량 일기를 썼다. 그날 저녁에, 나는 동네 피자 가게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사리아에서, 나는 로베르타와 전화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부스를 발견했다. 가게 앞쪽에서는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다. 뒤편에는 세 개의 전화 부스와 다섯 개의 컴퓨터가 놓여있었다. 전화부스는 환기가 잘 안 되어서 안 그래도 이미 더운 바깥 공기보다 20도 정도 더 더웠다. 나는 그 뜨거운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있을 로베르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았다. 아파서 그렇다고 변명을 했지만, 내 느낌에는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난 뒤, 나는 남동생과 친한 친구에게 두통의 전화를 더 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그들이 내 전화에 관심을 가져주어 기분이 너무 좋았지만, 로베르타는 시큰둥했다는 생각에 우울해졌다.

나는 점심때 바 엘리스에서 가수 스팅과 똑 닮은 친구, 스티브가 나에게 했던 말을 되 뇌이며 실망스러운 그녀와의 전화를 잊어보려 애썼다.

“로베르타와의 일을 곱씹느라 소중한 순례길에서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는 이렇게 조언했었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아마 저절로 해결 될 거야. 나중에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잘 있을 거야.” 보이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오랜 헤어짐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가 말한 것은 사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었다.

스물네 번째 날

택시의 유혹

스물네 번째 날은 고작 22킬로미터밖에 걷지 않은, 비교적 짧은 여정을 보낸 날이었다. 딱히 안식일을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날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7킬로미터 정도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걸은 날이었다.

나는 아일랜드에서 온 매기라는 젊은 여성과 우연히 만났다. 우리는 고작 15분 함께했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은 뇌리에 박혔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흥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으며, 순례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우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가 커피를 마시고 싶을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갈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 의사를 보이고 계속 길을 걷기로 했다.

이쯤 걸었을 때, 나는 홀로 서있는 회색 돌로 지어진 농가를 지나게 되었다. 앞뜰에는 대략 여덟 명쯤 되는 독일 남자들이 원을 그리며 서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층 창문에서는, 한 여자가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턱을 괴고 노래를 듣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나는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근데 내 행동이 그 상황에 적절하지 못했는지, 독일 남자들은 못마땅해 하며 나를 쳐다봤다. 얼핏 보니, 아마도 내가 굉장히 사적인 이벤트를 침범한 것 같았다. 아마 나는 결코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나는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다시 한 번, 나는 울창한 나무가 있는 구불구불한 언덕을 걷게 되었다. 산티아고까지 겨우 100킬로미터 남았다는 표시를 보자 내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이만큼 걸어왔다는 것과 산티아고까지 남은 날이 겨우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날은 별일 없이 무사히, 오후 일찍 종착지인 포르토마린에 도착하였다. 이 마을에서, 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역사가 변해온 과정을 볼

수 있었다. 1960년대에 이 마을에 댐을 짓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있었던 역사적인 교회 건물의 돌 하나하나를 해체해서 고도가 높은 곳에 다시 재건했다. 오래된 옛 로마 수교는 수면 바로 위에 있었고, 이 다리의 30미터 위에는 새로 지어진 다리가 놓여 있었다. 강물이 수 백 년 동안 계속 흐르듯이, 역사가 있는 이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순례길의 회복력에 다시 한 번 경이로움을 느꼈다.

나는 알베르에게 체크인을 하고 내 침대를 배정받았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켈이 내 침대 바로 위에서 묵게 되었다. 이곳의 방에는 최소 50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같은 이층침대에 자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다. 나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멜린다와 안나를 만났다. 나는 그녀들과 함께 렌탈콩 스프를 한 그릇 먹었다. 어제 우리가 작별인사를 나눌 때 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나는 그녀들에게 나머지 하루를 함께 보내자고 설득했지만, 그녀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날짜에 산티아고에 도착하려면 하루에 30킬로미터씩 걸어야만 했다. 우리는 택시 이야기를 하며 농담을 했지만, 결국 그녀들은 작별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순례길 위에서 택시는 최후의 유혹이다.

벽, 나무, 표지판과 같이, 눈길이 가기 딱 좋은 위치에 다양한 회사의 “택시 서비스” 광고지가 붙어있어서 순례자들을 언제 어느 때나 전화할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다. 순례길의 주요 교차지점에서는, 길 바로 옆에 택시를 세워두고 승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한다. 운전자들은 순례자들의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차를 몰면서, 저렴한 요금과 친절함, 휴식, 편안함, 빠른 속도,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며 유혹한다. 가끔씩 그런 그들을 보고 있으면, 약한 먹잇감을 낚아채려는 매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택시가 제법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택시는 사람을 날라주는 것뿐만 아니라, 숙소에서 다음 숙소까지 배낭을 이동해 주기도 한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작은 배낭 하나만 매고 길을 걷는 것을 선호하는 순례자들도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택시는 순례길 위에서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어찌되었든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서비스

이다.

하지만 나에게 택시는 그저 유혹일 뿐이다. 만약에 어느 날 내가 택시로 가방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니면 그냥 나에게 하루 휴식을 준달지. 심지어 나는, 택시를 타서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서 “나는 순례길을 전부 걷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빠른 이동에 흥미진진함을 느끼는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것처럼, 택시는 나에게는 그저 일어나지 않을 판타지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미켈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바에서 많은 동네사람들과 함께 마드리드 와 바르셀로나의 축구경기를 관람했다. 미국에서 온 나는 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거의 없었다. 미켈은 웃으면서, 이번 경기가 올해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일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한때 프로 축구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포기하고,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다시 한 번, 나는 이 젊은 청년에게 감탄하게 되었다.

나는 동네 사람들로 가득한 바에서 신나게 경기를 보았다. 그곳은 사람들이 꽉 차있어서, 우리들은 가능한 모든 의자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만 했다. 바의 뒤쪽에는 서있을 공간만 남아있었다. 축구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가 갔지만, 규칙이나 특수한 경우는 여전히 나에게겐 생소했다. 미켈은 나의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축구경기를 끝까지 봤다. 마지막에 경기는 동점으로 끝났다. 내가 연장전에 대한 것을 질문했을 때, 미켈은 피곤한지 탄생을 부리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켈에게 내가 좀 일찍 길을 걷기 시작하는 편이라, 내일 아침에 우리가 못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스물다섯 번째 날

비

아침에 일어나보니, 내 침대 위층의 미켈의 자리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기척도 없이 이동한 그의 움직임에 놀랐다.

이날 내가 만난 첫 번째 친구는 남아프리카에서 온 글랜다였다. 그녀는 호주에서 온 똑같은 이름의 글랜다와 함께 걷고 있었다. 글랜다1은 글랜다2가 부상을 당해서 혼자 걷고 있었다. 글랜다2가 택시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먼저 숙소를 정리해 놓고, 저녁에 다시 재회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우리가 아침식사를 끝내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나는 처음으로 비옷을 입을 기회가 생겼다. 비옷을 입은 새로운 모습은 충분히 사진을 찍어둘 만한 가치가 있었기에, 나는 글랜다에게 내 카메라로 내 사진을 몇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아서, 나는 새로운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날씨 운은 실로 경이로운 것이었다. 나는 이 지역에서 몇 주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비 때문에 씨름하는 대신에, 나는 이 촉촉한 날씨 때문에 생겨난 울창한 우림의 멋진 광경을 즐겼다. 어둑한 하늘과 대조적이게 빗물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는 길 위에서 혼자 걸으며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 길을 따라서 수국 울타리가 있었다. 최근에 내린 비 때문에 수국이 만개해 있었다. 걷는 길은 점점 더 해안우림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대서양과 나 사이에 남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커다란 돌풍에 실려 온 짙은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었다.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나는 남아프리카 국기가 걸려있는 알베르케를 발견했다. 안뜰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 안나와 멜린다가 앉아서 스텝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재회한 것에 놀라워하며, 함께 커피와 케이크를 먹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작별인사를 했지만 웬지 이것이 마지막이 아

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리아를 떠난 이후로는, 알베르계의 숫자와 질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지금같은 가을 시즌에는 침대가 넉넉하지만, 여름시즌이 되면 “100킬로미터” 순례자들이 많아져서 숙소가 부족할 것 같았다. 이날, 나에게는 숙소 선택의 가짓수가 많았다. 팔라스 데 레이에서, 나는 네 곳의 숙소를 지나치고 알베르계 부엔 까미노를 선택했다.

그곳의 로비는 최신식으로 잘 꾸며져 있었다. 주인은 나에게 네 개의 침대만 놓여있는 방의 한 구석을 내어주었다. 나는 봉사자를 따라서 배정받은 침대로 갔다가 미켈이 그 방의 침대 네 개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잠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중에 미켈에게 들어보니, 전날 있었던 숙소에서 자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새벽 4시에 숙소를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방의 나머지 두 침대에는 친절한 캐나다 커플이 묵게 되었다.

레온에서의 하룻밤을 제외하고는, 순례길의 거의 모든 숙소는 다 남녀 공용이다. 하지만 화장실과 샤워실은 대개 분리되어있었다. 하지만 부엔 까미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는 싱크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이 비좁은 공간에서, 나는 오른쪽에는 샤워실 문을 두고 왼쪽에는 화장실 문을 둔 채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샤워실 문이 열리면서 알몸을 한 일본 여성이 깜짝 놀란 눈을 하고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녀가 문을 닫을때까지 최대한 다른 곳을 응시했다. 나는 가끔, 이 놀란 여성이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할 때, 샤워실에서 마주친 거구의 대머리 미국인 남자 때문에 충격 받은 이야기를 하거나 앓을까 궁금하다.

나는 미켈, 프레드, 새로사귄 보니와 함께 멋진 식사를 했다. 갈리시안 스투는 나의 새로운 주 식사메뉴가 되었고, 우리는 맨하탄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나 나올 법한 신선한 연어를 마음껏 먹었다. 나는 우리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진 찍으며, 우리 여행의 즐거움을 증명하는 그들의 진정한 미소를 기록으로 남겼다. 잇몸을 드러내고 함박미소를 짓는 거짓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스위스에서 왔다는 미켈의 친구 데니엘을 만났다. 데니엘은 그의 집인 스위스 알프스에서부터 걸기시작해서 무려 2400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완주했다고 했다. 참으로 겸손해지는 만남이었

다.

마침내 나는 언젠가는 끝날 이 여행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산티아고에 도착 하고나서 삼일 동안 묵을 5성급 호텔인 엔에이치 오브라도이로 호텔을 인터넷으로 예약했다. 내가 산티아고에 도착하고 나서 다음 금요일은 스페인의 공휴일이였다.

나는 내가 순례길을 끝마치는 것을 죽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내가 이 길을 끝내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을까? 내가 길을 끝내도 되는 단계 인걸까? 심지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산티아고에 도착할 날은 3일이면 끝날 것 같았다. 이 순례길이 끝난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언젠가는 끝날 불가피한 날들 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웬지 이 여행이 끝나면, 나는 남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훌륭한 교훈을 얻 을 것만 같았다.

스물여섯 번째 날

흠뻑 젖은 날

아직 캄캄한 새벽 6시 전, 나는 일찍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계획해둔 알베르게가 있어서 오늘은 30킬로미터를 걷는 마지막 날이었다. 수요일에 19킬로미터, 목요일은 마지막 날로 20킬로미터를 걸을 예정이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만약에 노아가 살아있었다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을 관두고 싶어질 것 같았다. 프리사이즈 하나밖에 없던 비닐 우비는 그마한 체구가 아닌 나에겐 너무 작은 프리사이즈여서 거의 미니스커트처럼 보였다. 그 덕분에 이날 바지, 신발, 양말, 속옷 할 것 없이 전부 흠뻑 젖어버렸다.

추운 날씨와 끊임없이 내리는 비 덕분에, 어둠속에서 걷는 것이 힘들었다. 헤드랜턴으로 길을 비추기는 했지만, 걷는 걸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의욕이 떨어지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는데 때마침 마을에서 음식을 파는 곳을 찾아 다행이었다. 완전히 흠뻑 젖고, 배고프고 지친상태로 아침 8시 무렵 나는 바에 들어갔다. 내부의 온기와 주인의 미소가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었고, 덕분에 나는 우울했던 기분이 풀렸다. 바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헝가리에서 온 친구 주디였다. 그녀의 친구 애니는 걸기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며칠 뒤쳐져 있었다.

우리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는 모습은 마치 지친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고있는 것 같았다.

순례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휴식과 음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언제나 내 몸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주 휴식을 취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한조각의 토스트나 포르텔라 데 파타타같은 것이 내 에너지를 보충해줄 뿐 아니라 기분까지 바꿔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오랜 시간을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데 허비해왔기에, 이번 여행 중에 발견한 휴식의 고마움을 집에 가서도 계속 이 마음을 유지하고 싶었다.

나는 또, 이번 여행 중에 사소한 짜증이 더 큰 일로 커지기 전에 상황을 진정시키는 멋진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만약에 신발끈이 헐겁다거나 양말이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나는 바로 멈춰서 불편한 점을 수정했다. 사실 이런 일은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니었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었다. 새롭게 배운 이 습관도 집에 가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 중 하나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때는, 나는 “움직임”을 통해서라도 그 순간의 기분을 바꿔보려고 했다. 나는 땅에다가 워킹스틱을 꽂고 오른쪽 팔을 쪽 뻗어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러면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던 일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었다. 아마 이런 내 행동들은 그날 하루 내 기분을 알 수 있는 나의 능력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지루하게 걷는 패턴을 잠깐이라도 바꿔보고자 하는 속임수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뭐가 되었든, 이런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움직임은 언제나 새롭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이름 붙인 이 ‘생기를 되찾는’ 움직임은, 가끔은 무언가를 축하할 때 하는 행동이기도 했다. 뭔가 황홀한 기분이 들 때도, 나는 워킹스틱을 길 한 가운데에 꽂아두고 스틱을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돌며 춤을 추곤 했다.

여정의 끝이 다가오자, 내 몸도 그것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아프거나 피로를 느낀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끝이 코앞에 다가오자, 그동안 느껴지지 않던 아픈 곳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순례길을 걷던 초반에는 다쳐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거의 끝나갈 무렵인 지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치 지금 내 몸 상태가 언젠가는 끝이 날 내 인생의 후반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례자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또 다른 걱정거리는,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격을 문제들이었다. 우리의 파티가 끝나면, 순례길 위에서 가진 즐거운 일상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로베르타와의 관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주디는 산티아고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매우 피로해 보였다. 그녀의 체력은 높은 정신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목요일에 순례길을 끝마치고 월요일이면 바로 런던에 있는 회사에 복귀해야 했다. 나로서는 그렇게 급작

스러운 변화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바쁜 회사생활을 다 경험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동안 내가 걸어온 수많은 걸음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마지막까지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사실은 상상이 잘 가지 않았다. 산티아고 까지는 이제 겨우 38킬로미터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은 택시로 45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였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남은 이들의 여정을 내 두발로 다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우리는 바에서 나와 순례길이라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었다. 내가 걸어온 지난 25일간의 여정만큼, 지금 이 순간도 또 다른 놀라운 날이 펼쳐졌다. 나는 마음을 열고 나를 또 다른 존재가 아닌 자연의 일부로 생각해 보았다. 초반에 프랑스 피레네 산맥을 걸을 때부터 가졌던 이런 자연과의 교감은, 이제는 더욱 더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완전히 우림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구불구불한 길은 매번 코너를 돌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었다. 커다란 유칼립투스 나무들로 갑자기 주위 풍경이 바뀌었다. 몇 겹의 갈색 종이로 둘러싸인 것 같은 나무껍질은 쉽게 찢어질 것처럼 생겼다.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 있었는데, 마치 자연이 나에게 우산을 씌워준 느낌을 받았다. 넓게 펼쳐진 풍경 속에 개울, 구불구불한 언덕, 커다란 숲, 농작지와 옥수수, 돌다리, 초원이 모두 다 있었다.

흐린 회색 하늘 아래에, 나는 작은 묘지를 지나게 되었다. 이 오래된 길 위에는 공동묘지도 일상의 하나가 된다. 마을을 찾아오면 그들은 당신을 반길 것이고, 당신이 마을을 떠나면 그들은 작별인사를 건넬 것이다. 담벼락이 묘지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철문으로 만들어진 출입구가 있었다. 묘비 탑이 세워져 있어서 아래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묘지는 간단한 십자가만 꽂혀있는 반면에 몇 개의 묘지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관리해서 매끄럽게 윤기 나는 대리석 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깔끔하게 손질된 것은 몇 개 없었다.

나는 길을 걸으면서 대부분의 묘지를 지나쳐갔지만, 몇 곳은 들어가서 보기도 했다. 어떤 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죽음만큼 인생에서 확실한 것도 없으며, 끝이 없는 걱정과 추측으로 가득한 것도 없다. 묘지 올라

리 안에서, 나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항상 나갈 출구를 바라보며 서있고는 했다. 순례길이 마지막에 다다를 무려인, 이날은 굳게 잠긴 문을 보고도 나는 마음이 편안했다.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었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되었든, 관계의 끝이던, 그것도 아니면 내 순례길 여행의 끝이 되었던 말이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집중적으로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아루사에 있는 알베르계에서 묵기로 했던 계획이었는데, 도시에 도착할 때 썸 완전히 흠뻑 젖어버렸다. 그래서 도시 끝자락에 있는 호텔에서 자기로 계획을 바꿨다. 호텔은 제법 괜찮은 곳이었지만 마을에서 1.6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 흠이었다. 샤워를 하고 옷을 말리고 나서, 나는 저녁식사를 하려고 마을로 다시 나왔다.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나는 글랜다 두 명을 우연히 만나서 공원에서 한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젊은 그리스 친구인 유리나도 만나서, 우리는 함께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스물일곱 번째 날

끝나기 이틀 전

호텔에서 눈을 뜬 나는, 아주 오랫동안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하고 나서는 욕조에 물을 채워 족욕을 했다.

이날은 아루사 도시를 멀리 바라다보면서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은 완전히 안개로 뒤덮힌 날이었다. 산꼭대기가 마치 하얀 안개의 바다에 우뚝 솟은 섬 같아 보였다.

나는 별다른 일 없이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에, 구름으로 가득한 하늘아래의 풍경은 신성한 느낌이 들었다. 낮에 걷는 동안, 나는 내 비옷의 실밥이 풀려서 커다란 구멍이 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찢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조급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지만,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나의 마지막 알베르게는 아르까라는 마을에 있는 것이었는데, 아마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았다. 그 어떤 침대도 내 기다란 다리와 발이 걸리지 않았으며, 메모리폼으로 된 매트리스 위에는 침구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스텝들도 매우 유쾌했다.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내 옷가지들도 여행 중 네 번째 샤워를 즐기고 있었다. 두 명의 글랜다는 나와 같은 호스텔에 묵었는데, 우리는 옷이 마르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오후에, 나는 마을로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려고 노력했지만, 24시간 안에 산티아고에 도착할 것이라는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고향에 있는 로베르타도 분명히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내가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그녀한테 온 메시지가 있었는데 “당신이 산티아고에 도착한 것을 환영해, 사랑하는 로빈이.” 라고 쓰여 있었다. 그 짧은 메시지 하나로 나는 그녀가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너무 그리웠고, 함께 있는 우리가 그리웠다.

그날 저녁 길을 걸어 내려가다가, 나는 보니, 프레드, 미켈과 마주쳤다. 나는 이 멋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순례자 식사를 했다. 저녁식사가 끝나자 비사 쏟아지기 시작했고, 거리에 물이 고였다.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순례길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로 감회가 새로웠다. 이제야 순례길의 마지막 3분의 1이 “영혼을 위한 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이번 여행을 하기전에는, 내 인생에서 매우 적은 부분에 대한 만족감만을 느끼고 살았었다. 나는 언제나 후회와 구원이라는 것에만 사로잡혀있었다. 내 시간의 대부분을 우울했던 과거의 사건들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에 성취해야할 것들에 고군분투하며 보냈다.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었다.

순례길 위에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온 낯선 사람들은 나의 관점을 바꿔 주었고 나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나는 신체적으로도 강인함과 인내력을 가지게 되었다.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면서 피폐했던 정신도 많이 맑아졌다. 자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커졌다. 순례길은 나의 거친 모습을 없애준 것이다. 이전의 나라면 행복하게 만들려고 의미 없는 노력을 하려 애썼을 테지만, 이제는 일어난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얻은 소중한 선물들이며, 나는 이것을 집에 가서도 꼭 지켜낼 것이다.

스물여덟 번째 날

산티아고!

나는 마지막 날을 혼자 걸었다. 나는 그 어떤 잡념이나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걷고 싶었다. 이날 남은 하루 종일 날씨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거나 퍼붓다가 했다. 몸이 비에 흠뻑 젖었지만 옷이 젖은 것 정도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마 허리케인이 왔다고 해도 눈치 채지 못했을 것이다.

비가 내리자, 역경이 나를 낙담시키고 아픈 곳은 더 아려왔다. 이것들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들이었다. 순례길은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잘 흘려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조절 할 수 있다.

우비에 난 구멍은 이제 거대하게 커져서, 구멍으로 들어온 비에 온몸이 다 젖었다. 게다가 비닐 우비가 단열 효과를 해서, 안쪽이 엄청 더워지고 있었다. 이따금씩,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티아고를 보게 되었을 때 들으면 좋을 노래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우의 안의 습기와 온도가 너무 높아서 플레이어가 고장나버렸다! Pink Floyd's의 Comfortably Numb(편안한 무감각) 이라는 노래를 중간쯤 듣고 있을 때 딱! 기가 막히게 고장이 난 것이다!

하지만 나의 운은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플레이어가 이틀 전에 고장 난 것보다, 마지막 날 고장 나서 호텔에서 말릴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었다. 그리고 순례길의 마지막 마무리는 노래보다는 침묵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산티아고까지 5시간정도를 걸으면서, 나는 엄청난 기쁨, 순례길을 다 끝마쳤다는 성취감, 극도의 슬픔, 충만한 만족감 이 모든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춤을 쳤다가, 노래를 불렀다가, 울기도 하면서 제멋대로인 감정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다. 이런 감정들은 별다른 예고 없이 나에게 들이닥쳤다. 아마도 조만간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할 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건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결혼식에서 입장할 때나 느낄 감정이 이와 비슷하

지 않을까 싶었다. 이것은 마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는데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다.

언덕위에 올라서니, 마침내 아름다운 산티아고의 모습이 펼쳐졌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눈앞을 흐리게 해서 산티아고 대성당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결국 나는 산티아고를 만나게 되었다.

산티아고는 인구가 150,000명이 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도시였다. 내 앞뒤로 몇 명의 순례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내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맞이한다는 것에 좀 낯선 기분이 들었다.

나는 작은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 끝에 그토록 유명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나타났다. 성당을 두 눈에 담으면서, 두 귀로는 백파이프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자니, 또다시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성당은 복잡한 동상들과, 기념비, 높은 타워들로 숨막힐듯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다른 수많은 순례자들처럼, 나도 그저 돌위에 걸터앉아서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다볼 수밖에 없었다.

한 25분 정도 멍하니 있다가, 나는 백파이프 연주소리를 따라서 계단통로로 들어갔다. 사방이 막힌 곳으로 들어가니 연주 소리가 다른 톤으로 들렸다. 계단을 따라 걸으니 성당의 메인 입구인 오브라도이로 광장이 나타났다. 광장은 이제 막 도착한 순례자들이 정신없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분주한 분위기였다. 이 쪽의 평지 높이에, 왼쪽에 계단 하나가 있었고 또 바로 오른쪽으로 다른 계단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양 쪽의 계단은 이층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어있었다. 내 뒤에 펼쳐진 광장의 멋진 광경을 따라가 보니 성당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구리 문이 두 개 나타났다.

이 성당의 외관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앞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통로를 기준으로 두 개의 좌석이 나눠져 있었다. 네 번째 좌석마다 바깥 쪽으로 놓인 커다란 돌기둥이 천장까지 닿아있었다. 그 기둥 옆에 있는 좀 더 큰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뒤섞여 성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십자가의 꼭대기 부분에는 제단이 놓여있었다. 실제 제단은 금으로 만들어진 2층 아니면 3층짜리 구조물이었다. 이 성당의 복잡한 디자인 속에 천사 동상들과 성 야고보의 동상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십자가 모양”의 제일 짧은 부분에도 몇 개의 좌석, 기둥, 커다란 문이 놓여있었다. 돔 모양의 천장에는, 은으로 만든 거대한 향로인 부타후메이르가 걸려 있었다.

이 향로를 흔드는 미사는 주일에만 한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순례길의 행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보다. 금요일이 공휴일인 덕분에, 이 미사는 이번 주는 매일 한다고 했다.

이 행사를 보기위해서 거의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 있었다. 앉을 자리는 없었지만 제단이 잘 보이는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못가, 내 쪽에 있는 문이 열리면서 의복을 입은 아홉 명의 사제들과 수녀님이 행렬을 시작해서 그 자리를 금방 비켜줘야만 했다. 수녀님이 저녁성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성당을 가득 채웠다. 모든 미사는 스페인어로 진행되어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나는 마치 커다란 공간 안에서 집 안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수많은 인파 덕분에, 좌석 바깥쪽에 있는 복도에 있던 나는 사람들 사이에 밀려 이리저리로 움직여야만 했다. 이날 순례길을 걸으며 만났던 순례자들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찬송이 끝나자, 여덟 명의 갈색 의복을 입은 사제들이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길이 153센치에 무게 53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부타후메이르 향로에 석탄과 향료를 붓는 의식을 진행했다. 향로는 제단 위쪽의 돔 천장에 오래된 도르레같은 장치에 굵은 밧줄로 매달려 있었다. 밧줄 끝부분은 성당에 있는 기둥에 걸려있었다. 사제들은 그 두꺼운 밧줄을 풀어서 제단 아래쪽으로 옮겼다. 그들은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서서 메인 밧줄에 연결된 또 다른 줄들을 각자 짊어붙었다. 여덟 명의 사제들이 엄청난 힘을 한데로 모아, 줄을 잡은 손과 그들의 발을 움직여서 밧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우아한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발레가 연상됐다. 이 동작을 몇 번 더 했더니, 향로가 마치 추처럼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향로는 거의 시속64킬로미터까지 움직이며,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거리는 59평방미터라고 한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엄청난 연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성당의 문을 모두 열어두었다. 내생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으로 기억될 미사를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미사가 다 끝났을 때, 한 연인이 나를 보면서 자신들의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

키는 것이었다. 나는 당연히 그들을 찍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들의 카메라를 가져오려고 하자, 그들은 내 손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세 번 정도 실랑이를 한 끝에야 나는 그들이 내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눈치 챌 수 있었다. 내가 신은 신발과 모자, 그리고 등에 둘러멘 배낭이 나를 전형적인 순례자 그 자체로 보이게 하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자마자, 나는 기꺼이 포즈를 취해주었다. 그들과 사진을 찍고 나서 나는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또 포즈를 취해주었다. 사진 찍히는 것은 제법 재밌었으며, 특히나 산티아고 순례자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한 달 동안 길을 걸으며 만났던 소중한 친구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제니라, 보니, 알베르토, 프레드, 유리나, 멜린다, 미켈, 주디, 니콜, 글랜다^{1,2}도 있었다. 그리고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도 포옹을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폼포스텔라 인증서를 받기 위해 순례자 사무실로 걸어갔다. 이층짜리 계단을 올라가니,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몇 분정도 대기를 했다. 내 차례가 되자 자원봉사자가 나를 작은 카운터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나는 한 남자에게 몇 개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내 인증 도장을 확인 하고나서 인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인증서에 있는 추천인의 이름은 언제나 라틴어로 시작하는데, 내 것에는 “콘라둠”으로 적혀있었다. 10월 11일, 오늘로서 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수 백 만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순례길의 끝에 도착했다는 상실감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바뀌었다.

저녁 6시 반에 성당 광장에서 남아프리카 친구들인 안나와 멜린다를 만나기로 했었다. 가슴 뿌듯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나는 예약해둔 호텔을 찾으러 나섰다.

호텔로 가는 길에, 나는 소중한 듀란을 안전하게 보이지 집으로 보낼 수 있는 선적 택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을 발견했다. 원래 스틱을 샀을 때 든 가격보다 15배가 더 비싼 가격이었지만, 나는 더 많은 돈도 지불 할 수 있었다. 듀란은 이제 페덱스를 통해 집으로 돌아갈 여정을 기다리며, 며칠 동안 갈색 포장지에 둘러싸여 종이상자 속에 보관될 것이다. 단짝친구를 놓고 가게를 나오는데,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나간 것만 같았다. “딸깍”소리가 들리지 않자 내 귀가 멍해진

것 같았다.

엔에치 오브라도이로 호텔은 성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호텔의 외관 금속 느낌의 회색 직사각형 박스모양이었다. 윤기 나는 검은색의 창문이 우아한 느낌을 더했다. 극도로 청결한 로비가 이곳이 세련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이 호텔을 보니, 몇 달 전에 로베르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묵었던 포틀랜드의 나인호텔이 생각났다.

킹사이즈 침대는 두꺼운 하얀색 린넨으로 덮여있었고, 그 위로는 침대 아래쪽에 초록색 블랭킷이 덮여있었다. 크림색의 캐노피가 침대 위쪽의 천장에 달려있었다. 욕실은 세련됐으며 물기하나 없었다. 욕실 샤워기에 달린 버튼과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하마터면 프론트에 전화해서 뜨거운 물을 어떻게 트는지 물어볼 뻔 했다. 숙소에 좀 적응을 한 뒤, 나는 커다란 방에서 편안한 장소를 찾아 쉬면서, 지난 한 달간의 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없는 내 모습은 이제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6시 반, 나는 성당 앞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는 성당 때문에 봄비는 식당과 상점들을 통과해서 걸었다. 저녁식사에 어울리는 야외석이 있는 멋진 카페를 찾는데 딱 5분 걸렸다. 주문을하기 직전에, 우리는 우연히 미켈과 프레드를 만나서 저녁식사를 함께하기로 했다. 식사를 다 마친 뒤, 나는 안나와 멜린다와 함께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궁전 같은 나의 호텔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가능한 모든 호텔 용품을 사용했다. 나는 스파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한증막에서 몸을 녹였다. 따뜻한 사우나 안에서, 나는 실내 수영장의 차가운 물에 몸을 담갔다. 한참 호텔 시설을 이용하고나니, 나는 킹사이즈 침대에 얼른 눕고 싶어 졌다. 305호실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깨끗한 침대시트가 있었다.

스물아홉 번째 와 서른 번째 날

이틀간의 휴식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음날도 사우나를 하고 한증막에서 몸을 녹이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패턴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매일 의무적으로 할당되었던 27킬로미터의 걷기가 사라지니, 하루의 시작이 낯설게 느껴졌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기로 한 시간이 다가와서 호텔을 나서서 잠깐 걸었다. 커피를 마신 뒤에 무엇을 할지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 배낭을 안메고 걸으려니 몸이 자유롭긴 했지만, 뭔가 벌거벗고 있는 느낌이 들고, 듀란이 없으니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왔다. 그저 페덱스가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듀란에게 좀 더 편한 자리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5분정도 걷고 나니, 18세기에 지어진 산프란시스코 성당의 뒷모습이 눈앞에 들어왔다. 내가 보는 시점에서는, 빨간색 점토로 쌓아올린 네 개의 지붕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온통 빨간색으로 덮여있는 지붕들 사이에 갈색 돌로 만든 커다란 직사각형의 돌들이 숨 쉴 틈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두 개의 종탑은 파란 하늘을 향해 뻗어있었다.

나는 약속시간 몇 분 전에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겨우 7개의 테이블밖에 없는 작은 카페였는데, 세 개는 첫 번째 층에 있었고 나머지 네 개는 이 층에 있었다. 위층에서 나는 순례자 친구 스티브와 마리베쓰를 만났다. 몇 주 전에 그들과 함께 걸은 이후로,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의외의 재회에 우리는 모두 미소 띤 얼굴로 인사했다. 안나와 멜린다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사랑스러운 그녀들이 도착하고, 우리는 세잔의 콘라체와 커다란 초콜렛 에끌레르 하나를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로 주문했다. 나는 혹시라도 그녀들과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해졌다.

멜린다와 안나와 작별인사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처음 새 신발을 신은 날 우리는 처음 만났고, 그날 이후로 길 위에서 여러 번 마주쳤었다. 어떤 연유로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졌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결국에는 우리의 관계는 돈독해졌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우리는 여러 번 헤어짐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번은 정말 마지막 이었다. 각자 다른 쪽을 바라 보면서 눈물을 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가 다가오자, 나는 이날 도착한 또 다른 순례자들로 북적거릴 성당에 가보기로 했다. 사실은 흔들리는 보타후메이로의 사진을 제대로 찍어보고 싶어서 다시 가기로 한 것도 있다. 사진을 찍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미사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성당 건너편을 보다가, 어제 내가 서있던 자리를 보았다. 나는 그쪽 문이 열리고 사제들이 제단으로 향하는 행렬을 보고 싶었다. 그때 내 뒤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뒤 돌아보았다.

이번 미사는 국가 공휴일 당일이라 훨씬 호화스러운 스케일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하얀색 의복을 걸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천천히 내 뒤에서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행렬에서 90도 틀어진 쪽에 앉아있어서, 끝없이 들어오는 행렬의 끝을 볼 수가 없었다. 미사를 돕는 소년 몇 명이 향료가 들어있는 작은 보타후메이로를 두 줄로 나눠 서있는 사제들에게 나눠주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파악하기도 전에, 장엄한 그레고리오 성가가 온 교회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솔로로 성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거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 찬송은 제단에서 의식이 끝날 때까지, 거의 15분가량 계속 되었다. 은빛 향로가 흔들리는 멋진 사진을 찍었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나를 9세기, 10세기로 시간이동을 시켜준 감동스러운 찬송덕분에 향로 의식의 감동이 덜해졌다.

나중에 들었지만, 보타후메이로를 흔드는 의식은 11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신도들이 성당에 모이는 동안 향로를 계속 태웠는데, 역사가들은 수도승들이 이 향로를 하늘 높이 흔들기 시작한 것은, 연기가 병균이나 질병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산티아고에서, 이 향로는 그 규모가 커졌는데, 여기서 나는 연기로 한달동안 씻지도 못하고 걸어온 순례자들의 악취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제단 밑에 있는 지하실로 내려가기 위해서 짧은 줄을 섰다. 지하실에는 은으로 만든 성 유물함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성 야고보 사도의 유해라고 믿어지는 것이 담겨있었다. 작은 방에는 12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유물함을 보고 있었다. 사람이 많은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신념을 가진 채,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를 하며 이곳까지 순례길을 걸어온 수백만의 사람들을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혀왔다.

의식이 다 끝나고, 나는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에 좋은 책을 좀 사서 음식을 먹으려고 밖으로 나왔다. 관광 안내센터에서 영어로 쓰인 책을 파는 서점을 소개해 주었다. 서점으로 가는 길에, 나는 버거킹을 지나쳤는데, 고향을 떠난 이래로 이날까지 패스트푸드 식당을 본 적이 없었던 나는 더블 와퍼와 산처럼 쌓인 어니언 링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서점에서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 책을 한권 사서 콘라체 한잔과 함께 책을 읽을 멋진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길을 건다가 미켈과 프레드를 마주쳤다. 덴마크에 있는 장애아동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피니스테라 해안까지 계속 걸기로 한 미켈과 또 한 번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눴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전화기와 인터넷이 놓인 가게를 보았다. 나는 남동생과 로베르타에게 전화를 걸었다. 로베르타는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나는 멀어진 우리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서먹해진 감정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잘 포장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손님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는 식당에서 조용한 점심을 먹었다. 주인은 내가 식당에 찾아와서 기뻐 보였다. 식사는 완벽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로베르타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생각만 맴돌고 있었다.

이날 오후와 저녁 시간은 로베르타가 없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여전히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하고 싶었고, 우리의 서먹한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었다. 언제나 관계는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이라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로베르타는 점점 더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나에게서 천천히 멀어져가고만 있었고, 나와 그녀의 만남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와 헤어지기를 원할까봐 걱정도 됐지만, 무엇보다 나는 내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몇 년 동안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노력해왔지만, 나아진 것은 없어보였다. 이번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나의 부재로 인해, 그녀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고 싶어졌을지, 아니면 완전히 헤

어지게 하고 싶었을지 알고 싶었다. 진심으로 나는 전자 이기를 원했다.

산티아고에서의 나의 마지막 날은 엔에이치 오브라도이로에서 맛있는 브런치를 먹고 나서 대성당까지 익숙한 길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계단 옆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교차로에서, 나는 호주에서 온 제시와 제임스를 딱 만났다. 우리는 서로 포옹을 나누었고, 그들은 딱 맞춰 해피 리틀 베지마이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어제 두 명의 글랜다와 헤어졌던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빠른 속도로 걷던 나는 계속해서 길 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재촉했다. 이제는, 순례길이 다 끝나고 각자 세계 곳곳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순례자 동지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다.

호텔로 돌아가는 마지막 산책길에, 나는 텅 비어있는 대성당을 다시 한 번 둘러보기로 했다. 대성당은 수 백 만 명의 순례자들을 맞이해 왔고, 또 다른 수 백 만 명의 순례자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앞으로 도착할 그들을 마음속으로 축하하면서, 순례길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좋았기를 바랐다.

2012년 10월 14일, 나는 30일 동안 끊임없이 걸어왔던 행군을 산티아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몸을 실으면서 끝냈다. 3일 전까지, 이곳을 내가 걸었다는 것이 잘 상상이 안됐다. 나는 마드리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항 근처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2012년 10월 15일에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보이지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난 5주간의 여정을 되돌아 보았다. 처음 이 모험을 떠날 때 까지만 해도 나는 인생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나는 넘치는 물음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 구간은 여러 공항에서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20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보이지로 가는 나의 마지막 비행기는 저녁 11시에 공항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로베르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후기

보이지로 돌아오고 나서 며칠 후, 나는 내 파타고니아 드리프터 신발 한 짝과 대서양 건너 산티아고 순례길에 두고 온 나머지 한 짝의 사진을 들고서 아이다호에 있는 등산용품 매장을 찾아갔다. 간단하게 사정을 이야기 하니, 점원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이 신발은 최소 2주가 넘는 트레킹을 견딜 수 있는 신발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나는 점원이 파타고니아 본사와 통화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디 전화를 받는 본사 직원도 가게 점원만큼만 내 이야기에 흥미가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파타고니아 본사로부터 새로운 신발 한 켤레가 도착했다.

5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순례길이 끝나고 돌아오니, 주변의 모든 친구와 가족들이 나의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나도 이미 나의 육체적, 감정적 짐을 스페인에 두고 왔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화장실에서 저울에 올라 직접 눈으로 89킬로그램이라는 숫자를 확인을 해보니, 충격적이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9월 11일에 잤을 때는 97킬로그램이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무려 8킬로그램이나 빠진 것이다! 스키니진은 너무 험령했고, 평범했던 바지들도 지퍼랑 단추를 다 잠가도 겨우 엉덩이에 걸쳐질 정도였다. 나는 새로운 청바지를 하나 사고, 언제 다시 몸무게가 돌아갈지 모르니 옛날 옷들을 그대로 보관하기로 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여행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였다. 짧고 전형적인 나의 대답은 언제나 “엄청 좋았지.”였다. 대체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친구들의 경우는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 커피나 점심을 함께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런 식의 대화를 여러 번 하고나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그런 질문들을 정리해서 수많은 회사나 단체의 프리젠테이션에 활용하게 되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사진으로 구성된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순례 여행의 기술적인 측면, 순례길의 역사, 개인적으로 배운 교훈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일상에 담아내는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뤘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명쾌한 해답을 발견한 유레카 같은 순간은 없었다. 348.6킬

로미터라는 이정표를 보았을 때, 나는 인생의 모든 질문을 해결할 해답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답을 찾는 대신에, 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찰을 여러 번 경험 할 수 있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순례길은 그 빛을 극도로 끌어 올리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안의 빛을 늘 인식하고 잘 관리해서, 죽기 직전까지 밝게 빛나게 하고 싶다.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을 만드는 작은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벼운 미소, 맛있는 커피한잔, 아름다운 노을, 이따금씩 만나는 친절함은 내 안의 빛을 밝히는 연료가 되어준다. 지금도 나는,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는 “생기를 되찾는” 움직임 방법을 사용해서, 워킹스틱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지만 원을 그리며 움직이면서 새로운 각도로 다가가려 노력한다.

나는 걱정거리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둔다. 고질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걱정을 하면서 동시에 행복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마치 해적들이 쓰는 안대를 양쪽 눈에 다 쓰고서 석양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과 다름없다. 한 친구가 나에게 보내온 이름 모를 시인이 쓴 간단한 시 한 구절이 내가 새롭게 배운 삶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태양아래의 모든 문제들에,
만약에 그 해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진데.
해답이 있다면 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면 그 뿐.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은 인생에 찾아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며 극찬해왔다. 하지만 말 하는 것은 쉽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순례길에서 걸었던 백만 걸음을 회상하는 동안에, 나는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일들을 걱정하느라 허비했던, 인생의 중요한 시절을 집중해서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그저, 인생에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만을 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또는 생기지 않을지를 바꿔보려 애쓰는 대신에, 그저 벌어진 일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에 더 많은 시간

을 할애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는 걱정들을 해결하고 있다. 처음에 나는, 모든 네트워크와 케이블 선을 차단해서 뉴스를 보지 않는 방법을 썼었다. 하지만 금단 증세가 생겼다! 여러분들은 부디 단순하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은 쓰지 않기를 바란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을 잠깐 읽는 것만으로도 최근의 정세를 충분히 잘 알 수 있다. 가장 올바른 뉴스를 읽는 방법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듣기만 하는 것 말고 그 뉴스에 대해 나만의 생각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으로부터 해방되면, 우리는 좀 더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내면의 빛을 계속해서 빛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기쁘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이제 과거를 돌아볼 때 완전히 과거로 들어가서 배울 점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나 어떤 일에 얽매여있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미래에 늘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나는 남은 인생을 애꾸눈으로 지평선을 바라보며 걷고 싶지는 않다. 그냥 현재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이다.

여행을 하면서 표지판에 대해 신뢰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낯선 나라에서 지도도 없이 800킬로미터의 길을 걷는 동안 작은 노란색 화살표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걱정거리 일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을 날려버리고 그 화살표를 믿고 따라가면, 결국에 나는 산티아고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작은 화살표로 지나치게 고민한다거나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나는 딱 두 번 길을 잃었는데, 두 번 모두 1킬로미터도 가지 않아서 길을 잃은 것을 알아챘다. 고작 100걸음 안에,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챌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바쁜 세상 속에도, 당신이 인생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줄 표식은 어디에나 있다. 그 표식에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따라가라. 당신이 만약 잘못된 일,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나라 속에 있다면, 당신 주위에는 새로운 변화로 이끄는 빛나는 커다란 표식이 있을 것이다. 그 표식

의 소리를 듣고 바꾸라. 인생에 있는 좋은 길의 수만큼, 그 길을 가리키는 수많은 표식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표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정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집으로 돌아 온지 11개월 만에 이 책이 출간 되었다. 그동안 나는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집필 작업을 해왔다. 내가 책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지만, 나는 이 작업을 하는데 수백시간을 쏟았다. 그리고 내가 대중 연설가가 되리라곤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나는 지금 정기적으로 청중들 앞에 서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순례길은 나의 친구, 가족, 나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여행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었고, 그러면서 가장 돈독해진 우정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였다. 내 감정의 배낭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도 즐거운 일중에 하나였다. 정신적으로 늘 깨어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삶의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여행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나고, 나와 로베르타는 우리의 연인 관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표식을 제대로 바라다볼 수 있게 되었다. 슬프지만, 우리는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의 이별은 나에게, 인생을 살면서 있었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결정이었다.

만약에 내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헤어졌었다라면, 나는 그녀를 미워하고 그녀가 나에게 “잘못한 일”들을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 것이다. 그 길을 걸으면서, 나는 그녀와 함께했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고,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수많은 가르침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었다. 마치 순례길에서의 시간이 나를 변화시켰듯이 말이다.